

< 報 叢 >

- △ 金中央情報部長 空本來訪
- △ 建國機退役
- △ 指揮官 特別政訓教育 實施
- △ 中央滑空訓練所 尙書
- △ 十·二行事 有功將兵 表彰
- △ 駐日美空軍서 順天災民에 衣類寄贈

☆ 送年辭

이달의말 돌이켜 보는 마음

空軍參謀總長 空軍中將

張盛煥 (二)

申一澈 (五)

62年の回顧

- 再建國民運動의 展開와 그 成果 李順鍾 (八)
-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展開 李煥逸 (一〇)
- 軍事部門의 總決算 禹炳奎 (一一)
- 宇宙科學分野의 回顧 李鍾秀 (一四)

空用途單座戰鬥機의 運用論

- 人間의 權利 人間의 尊嚴性 尹應烈 (二六)
- 金箕斗 (一六)

座談會

백차꿈을바리보며

空士生徒들(二三)

- 만화·除夜의 鍾이 울릴 때 高斗庚 枝彦 (六〇)

原子力時代와 民主主義(下)

- 62年度空軍十大 뉴스 編譯系 (四)
- 장병 페이지 編譯系 (四)

△ 航空發達史 ⑨

K·나이트

有人機와 無人機

- △ 까르까손느 ^ 世界驚異巡禮 > 洪聖杓 (三)
- △ 원先生見聞記 김영주 (五八)
- 桂文樹 (六二)

北韓 實態

깨어진 樂園의 꿈

關貴星著書에서 (四四)

수필·겨울밤이면 생각나는 일들
고향 金奎東 (六七)
젊은날의 어느 겨울 이야기 李鍾桓 (六)
洞窟속의 얼굴 李敬南 (七)

送年頌

- 雪嶽斷章 朴木月 (一)
- 菩提樹 아래서 楊明文 (七)
- 金芝鄉 (七)

鄉愁

- 題目뿐인 공포 朴淵禧 (七)
- 柳起英 (七)

< 小 說 >

- 錄 1 大韓民國憲法 全文
- 附 2 既刊미사일 重要目次抄

編輯後記

군 인 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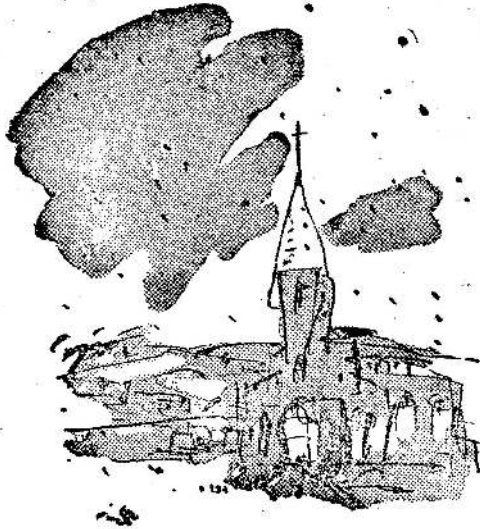
-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 셋. 우리는 출혈수범하여 말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부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거이 받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사를 가리며 단결을 굳게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다.
-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선용한다.
-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화 명 공 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제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미 사 일

제 20 호



1962

送年辭

參謀總長
空軍中將
張盛煥

親愛하는 將兵諸君

찬란한 再建課業遂行의 해 一九六二年을 보냄에 際하여 本官은 먼저 그간 國
衛의 最前線에서 不徹晝夜 祖國의 하늘을 지키며 革命課業完遂에 心血을 기울여 온
將兵諸君의 勞苦를 致賀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해는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나 커다란 前進의 해였다.



國際的으로 東西冷戰의 角逐戰에서 恒常 平和를 希求하고 있던 自由陣營이 心機一轉 積極的으로 나아가 越南에서의 共產
軍의 壓縮, 쿠바에서의 共產基地의 追放등을 敢行함으로써 世界赤化의 野慾에 狂奔하고 있는 共產徒黨의 屈服을 戰取하여 東西
冷戰의 새로운 紀元을 마련하였고, 國內的으로는 確固하고도 安定된 基盤 위에서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을 實踐하는 한편 새 憲
法을 國民投票에 依해 確定함으로써 第三共和國의 基礎를 닦는 歷史的課業을 豫定대로 完遂하여 國家百年 大計의 礎石을 마련
하였다.

또한 우리 空軍으로서는 年來의 宿願이던 東洋屈指의 航空廠이 竣工되는 한편 新銳機導入을 앞두고 光州基地가 起工되는 등 날로 發展하는 空軍의 面目을 더욱 새로이 하였다. 한편 續出하는 萬時間無事故 飛行記錄樹立은 各種航空機의 아이덴 성공과 함께 躍進하는 우리의 操縱技術과 整備技術의 偉容을 誇示하였다.

뿐만 아니라 一八個에 達하는 指導部落을 結緣하고, 이에 物心兩面의 協助를 증으로서 農村指導에 殊心한은 勿論, 旱水害對策의 積極支援 등 各種 再建活動에도 模範的 役割을 다해 왔다.

생각컨대 이러한 成果는 勿論 政府當局의 賢明한 施策과 後方國民의 聲援에 힘입은 바 큰 것이지만, 反面 諸般難關을 克服하고 所期의 成果達成에 刻苦의 勞를 다 해온 全將兵文官諸君의 功勞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留意해야 할 것은 年初의 計劃과 오늘의 實績이 不一致點은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誠意껏 檢討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軍隊에 있어서는 計劃과 實踐이 完全一致되어야 하는 特殊性을 고려할 때, 좀더 反省하고 분발해야 할 점이 아직도 若干은 남아 있다고 본다.

이에 본관이 一九六二年을 보내는 歲暮에서서 將兵諸君에게 특히 당부하는 것은, 조용히 지난 한해의 業績을 돌아보며 이에 대한 冷情한 批判을 加함으로써 新銳機導入 등 보람찬 課業들을 가지고 찬란히 밝아오는 再建의 해 一九六三年을 맞을 굳건한 결심을 새로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끝으로 任務遂行中 散華殉國한 戰友들의 英靈앞에 삼가 全將兵과 함께 冥福을 빌며, 또한 그간 우리 공군 발전에 礎石의 任務를 다하고 新銳機와 對置되어 退役한 建國機에 對하여 惜別의 뜻을 表하는 同時에, 앞으로의 將兵諸君의 健闘를 祝願해 마지않는 바이다.

一九六二年 二月 日

送

年

頌

고되다.

고된대로 한해는 가고

모질게 이룩되는

나의年輪.

진실로

산다는 것은 힘에 베풀고 고되다.

허지만 힘에 베풀 일이므로

至誠껏 살아온

지난 한해의 보낸 나날들...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쉽고도 容易한 일이라면

무슨 보람으로

이를 악물고 至誠껏 살가부냐.

바람이 사나울수록

허리가 휘어질수록

줄기차게 버티는

저樹木의

정정한 모습을

그 強靱한 生命의 處위에

넘치는 歡喜를

그 영광을.

괴롭다.

괴로운대로 한해는 가고

誠意를 다한

우리의 지난 나날을

이제

취우침 없는 편안한 마음이

높은 鍾樓의,

줄을 당긴다. 종이를 울리는.

잘 가라... 一九六二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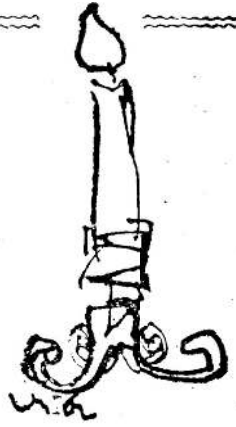
울려 퍼지며 사라지라. 一九六二年

모멸의 다정한 微笑를 보내라.

一九六二年.



朴木月



이달의 말

들이켜보던그마음가집

民族史의 새 길을 위해

申 一 澈

△高大文理大講師▽

「過去를 묻지말라」 그리고 「前進하라」라고 忠告하는 말이 들린

다. 남은 저물고 갈 길은 멀때 자꾸만 밝아온 죽적을 뒤돌아 본다는 것은 확실히 前進을 저지하는 消極的 障礙라고 할수 있다. 青年은 希望에 살고 老人은 追憶에 산다는 말은 진부한 金言이나 青年들이 老老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되새겨 보아야 할 金言이다. 두 바퀴달을 가진 自轉車가 左右 어느 쪽으로 넘어지지 않는 理致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다. 自轉車가 제 자리에서 있다면 어느 편으로든 넘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전진할 때에만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物理는 우리 個人과 社會를 위해 좋은 敎訓을 주는 것이다.

歷史는 反復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해가 갈아 들더라도 春夏秋冬의 四季節처럼 거기에 質的 發展을 인정할 수 없었다면 그 歷史속에는 새로운 未來를 創造하는 人間의 역할이 無視되었다는 結論이 될 것이다. 맑스主義者들의 주장처럼 歷史는 物質的 條件에 의해 決定돼 있다는 일종의 宿命觀을 따른다면 人間이 歷史를 創造하는 積極的 側面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歷史를 만든 것은 바로 人間이라는 事實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歷史를 「反復」이 아닌 「創造」로 만드는 것이다. 歷史가 한낱 過去의 反復이라는 것은 過去에 새로 온 것이 보태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는 安定이나 現

狀維持라기 보다는 時間上 하나의 後退를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沈滯性인 것이다. 그리고 沈滯는 결국에 가서는 死滅을 결과하고야 만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個人生活에 있어서나 社會生活에 있어서 過去에의 後退를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反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萬物은 流轉한다」 이 말은 헤라클레토스 이래 오늘날까지 그대로 살아 남은 生命의 말이다. 흐르지 못하고 한곳에 고인 물은 썩고야 만다는 것은 개인이나 역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들어 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過去를 수시로 뒤로 박차고 부단히 未

來로 나가는 現在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現在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은 엄숙하고 엄연한 사실이기에 때문에 우리의 思考나 行動이 現在내지는 現實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無力하거나 無意味한 것이다. 現在 우리가 서 있는 時點에서 모든 문제를 출발시켜야 하며 거기에 해결의 열쇠도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七年前의 過去를 보던 눈으로는 그때와는 變換으로 變化한 國內 外情勢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으며 十八世紀 존 록크가 산 英國에서 나온 自由主義를 오늘날 新國家들의 民主主義 再建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토인비는 「모든 歷史는 現代史이다」라고 말했다. 歷史는 그 시대마다 當時代의 觀點을 가지고 다시 쓰곤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過去는 같은 것일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過去를 뒤돌아 볼 때 마다 그

觀點이 달라져야 하며 時間上 그 만큼 前進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콜링우드(Collingwood)도 「어떤 歷史學家가 연구하는 過去
는 죽어버린 過去가 아니라 어떤의 미에 있어서 아직도 現在에 살
아있는 過去이다」라고 했다. 過去를 돌이켜 보는 마음 가짐은 언
제나 現實에서 비롯해야 하며 未來의 前進를 위한 스펀팅·스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해를 앞으로 바라보며 묵은 해를 보내는 이
歲末에 돌이켜 보는 마음가짐 역시 그러한 것이다. 現在의 눈물 통
해서가 아니면 우리는 過去를 돌아볼 수 없고 過去도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後進國、民主主義、革命、再建、經濟計畫、不
正、腐敗、人間革命、指導者 등 지난해에 불을 일으킨 流行語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역시 民政의 艱難에 現在에
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오 十七年間の 民主主義失敗의 歷史
를 反省하는 마음가짐 역시 未來에의 밑받침으로서 現在에서서 점
토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二

現在는 過去와 未來의 한 綜合이며 따라서 過去는 現在속에서 들
어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哲學者 화이트헤드가 쓴 「위티」
한 例를 들어보자.

英國上院議會에서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討論한 후 투표에 들어
가게 되었다. 반대되는 두 派는 자기들의 지지자를 규합하기 시작
했다. 한 派에서는 자기 議員한명이 精神病으로 인해 缺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決議하는 날 이 열 빠진 上院議員을 議事堂
까지 끌어오기 위해 동료 한 명은 뒤에서 밀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코앞에 그가 좋아하는 人蔘을 매달고 따라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現實 역시 過去는 뒤에서 밀고 未來는 코앞에 매달려 있는 그
런 立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過去를 돌이켜 본다는
것은 E. H 카아의 말처럼 「過去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를
過去로부터 解放시키는 것도 아니오 現在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過
去를 征服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歲末이 올 때 마다 우리는 지난해를 로멘틱한 노스탈자를 가지고
돌리켜 보며 感傷에 잠기는 것이 일수이다. 「별새 한 해가
가고!」 「나도 한살 더 나이를 먹었다」는 憂愁에 젖어 보는데 그

친다. 그리고 지난 해의 事件을 증거역에 떠오르는 것을 몇가지 列
舉해 보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하는 懷古趣味이 야기 끼리료여
기고 그 이상 그런 事件에 대한 主體的 反省이나 批判을 試圖해 보
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韓國人의 傳統은 「過去를 사랑하는」데 그
쳤다고 할 수 있다. 孔子가 述而不作이라고 해서 자기의 學問的態
度는 過去의 것을 그대로 「祖述」한 創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고
했듯이 우리 東洋人의 精神속에는 너무나 강한 復古尙古觀念이 뿌
리하고 있어서 예리한 批判의 成長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대개
는 過去에 사로잡혀 過去의 捕虜가 되어 現在와 未來를 위한 새로
운 길을 열지 못하고 이른바 아시아的 停滯性을 默守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歷史의 創造를 위해 過去를 征服하고 理解해
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는 過去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인연을 끊
는다는 것은 하나의 幻想에 불과하며 어디까지나 過去로부터 現
在을 이해하고 過去를 現在를 위해 征服하는 苦役이 同伴하지 않
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民族史의 온갖 惡遺
產의 目錄을 調査整理하고 清算을 위한 對策을 세움으로써 現在에
過去가 진정으로 다시 살고 未來를 위한 올바른 길을 열어주게 되
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라는 자기의 座標를 확인하는 일
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過去를 돌이켜 봄과 동시에 未來
에의 眺望을 兼備해야 한다. 우리 民族은 지금 革命途上에 처해 있
고 A. A 블러에 속하는 新國家群의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물결
속에서 先進諸國이 걸어온 길보다는 지름길이 되는 「자기의 길을」을
摸索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個人的 恣意나 外部壓力에 의해 左
右되는 것이 아니라 民族史의 過去로부터 어느 정도의 制約을 받고
또한 현재 우리가 未來를 위한 冒險을 도하는 方向에 따라서 決定
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돌아다 보는 마음속에
는 未來를 창조하려는 行動에의 情熱이 있는 것이며 그 情熱은 반
드시 過去에 대한 反省에 기초해야 비로소 正道를 脫線하지 않는
지름길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一九六二年을 보내는 이 해의 저녁 노을에 묻는 듯가를 상상한 나무가지에서 우리는 오는 새 봄의 푸른 싹을 볼을 알아야 하고 그런 희망과 洞察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를 보낼 때마다 多難한 한해를 보냈다고들 말한다. 사실 一年三百六十五日에 多難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平和時에도 역시 難問題들은 항상 인간을 괴롭혀 왔고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샤르트트가 「인간은 자유라는 이름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인간이 자유를 향유하는 한 그 자유에 대한 責任의 무거운 짐을 면할 수 없으며 만일 그것을 면하려고 할 때에는 盲從 自暴自棄를 의미하게 됨으로 이는 자유에 대한 모독이요 人間性에의 叛逆이라고 역설했던 것이다. 인간은 항상 難問題와 대결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그림자가 따라 다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근심 걱정이 한사라도 떠날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은 이른바 現實 逃避로서 용서 받을 수 없으며 卑怯이요 自己모독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現實과 항상 對決하는 것이 진정한 人間의 길이오 그것이 참다운 自由에의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넓은 大路가 아니라 지이드의 이른바 「좁은 문」이다. 이 「좁은 문」은 나 자신의 경건한 反省과 피나는 自己批判이라고 할 수도 있고 眞理와 正義 그리고 自由는 남이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손으로 획득하고 戰取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서물리 悲觀論者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民族은 나쁜 習性을 허다히 지니고 있으니 희망이 없다는가 누적된 貧困을 극복할 도리가 없다고 斷定하는 따위의 생각은 인생과 세계를 皮相的으로 보는 태도에서 오는 것이오 安易한 녀투리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장래에는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라는 福이을 運數라고 하는 宿命觀의 樂觀主義 역시 그러하다.

冒險의 정신을 가지고 現實을 開拓해야 한다. 해명위의 「바다와 老人」의 마지막 구절처럼 그토록 노쇠한 老人도 獅子의 꿈을 꾸고 있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쫓기는 꿈, 敗北主義의 인 꿈만을 꾸어 왔다. 이제는 우리도 호랑이의 꿈을 꿀 수 있는 青春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후는 後進國」이라는 말보다 「새로 일어나는 나라」(The emerging nation)라는 말을 택하자.

우리는 지금 實驗을 하고 있다. 우리 民族은 이제 過去를 되풀이 하기에는 너무도 지치고 말았다. 人間革命 社會改革을 통해 새로운 社會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意慾만이 앞선 한낱 유토피아에 그치지 말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이켜 보고 歷史를 돌이켜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만 보며 아래와 뒤를 돌아볼 줄 모르는 비분 강개형을 경계하며 愛國者專賣特許權을 가진듯이 착각하는 獨善도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 三面記事를 보고 비분 강개하여 策상을 치는 것만으로도 나라이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科學的 洞察과 歷史的 反省이 같이 하지 않으면 자가도취의 喜劇에 더할 것이 없는 것이다.

不可能한 命命을 시달하는 것이 能者가 아니라 命命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선행해야 할 것이다. 따로오라고 命命하기는 쉬우나 그 보다는 따르게끔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제 해 저무는 고요속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 보고 歷史를 깊이 反省하는 시간을 가지자. 民族史를 돌이켜 보는 마음의 터전 위에서 본뜬한 愛國愛族하는 마음이 다시 싹터야 한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가장 엄숙한 시간이고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그것이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새벽에의 祈願이 기도 할 것이다.

再建國民運動의

展開와 그 成果



一、再建國民運動의 展開

革命은 恒常 少數 「엘리트」가 일으키지만 成就된 革命을 國民革命으로 轉換시키는데는 第二革命으로서의 國民의 國民運動을 通해서 進行된다. 革命은 그 初期의 過渡의 緊張狀態를 持續시킬 수 없기 때문에 革命의 다음 段階에 適合한 政治的 指導力을 形成하여 革命이 改革의 國民運動을 通한 國民革命으로의 脫皮過程을 밟지 않으면 社會의 安定은 勿論 革命의 成功的인 結果를 얻지 못하게 된다.

五·一六軍事革命이 일어나고 舊 政權이 무너지자 革命推進의 力點이 國民運動에 놓이고 「엘리트」에 의한 革命을 國民革命으로 展開시키는 點을 國民運動이 擔當하게 되었음은 論理的 歸結이었다.

社會的 基礎없는 革命은 政變에 그치게 되므로 國民運動은 革命을 國民적으로 옮기는 母體의 役割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五·一六革命을 國民革命으로 轉換시키기 위하여 國民運動의 誕生이 要求되었다. 그리하여 革命政府는 곧 一九六一年六月十二日 國民運動推進體로서 再建國民運動本部의 發足を 보게하였다. 그러나 初期에 있어 國民運動에 對하여 好感을 가진 人사들은 매우 적었고 도리어 지난날 政治적으로 쓰라린 經驗을 가진 國民들은 國民運動을 疑心으로 가득찬 눈으로 冷眼視하고 憤情으로 運動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日帝時代의 國民總力聯盟 때부터 汎國民의인 組織에 의해서 한번도 國民自身의 利益을 본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자기자신도 政治에 惡用당하고 말았다. 事實過去에 있어서는 단 한번도 國民自身을 위한 國民組織이 되어 본 일도 없었다.

그 結果 國民運動은 國民들로 부터 많은 疑懼心과 嫌心性을 가지고 대하는 바 되어 指導者들의 心血을 기울인 指導에도 不拘하고 몇달이 지나도 國民運動은 遲遲不振하여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었다.

△再建國民運動本部 要員教育課

李 順 鍾

이리하여 一九六一年九月末日을 期하여 第一次 機構改革을 斷行하여 國民運動의 主體勢力을 舊世代로부터 새 世代로 옮기게 하였다. 즉 가장 活動力이 強하고 또 勇敢하게 남은 黨員을 벗어 버릴 수 있는 男女青年들을 革命課業完遂의 中樞의 勢力으로 育成하기 위하여 自然部落單位로 全國에 걸쳐 再建青年會 再建婦女會를 組織하고 確固한 勝共民主理念과 드거운 鄉土再建의 意慾을 強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奏效하여 青年會 婦女會 活動은 組織이 풀리지 않는 淺한에도 不拘하고 全國坊坊谷谷의 山間僻地에 이르기까지 活潑히 展開되어 革命課業完遂에 對한 굳은 決意와 鄉土再建에 對한 旺盛한 意慾을 充溢하게 하였다.

이러한 現象에 國民들은 차츰 國民運動이 前日의 腐敗한 政客들이 政治道具로 쓰기 위한 組織體와는 性格이 根本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認定함과 同時에 國民運動은 確實히 後進社會의 再建의 重要한 方便이요 民主主義의 指導勢力을 形成하는데 貢獻할 수 있는 貴重한 契機가 될 수 있다는 理解를 가지게 되었다.

國民運動에 대한 國民들의 理解와 意慾이 高調된 때를 같이하여 最高會議議長은 六二年度 施政方針에서 「革命課業遂行隊列에 民族의 總力을 集中시키기 위해 國民組織과 國民訓練을 強化하여 勝共民主理念을 確立하고 國民道義와 民族正義를 昂揚하여 國民精神을 振作하기 위한 汎國民運動을 展開할 것임이다」라고 闡明하므로써 國民運動에 새로운 轉機는 마련되었던 것이다. 實로 革命第二次年度인 一九六二年度는 革命課業完遂를 위한 하나의 實踐的 起點이었고 또한 舊惡과 惡習을 一掃하고 새로운 秩序와 國民道義에 立脚한 福祉國家建設의 礎를 마련하기 위한 強力한 實踐이 要求되어지는 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해에 들어서자 곧 第二次機構改編을 斷行하여 지금까지 國民運動이 被動的으로 政府施策啓蒙宣傳에 그치는 迂迴의 消極的 方法을 止揚하고 革命課業完遂를 위한 主體勢力을 育成을 위하여 積極의 이면에서도 能動的으로 國家再建事業에 參與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왔다.

二、一九六二年度 國民運動成果

가, 青年教育事業

國民運動의 主體勢力은 어디까지나 青年이다. 특히 後進國에 있어서는 젊은 知識人의 參與없는 運動을 成功에로 이끌어 갈 수 없다. 따라서 國

民運動에 必要한 것은 國民運動의 「엘리트」를 養成하고 「엘리트」가 아니라 革命課業을 推進하는가에 問題의 核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國民運動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일은 첫째로 이 運動의 中 樞勢力이 된 青年을 위한 教育事業이다. 教育의 革命은 이 國家나 民族의 革命은 그 結實을 보지 못한다. 社會改造에 있어서도 教育처럼 根本의 人 子 實을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歷史를 보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革命은 人民에 依해서 意志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指導力을 가진 새로운 社會勢力에 依해서 意志되어 왔다. 後進國의 革命은 주로 社會改革에 대한 새로운 哲學을 가진少數 「엘리트」의 「엘리트」에 의해서 遂行되었다. 이것이 國民運動이 젊은 「엘리트」의 育成에다 重點을 둔 가장 理由이다. 따라서 六二年度에 努力가 무엇보다도 重點을 두고 힘과 精力을 集中시킨 것은 青年教育事業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今年에 들어와 國民運動 各級指導要員 特히 再建青年會 再建婦女會 代表들에게 一週日間乃至 二週日間の 合宿訓練을 實施하여 豫想外로 多大한 成果를 올렸다.

그 뿐만 아니라 各道 및 市郡에서 教育의 成果의 畧에 비추어 道費 및 地方費로서 보다 많은 青年들의 教育을 要請하여 왔다. 때문에今年度 教育日 標인 九萬名의 約二、三十%를 超過한 十餘萬名에 對하여 再建國民教育을 履修시킨 수 있었다. 其外에 市郡區 專任講師 一八二名으로 하여금 各邑面洞을 巡廻하면서 再建青年會 및 再建婦女會 會員教育을 實施

케 하였다. 六二年度 巡廻教育對象人員을 約一〇萬名으로 定하였으나 豫算不足에도 不拘하고 八月三十一日現在 二六〇%에 該當하는 七十萬名에 對한 教育을 完了하였음으로 潛在的인 國民力量의 培養에 至大한 業績을 올렸다. 따라서 우리는 青年教育事業의 前途에 무엇보다도 큰 期待를 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 鄉土再建事業

國民運動은 가장 活動力이 強하고 또 勇敢하게 前進할 수 있는 革命課業 完遂의 前衛의 役割을 擔當케 하고 이들을 革命主體勢力으로 育成하기 위하여 自然部落單位로 全國에 걸쳐 再建青年會 再建婦女會를 組織하고 確固한 勝共民主理念과 뜨거운 鄉土再建의 意慾을 強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努力하였다. 그 결과 意外로 贊同 呼應의 時日에 再建의 메아리 소리는 전국 各處에 드높이 울리게 되었다.

再建青年會 및 婦女會 會員들이 다 土에 鄉土再建에 全力을 기울인 결과 全國에 걸쳐 猛烈한 力을 가진 農民의 路가 擴張되었고 마을마다 부엌이 改良되고 牛馬牛豚이 깨끗이 양육되는 등 나날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發展되어 가고 있으며 舊習을 打破하고 새로운 氣風을 振作시키어 가는 곳마다 健全한 再建의 희망이 바람이 새카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指摘하여 「인커브」는 一九六二年度 育인總會年例報告書에서 「生活 及 生活改革을 위한 農村青年男女集團의 組織은 啓蒙과 自立을 위한 現實的인 方法」이라고 讚揚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와같이 再建青年會 및 婦女會의 鄉土再建을 위한 活動樣相과 그 눈부신 業績은 外國사람의 耳目에까지 세로 認識과 最大의 關心을 주게 되었음은 再建國民運動이 六二年度의 最大 成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同胞愛發揚事業

어느 시대 어느 社會를 莫論하고 幸福을 누리고 사는 사람보다는 不幸속에서 呻吟하는 사람이 더 많다. 特히 韓國은 社會的 經濟的 構造의 後進性으로 因하여 오랜 時日을 두고 貧困의 惡循環속에서 經濟生活는 跛行一路를 달리게 되어 마침내 富益富 貧益貧의 現象이 甚졌을 뿐 아니라 都市와 農村사이에도 不均衡의 構造가 形成되어 여기저기부터 社會의 不安과 病弊가 惹起되었다.

이들 諸惡因을 拂拭하고 社會全體의 均衡의 發展과 國民全體의 福利增進을 위한 同胞愛發揚事業이 再建國民運動의 一環으로 展開되었다. 즉 貧寒僻地의 農漁村部落의 自助自立精神을 培養시켜 文化的 退漁性과 經濟的 後進性을 克服하고 農漁村과 都市의 均衡性있는 發展을 위한 姊妹部落結緣運動 國內外的 誠金에 依하여 農村再建事業을 돕는 사랑의 金庫運動 廢紙蒐集에 의한 農漁村의 文化의 발전 등을 마다하지는 農村文庫設置運動을 비롯하여 不意의 天災地變을 當하여 死地에서 彷徨하는 罹災民들의 救護 및 復興을 위한 全國災害對策委員會가 組織되어 民間募金運動을 展開하여 政府施策의 長期的인 救護事業을 뒷받침하고 있다.

昨年の 南原 榮州 地區, 今年의 順天

地區의 水害民 救護와 再建을 위하여 全國災害對策委員會가 일어나 눈부신 活動을 하였는가는 우리가 다 아는事實이다. 이밖에도 無依託孤兒의 結緣 및 孤兒院의 結緣運動을 積極推進하여 不遇한 同胞들을 救護하기 위하여 同胞愛發揚事業이 展開되고 있어 앞으로의 그 歸趨가 韓國의 福祉 國家建設에 큰 礎石이 될 것이 確實하다.

라, 國民教養事業

게아무리 훌륭한 制度가 있고 政府가 國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政策을 強力히 推進한다 해도 이를 能히 消化시키지 못하면 濟할 수 있는 國民의 力量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虛事로 되돌아 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점에 着眼하여 國民運動의 하나로 國民들의 教養을 높이기 위한 國民教養事業을 展開하고 있다.

첫째로 全國의 再建青年會 婦女會가 主動이 되어 各各 자기 部落의 文盲者教育을 實施하여今年에 들어 二十才以上の 文盲者百四十餘萬名中約六十萬名을 눈뜨게 하였음은 過去에 보지 못한 巨事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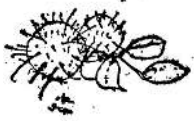
둘째로 每週 火曜講坐를 全國적으로 開催하여 많은 成人들에 對하여 새로운 知識을 줌으로써 教養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再建通信教材를 每月發刊配布하여 再建國民運動一線要員들의 指導者의 資質을 向上시키고 一般國民들의 實生活에 도움이 되는 技能의 涵養을 圖謀하는 同時에 反共意識의 鼓吹 虛禮虛式의 一掃 및 標準儀禮勸行 등의 教養事業을 함으로써 生活合理化 및 改善을 促求하여 舊習을 打破하여 急速도로 現代化 過程을 밟고 있는 現實에 適應할 수 있는 國民들의 素養과 能力培養에 最大限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三、國民運動의 展望

「연커크」一九六二年度 유엔總會年例報告書에서 『軍事革命의 精神의 次元을 高揚하기 위한 實際的인 指導課業이 再建國民運動本部에 委任되었으니 同本部는 汎國民的의 人間改造、獨立心、地域開發 그리고 國民團合과 民主主義의 暢達을 위한 訓練計劃을 하고 있다』라고 指摘하였는데 이는 再建國民運動을 올바르게 認識한 것 이다.

經濟開發 五個年計畫의

展開와 그 成果



一、計畫의 展開

참다운 自由民主主義國家는 國民生計를 自主經濟의 軌道 위에서 비로서 理想을 實現할 수 있다. 이러한 方針에 二次大戰後 政治的獨立을 爭取한 數多한 後進國家들은 저마다 長期的인 綜合的인 經濟開發計畫을 樹立하고 國民所得의 增大와 社會福祉의 向上을 企圖하게 되었으며 特別히 印度는

우리國民들도 國民運動에 대한 偏見이나 先入感을 버리고 國民運動을 通한 國民革命의 成功的인 遂行만이 韓國의 後進性을 克服하고 民族의 運命을 打開하는 關鍵인 點을 認識하여야 할 때는 왔다고 생각된다. 國民運動에 對한 올바른 認識 밑에 모든 國民이 各같이 國民運動隊列에 參與할 때 真正 우리 民族의 生路가 開拓되어질 것으로 믿으며, 一九六三年에는 確히 基礎 위에서 보다 活潑한 再建國民運動이 展開될 것이 期待되고 있다.

李 煥 逸
經濟企畫院 經濟調査課長

이제 第三次 五個年計畫을 樹立實施함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그 必要性을 깨닫고 過去 두 차례에 걸쳐 長期開發計畫의 樹立을 試圖한 바 있으나 每樣 諸般條件의 不備와 艱難한 經濟行政의 缺如로 말미암아 한번도 實踐段階에 達하지 못한 채 紙上計畫으로 化하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이번 革命政府의 果敢한 施策으로 第一次 經濟開發五個年計畫을 成案하여 今年에 그 첫 걸음을 내

디디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多幸한 일이며 우리의 經濟發展史上 一大轉換點을 이루는 큰 契機를 마련 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第一次 五個年計畫의 實現만으로 곧 自立經濟가 이룩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앞의 두 차례 될 여러 차례의 五個年計畫의 果敢한 實踐을 통하여 可期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第一次 五個年計畫에 있어서는 그 基本目標을 우리나라의 急速한 成長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가지 社會經濟的인 惡循環을 正하고 工業化의 基礎條件을 造成함으로써 窮極의 窮極으로 到達한 自立經濟의 基礎를 構築하는데 두었다. 이제 이러한 基本目標 아래 하여 計畫內容을 簡單히 살펴보면 먼저 農漁村을 開發하여 農家所得의 向上과 經濟構造의 不均衡을 正하고 다음으로는 電力 石炭等 動力資源의 確保와 運輸 通信等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으로 産業近代化의 基礎條件을 造成하며 나아가서는 肥料, 製鐵, 精油 세멘트等 諸工場을 建設하여 基礎産業을 擴充토록 하였다. 또한 이와 併行하여 國土建設事業의 強力한 推進으로 遊休資源의 活用을 꾀하고 輸出 振興으로 國際收支를 改善하려는 計畫의 重點을 두었다.

이러하여 五個年後에는 國民總生産이 基準年度에 비하여 四〇·七%가 增大한 三、二九億원(一九六一年價格)으로 늘릴 것을 計畫하였는데 이는 年平均七·一%의 成長率을 意味하게 된다. 休戰以後 우리나라 經濟의 年平均成長率이 約四·七%이었음에 비하여 이는 相當히 意慾的인 成長目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人口增加率은 二·八八%나 되는 高率임에 비하여 實質成長率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一人當 所得으로 보아서는 基準年度에 九、四〇〇원이던 것이 目標年度에는 一、二〇〇〇원으로 되어 約一九%의 增加를 가져오게 된다. 雇傭面에서는 二八·三%가 늘어나게 되고 商品輸出은 約四倍가 되는 一三七·五百萬弗水準으로 올릴 것을 計畫하였다. 이와 같은 計畫目標을 이루하는데 所要되는 總投資規模는 三、二〇〇億元에 달하는 바 그 中 四八·八%인 一、六〇〇億원이 電氣, 交通, 通信等을 주로 하는 第三次産業에 投資되고 三四%인 一、九〇〇億원이 鑛工業으로 構成되는 第二次産業에 投入되며 나머지 一七·二%에 該當하는 五五〇億원이 農林, 水産等의 第一次産業에 投資하게 된다. 五個年 동안에 二倍가 넘는 莫大한 規模의 資本形成을 國內財源만으로 充當시킬 수 없음은 自明한 事實이며 이에 總投資額의 財源別構成을 보면 內資가 二、三〇〇億원, 外資가 六八四萬弗 該當額인 八九〇億원으로서 그 比率는 各各 七二·二%와 二七·八%가 된다. 이러한 投資計畫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目標年度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産業構造가 第一次産業이 三四·八% 第二次産業이 二六·一% 第三次産業이 三九·一%의 構成比를 示顯하게 되어 第一次과 第三次는 基準年度보다 多少 줄어드는 反面 第二次産業은 二六·一%가 되어 基準年度

보다約 8%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產業構造의 近代化를 꾀하고 있다. 이와같이 第二次産業의 構成比가 急速히 增加함을 工業化를 指向하는 本計畫의 意慾을 如實히 보여 주는 것이 라 하겠다.

二、六二年度の 成果

以上五個年計畫의 極히 簡略한 素描를 提示하였다. 그리면 그 始年度인 今六二年度の 計畫遂行成果는 어 떠한가? 始作이 卽行하는 말에 있 듯이 무슨 일이 고出發點이 중요함을 말한나위도 없겠으나 長期間에 걸쳐 遂行될 계획이고 보며 不過一年未遂의 推進狀況을 가지고 成果를 云謂한은 時期尙早라 하겠으므로 投資 또는 G.N.P.上的의 實績으로 綜合的인 評價를 내리기로 하였다. 將次的인 計畫目標을 圓滿히 遂行하는데 必要한 基礎準備을 제대로 마련하였는가 하는 點에 重點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問題가 되는 것은 資本調達問題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經濟發展의 基本動因은 資本이다. 그러므로 本五個年計畫에 있어서도 所要資本의 調達問題가 말로 計畫이 成敗를 관가름하는 關鍵인 것이다. 그러나 짧은 期間內에 莫大한 資本을 國內財源만으로 調達하기란 到底히 不可能한 것이므로 所要資本의 一部를 外資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으며 內資로 充當할 計畫額도 一人當 所得의 低位斗 人口의 壓力에 비추어 自發的貯蓄에 期待하기 보다는 財政金融政策을 통한 強制貯蓄에 크게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六二年度の 政府豫算은 五個年計畫事業을 完遂하도록 經費配定에 있어 優先順位를 經濟開發費에 두었으며 當初 二八七億圓으로 計上한 바 있는 財政投融资을 二次追更에서 三〇九億圓으로 增大시켰다. 이로써 于先 第一次年度에 着手키로된 計畫事業의 所要財政資金은 確保된 것이며 現在까지 그 執行狀況도 매우 良好하여 大體로 計畫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財政投融资의 實効性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豫算制度에 있어서는 成果主義와 企業會計制度를 採擇키로 하였다.

한편 民間資本의 成功的인 動員을 爲하여 金融機關 및 金利體系의 整備, 證券市場의 育成, 保險 및 信託業務의 獎勵, 國民貯蓄組合의 構成等 多角의 이고도 大대의인 努力을 實施하게 되었고 特別히 5%나 되는 定着性 預金金利의 大幅引上, 國民銀行의 發足等 一連의 金融措置는 投機機會의 減少趨勢와 結付되어 貯蓄性預金의 著増現象으로 나타났다. 즉 九月末 現在의 預金殘高는 三九八億圓으로서 前年末에 비하여 要求拂預金이 七六億圓, 貯蓄性預金이 七四億圓 각각 增加하여 合計一五〇億圓이 증가하였다. 동시에 金融機關의 興信活動도 극히 활발하여 前年末 比의 貸出增加額은 一六二億圓에 달하고 있음 을 볼 때 民間部門의 投資活動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본다. 이 밖에도 內資動員을 위한 綜合的인 方案이 實施段階에 있어 五個年計畫事業에 대한 投融資專擔銀行으로서의 產業開發公社의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다시 外資調達面을 보면 그 實績이

매우 良好하여 現 狀態로 잔다면 所要外資의 適期確保는 樂觀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A.I.D.借款으로는 現在까지 이미 一〇件에 달하는 借款契約이 체결 또는承認됨으로써 總額 四七、三四〇千弗의 資金이 確保되었으며 A.I.D.借款으로는 一四〇萬弗이 確保되어 있고 西獨借款으로는 三、七五〇萬弗의 假契約中 切半이 財政借款으로 使用한 것에 合意를 보았다. 이밖에 一億二千萬弗規模의 伊佛漁業借款이 契約되었으며 民間外資로서 二二、二八六千弗의 契約締結을 보았다. 이로써 現在까지 確保된 外資總額은 三四〇、五三六千弗에 달하며 이는 計畫期間中 外資所要總額 六八四萬弗의 切半에 該當하며 그 중 借款計畫總額인 四二六萬弗으로 보면 이미 그 八〇%를 突破한 셈이다.

이와같은 借款獲得交涉와 併行하여 對內的으로는 環境造成을 더욱 強化하기 위하여 外資導入法의 改正, 支拂保證法 및 資本財導入에 관한 特別措置法制定, 外資導入센터의 設置 및 外資導入 取扱機構의 改編等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같은 内外資의 確保乃至는 動員을 擔當함으로써 計畫期間中의 計畫事業總數 一四二個 事業中 第一次年度에는 總一〇六個 事業이 策定되어 九月末 現在 九八個 事業이 着手되고 있는 바 이들 諸事業은 資金執行이나 事業進捗面에 있어서 大體로 順調은 進展狀態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産業部門別로 敷衍하면 第一次産業에 있어서는 糧穀增産, 畜産, 蠶業 및 特用作物의 獎勵, 造林, 砂防, 治水事業等의 展開, 水産資源의 開發等 一九個 事業을 계획한 바 있는데 全事業이 豫定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中 農業資材, 南江畔 및 放水路, 治水事業, 蠶業, 專賣作物等은 오히려 目標量을 超過 達成하고 있다.

특히 營農資金에 있어서는 當年度 豫算額 三二億圓中 八月末까지에 이미 그 九八%인 三一、四億圓이 執行되었는 바 이로써 農村의 資金梗塞과 高利債의 跋扈를 未然에 防止하고 安定農家造成에 多大한 寄與를 하게 되었다. 이밖에 施設面에서는 營農資金運用計畫樹立, 高利債整理의 推進 開發促進法의 制定, 里洞組合의 共同利用施設, 農事構造政策審議會의 設置等을 통하여 計畫遂行을 支援토록 하였다.

다만 이와같은 事業의 遂行과 施策의 樹立에도 不拘하고 今年에는 異例的인 早穀도 因하여 第一次産業部門의 附加價値는 多所 低減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第二次産業에 있어서는 鑛業部門에 八個 事業 製造業部門에 一九個 事業都合 二七個 事業이 計畫되었는 바 그 中 鑛業部門은 그 推進狀況이 極히 良好하여 生産指數上으로 보면 九월까지의 月平均指數가 前年同期에 비하여 一七·三%의 上昇을 보였으며 特別히 石灰鑛業의 生産實績은 今年 四月以來 每月計畫量보다 平均約 八萬 M.T. (一五·七%)을 超過達成하였다.

한편 製造業部門은 學者가 新設事業이므로 今年度에는 우선 技術調査設計圖作에 基地選定, 整地工事等 基礎準備段階에 머무르게 됨은 그 事業性質上 不可避免이라 하겠다. 工

場建設과 關聯하여 特記할 事實은 年初蔚山地區에 設置된 「工業센타」라 하였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現代工業은 用地 水의 充分한 供給 動力 運輸의 原料 市場 勞動力的 確保等 諸般 條件을 갖출 良好한 立地條件이 重要視되며 特히 重化學工業에 있어서는 副産物의 相互需要에 依한 無數한 聯關工業이 波及的으로 繼起할 것이 豫想되므로 綜合工業地區選定の 意義는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이로써 蔚山地區에 綜合製鐵, 肥料, 精油, 시멘트等 諸基幹工場이 櫛比하게 세워질 것이다.

第三次産業에는 總四八個事業이 策定되어 있는데 그 中 産業發展의 原動力이 되는 電力事業을 보면 八個의 火電 七個의 水電이 新設 또는 復舊 事業은 大體로 順調로 工事進捗을 보이고 있다. 年內에 完工豫定인 4 個發電所를 除外하고는 모두 數個年의 建設期間을 要하므로 當年度에 直接的인 事業效果는 바랄 수 없으나 既存發電所의 出力增強으로 一月에서 九月까지의 月平均發電量은 二一九·四千 KW로서 前年同期比 一一·七%의 增加를 보였다. 한편 五個의 鐵道事業과 六個의 通信事業은 工事進捗이 매우 良好하며 鐵道事業中 東海北部線과 黃池支線은 工事期間을 短縮하여 數年內에 開通을 보게 될 것이다. 通信事業中 各 장 부서는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電話架設事業에 있어서는 이미 八月末現在 一九、五〇〇回線의 自動式交換施設 四、四〇〇回線의 共電式 三〇〇回線의 磁石式交換施設의 開通을 보였다.

특히 水力발전과 旌善線 慶州線의 兩鐵道 및 太白山地區 産業道路는 國土建設事業의 一環으로서 推進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一六、〇〇〇名에 達하는 國土建設團을 投入함으로써 遊休勞動力的 産業資本化와 國土의 開發 및 保全이라는 二重의 經濟效果를 거두었다.

以上 五個年計書事業의 積極的인 展開과 이를 誘導 또는 支援하는 施策乃至는 制度上의 諸要因이 直接 間接으로 奏效하여 今年度の 全般的인 生産實績은 急激히 上昇함으로써 五七年度以來 低落趨勢에 있던 것을 크게 反轉시켰다. 即年初부터 九月까지의 産業動向을 보면 二월까지의 在庫調整過程에 따른 沈滯과 六·九通貨改革措置로 인한 六·七兩日間の 沈滯現象을 겪으면서도 總體적으로는 堅實한 上昇을 持續하여 九月까지의 平均生産指數는 前年同期水準에 比하여 一六·四% 上超하였고 九月에는 一、二九二에 達하여 前월에 이어 解放後 最高的의 記錄을 示顯하였다. 特히 電力에 있어서는 八·一% 增加를 보여 五九年的 增加率 一一·六%에 肉迫하게 되었으며 製造業은 六一年의 增加率 四·三%를 훨씬 凌駕하고 있다. 또한 國民經濟의 自立化를 測定하는 基準이 되는 輸出面에 있어서도 輸出補償金制度의 強化와 海外市場開拓을 爲한 積極的인 努力의 結果 새로운 面貌을 보여주고 있다. 即九月末 現在 輸出實績은 決濟基準으로 三六、六百萬弗인 바 이는 年間目標인 六一、九百萬弗에 比하면 不振한 狀態이기

는 하나 絕對值으로 볼 때에는 最高實績을 올린 前年同期에 比해서 六、七百萬弗이 많을뿐만 아니라 輸出品目에 있어서도 過去 우리나라 輸出의 大宗을 차지하던 鐵山物 및 農産物 등의 原料輸出이 漸減하고 있는 反面 冷凍水産物, 콩조림, 生糸, 合板, 纖維類等 加工品의 輸出이 增加하고 있어 微



軍事部門의 總決算

禹炳奎

△最高會議文社專門委員▽

一 軍紀의 確立과 戰鬪力의 強化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짊어진 우리 國軍이 危機에 빠진 祖國을 求出하기 위하여 革命을 한지 이제 일 년반이 지난 오늘도, 비단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인 諸分野에서 善惡을 一掃하고 健康하고 새로운 民主社會를 建設하기 위한 눈부신 努力과 뜨거운 情熱을 받쳤음은 勿論, 軍本來의 使命인 國防力의 增強을 위하여서도 지난 일 년 동안 赫赫한 業績을 거두어 있다. 革命을 일으키고 많은 軍將校가 國家再建이라는 革命課業完遂을 위하여 軍에서 行政府를 비롯하여 經濟 및 社會의 各分野의 機關에 派遣勤務를 하게 될 때 或者 특히 美軍關係人士를 가운데서 군사軍固有의 목적인

弱하나마 漸進的인 構造變動을 가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要컨대 一九六二年度의 經濟는 過去數年間の 우리 나라 經濟成長의 鈍化過程을 反轉시키는 轉換點을 이룰 것으로 展望되며 五個年計書의 推進을 爲한 各種基礎作業의 整備과 더불어 앞으로 持續的인 成長을 이룩할 것이 期待된다.

그러나 革命後 거의 二十個月을 지난 오늘날 軍以外的 政治 및 社會經濟的인 各分野에서와 같이 우리 軍에서도 國防力增強을 위하여 繼續的인 努力의 傾注와 아울러 發展을 보아 왔다고 믿는다. 軍以外的 領域에서 舊惡의 一掃과 새로운 秩序와 確立에 발맞추어 國防政策의 分野에 있어서도 經費의 節約과 合理的인 運營을 위하여 國防機構를 縮小改編하였고 國防力強化를 위하여 戰鬪部隊의 現代化와 教育訓練의 強化를 實施하였고 兵役과 人事運營의 政策을 圖謀하고 軍

紀確立과 軍需品不正流出團束을 強化하는 同時에 軍民間의 紐帶強化를 위하여 盡力한 바 있다.

지난 일년 동안 國防力強化를 위한 各軍部隊裝備의 現代化를 위하여서는 全般의 戰術裝備中에서 老朽化하고 非能率의 軍裝備을 代置하여 國軍의 戰鬪力의 精銳化를 圖謀하였으므로 現代科學戰의 尖端인 空軍作戰의 一元化를 위하여 空軍作戰部隊를 統合指揮하는 空軍戰鬪司令部가 創設되어 共產軍의 武力危脅에 대하여 一時에 反擊을 加할 수 있는 現地戰鬪能力的 培養과 強化에 힘쓴 바 있고 미우기 北偏의 休戰以後 休戰協定을 違反하여 對峙하는 繼續增強한 北偏空軍力에 數的으로 繼續增強한 北偏空軍力이 創設되어 韓國空軍의 偉容을 빛 내야 있다.

東海岸과 西海岸에 革命以後 چون동 하던 北偏의 海軍力을 制壓하기 위하여 지난 十二月에 美國으로부터 驅逐艦四隻을 引受하고 韓國의 艦隊勢力을 增強하여 海軍의 各種艦隊訓練을 通한 우리 海軍의 빛나는 傳統을 樹立하였던 것이다.

軍의 戰鬪能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從前에 實施하던 作戰訓練과는 달리 「海軍作戰」과 現在 實施中인 「進擊」과 같이 數個의 師團兵力이 參加한 海上支援 및 地上砲火의 火力支援, 그리고 迅速果敢한 兵力의 機動作戰을 現代戰의 樣相을 띠는 大規模의 機動作戰訓練을 實施하였다. 勿論 今에 도 이미 여러가지 機動作戰이 있기는 하였으나 지난 번에 있었던 海兵隊와 海軍의 統合作戰下의 核戰爭을 假想한 大規模의 이고도 綿密周倒하게 짜

여진 上陸作戰機動作戰은 우리 海兵隊와 海軍의 發展을 劃하고 가장 印象의 機動作戰이었다고 생각하며 지금 實施하고 있는 陸軍機動作戰인 「進擊」은 우리 陸軍의 나날이 發展하는 그 偉容을 가리키는 가장 뜻깊은 機動作戰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訓練을 通하여 우리의 軍隊는 日就月長 그 成長을 이룩해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 동안 우리의 軍은 革命課業完遂에 발 맞추어 補給軍紀의 確立과 軍需品不正流出을 防止하는 特別措置들이 奏效하여 多大의 成果를 거두었다. 지난 일년 동안은 過去 흔히 物議를 일으켜 왔던 軍內의 不正蓄財을 一掃하는 補給軍紀의 確立을 위한 軍最高指揮層의 強力한 指導와 團束을 實施하여 過去에 根絶시키지 못하였던 軍需品不正流出을 防止하는데 劃期的인 成果를 거둔 바 있다. 不正車輛整理만 보더라도 작년 七月부터 一箇月間에 걸쳐 專用保有車輛과 軍專用型自家用車輛 二千餘臺를 一齊檢査하여 그中 一,七〇〇餘臺의 不正車輛을 整理한 後 軍用車를 流用하는 癩疾의 인 나쁜 現象이 우리의 눈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다.

二 兵役과 人事運轉의 改善

특히今年度에 들어와서 軍의 士氣와 直接關係가 깊은 軍人事制度를 大幅으로 改善하여 軍內의 人事上에 있어서 新陳代謝를 할 수 있는 制度的 措置가 마련되었으니 즉 人事管理研究委員會를 通하여 既往의 軍人事關係法令과 例規等을 檢討하고 新進의 意欲의 인 進出을 保障할 수 있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正하여 지난날 한 때 가장 말살당던 軍人事의 不合理性을 是正할 수 있는 터전이 確立된 셈이다. 過去에는 甚사 無能하고 軍을 위하여 別有爲한 人物이 아니라 하더라도 同一階級에서 十年以上이라도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能力 있고 迫力 있는 有能한 將校들의 進級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혔다시피 하였다.

이제 今般改正된 軍人事法에 依하면 同一階級에서 停年制가 確立되므로 有能한 新進의 上位階級에 대한 進級과 無能한 사람은 自然스러운 陶汰를 可能케 하는 人事制度가 마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軍人事法에서는 自己의 進級과 軍人事法上의 自己의 位置를 正確히 나타낼 수 있는 明確한 基準을 具體化하였기 때문에 軍人事를 通한 軍人의 勤務意欲을 增進할 수 있는 措置가 講究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無事安逸하게 自己에게 주어진다지만 불붙고늘 어지던 우선 軍隊에서 쫓겨 나가자는 않는다는 過去の 安逸主義의 思考方式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正反對로 自己의 職責에서 힘껏 일을 하지 않으므로써 同僚들이 進級도 미해 落伍가 된다면 現在의 職責도 미구에는 가질 수 없게 된다는 心理的 刺戟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每事에 忠實하여 다른 사람보다도 越等한 勤務上의 業績을 내야 되겠다는 善意의 競爭意識을 助長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軍人事法의 크나큰 長點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政府는 國民의 兵役義務의 均等化와 兵務行政의 一元化를 위하여 舊兵役法을 大幅改正했으며 새 兵役

法의 公布 實施과 아울러 昨年 六月二十日 法律第六二七號로서 實施하고 있던 「兵役義務未畢者에 關한 特別措置法」을 廢止하였던 것이다. 새 兵役法의 特徵은 ①舊法의 未備點을 補充하고 ②役種을 整備하고 ③종전의 國防部와 內務部의 二元的 兵務行政體系를 是正하여 國防部가 主管하는 同時에 兵事區司令部를 兵務廳으로 改編, 國家行政機關으로서 兵務行政에 關하여는 兵務廳長이 區廳長, 市長, 郡守를 監督케 하는 등 兵務行政의 一元化를 期하였던 것이다. ④人力資源의 充족한 把握과 관리로서 適材適所의 人力活用을 期하고 服務上의 公平과 均衡을 維持하여 兵動員體制를 確立하였으며 ⑤舊法에 依한 學籍保有 등 既得權을 認定하여 學生에 대하여서는 學業을 忠實히 마치게 하기 위하여서 徵集延期制度 六年制大學은 二十六歲까지 四年制大學은 二十四歲까지, 二年制大學은 二十二歲까지를 두었고 家事로 因한 現役期間短縮制度를 規定하였으며 ⑥兵役義務의 尊嚴性을 確立을 위하여 유거이되고도 공심력을 인 兵務行政을 이룩하므로써 兵役義務의 尊嚴性을 自覺케 했으며 또 한편 罰則을 強化하였고 ⑦申告義務制의 強化를 通하여 모든 兵役義務者는 호적상의 移動, 轉籍, 居所移動, 職場變更, 資格取得 및 喪失, 健康狀況의 變動 등 移動申告의 義務를 規定하였고 ⑧兵役未畢者에 대한 特別措置法의 廢止를 通하여 正當한 事由로 이徵兵 또는 召集義務를 忌避한 者는 公職, 企業體의 任命, 官許業體에 就業할 수 없도록 資格을 制限하고 犯法者를 雇用한 法人이나 私人是 六月

以下の徴役 또는 最高一百萬(十萬) 兵役義務者에 대한 權益保障을 위하여 學籍保有, 職場保障, 雇用的優先, 入營中の報酬, 謝金給與, 遺子代先, 學費減免, 現役期間의 經歷換算 등 權益保障을 規制하였던 것이다.

또한 軍關係 被疑者에 대한 保護를 위하여 軍行刑法과 軍法會議法이 改正된 것도 가장 特記할만한 事實인 것이다.

三 國民과의 紐帶強化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尠大한 數의 文盲者가 남아 있는데 健全한 民主化를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文盲退治가 時急한 바이며 이러한 文盲退治를 위하여 再建國民運動의 積極的인 活動의 展開라는 汎國民的인 協力的인 呼應하기 위하여 軍內部에서도 文盲者一掃을 위한 「教育」에 相當 注力함으로써 多大한 成果를 거둔 것도 軍民間의 紐帶強化에 있어 今年度の 特記한 事實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革命의 先鋒인 新 國軍은 國家의 糧穀需給計畫에 副應하기 위하여 主食中 白米一合을 押麥으로 代替給食하는 耐乏生活를 展開함으로써 祖國再建의 先鋒인 新 國軍의 面目을 如實히 實證한 바 있다.

天을 비웃듯 各水害地區復舊에 軍에서는 莫大한 兵力과 重裝備를 動員하여 破壞된 家屋 道路 그리고 橋梁 등의 復舊事業에 뜨거운 情熱과 努力을 費하였다.

五·一六革命은 軍이 主動이 되었



宇宙科學分野의 回顧

李鍾秀

△한글일문기자

六二年에 들어서서 十月三十日 日 衛星, 宇宙로켓트 人間衛星의 總數는 무려 四十四個나 된다.

「스푸트니크」二號가 發射된 五七年 이래 六二年度 만큼 많은 數가 發射된 예는 없었다.

그밖에 英國과 「카나다」가 美國과 協同해서 二個의 人工衛星을 發射한 것까지 합치자면 四十六個나 되니 從來의 記錄인 六一年度の 三十三個보다 十三個나 더 發射된 셈이다.

그뿐 아니라 六二年度 宇宙科學界는 質의으로도 飛躍的인 發展을 보여 주었다. 人類가 달을 征服하기 위하여 設定한 道程이 차츰차츰 短縮된다는 것을 六二年度 宇宙科學界는 더한층 다짐해 주었다.

다스點에서 軍이 再建事業에 있어서 도연계나 餘力이 있는 모든 힘을 다 해 왔으니 그事例로서는 軍兵力과 裝備를 動員하여 數百「키로메타」의 道路擴張과 道路鋪裝工事を 完了한 바 있다.

六二年度 宇宙科學分野의 特徵은 무엇보다도 人間衛星發射部面의 進展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美蘇兩國의 실로 五個의 人間衛星을 발사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蘇聯의 「랑데부」飛行의 成功과 美國의 「시그마」七號의 地球六周飛行은 높이評價받을 만한 宇宙科學界의 業績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美國에서 「텔스타」衛星을 成功의으로 發射한 것도 六二年度 宇宙科學界 「히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美國이 그렇게도 執拗하게 成功을 노리던 「로케트」인 「레인저」가 세번이나 거듭 失敗하여 쓰디 쓴 苦杯를 마셨다는 것도 六二年度의 重要な 記錄이라 하겠다.

二十五個, 蘇聯이 十個, 宇宙, 로켓트 數는 美國에서 發射된 四個뿐이고 人間衛星數는 美國이 三個 蘇聯이 二個 이렇기 해서 都合 四十四個나 된다. 여기서도 英國, 「카나다」에서 發射한 二個를 합치자면 總 四十六個가 되는 것이다.

六二年度에 發射된 數字의 意味를 알기 위해서 그전에 每年 얼마만큼씩 發射되었는가를 저어본다.

즉 五七年度에 二個, 五八年度에 六個, 五九年度에 十四個, 六〇年度에 二十個, 六一年度에 三十三個라는 것이 그동안 每年 發射實績인 것이다.

이상의 數字로써 六二年度가 豐年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그것은 美蘇의 宇宙競争이 해를 거듭할수록 熾烈해진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와 아울러 英國, 「카나다」 등 美蘇以外的 나라들에서도 宇宙科學界로 進出하려는 意慾이 움트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六二年度는 量的인 豐年이지만 質의으로도 매우 密度 높은 發展을 보여 주었다.

특히 人間衛星發射에서 보여준 美蘇兩國의 發展은 그저 눈부시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美國은 約四億佛의 經費를 「머큐리」計畫에 注入하고서 蘇聯보다 먼저 人間 宇宙로 보내겠다고 다짐해 왔으나 六一年度에 蘇聯에게 先手를 빼앗기고 말았다.

二회에 걸쳐 彈道飛行에 성공을 했으나 蘇聯의 「가가린」少領, 「티토프」少領이 軌道飛行한 것과는 比較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에刺戟된美國은 무슨 일이 있어도 六一年度안에는 人間의 軌道飛行을 成就하겠다고 서를 러왔으나 虛事였다.

美國은 體面을 걸고서라도 六二年度初에는 그目的을 達成해야 했다. 그러나 日氣不順 其他의 惡條件으로 「글렌」中領이 타는 「프렌드십」七號의 發射을 無慮 十回나 延期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二月二十四日야 軌道에 突入한 후에야 「글렌」中領은 惡條件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됐었다.

自動安定裝置와 衛星內溫度調節裝置의 故障 때문에 「글렌」中領은 生命의 危險을 무릅써야 했지만 결국 地球三周飛行의 偉業을 成就시켰다. 그에 이어 美國에서 五月二十四日에 「카펜더」少領이 탄 「오로라」七號가 發射했다. 「글렌」中領의 「프렌드십」七號發射時에 일어났던 故障部分을 徹底하게 改良한 것이었으나 그래도 宇宙服과 燃料裝置에서 故障가 일어났다. 「카펜더」少領 역시 惡條件을 극복하고서는 地球三周를 無事히 끝냈다.

그러나 海上의 豫定地域에서 二百五十「키로미터」보다 遠한 處에서 回收되어 자칫하면 有終의 美를 거두지 못한 셈이었다는 뒷이야기를 남기게 됐던 것은 그때까지도 美國의 人間衛星發射 및 回收技術이 完璧하지 못했다는 것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쨌든 간에 美國은 體面을 세우게는 됐던 것이다. 그렇게 體面을 세운 것도 잠시 후에 발사된 蘇聯의 「보

스토르크」三號, 四號로 또다시 남쪽하게 재진공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六一年 八月에 「티토프」少領을 搭乘시킨 「보스토르크」三號로 地球를 一晝夜에 걸쳐 二十五周시킨 蘇聯은 滿一年間에 걸쳐 沈黙을 지켜왔다. 그래서 全世界는 무슨 공중수출을 차리고 있는가 하고 궁금히 여겨 왔었다. 더우기 蘇聯은 六一年十月十一일에 걸쳐 都合 八回나 中太平洋「로게트」發射實驗을 한 바 있었다.

蘇聯은 太平洋「로게트」實驗을 한 뒤인 으레히 宇宙를 舞臺로 하는 劇의 演出을 하는 버릇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全世界는 무슨 일이 있었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보스토르크」三, 四號는 發射되었던 것인데 역시 宇宙演出國다운게 蘇聯은 劇의 效果를 거두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八月十一日에는 「니콜라예프」少領이 搭乘한 「보스토르크」三號가, 八月十二日에는 「포포비치」中領이 搭乘한 「보스토르크」四號가 發射되었는데 이렇게 二日間 繼續의 人間衛星을 發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蘇聯이 이 方面에 莫大한 人員과 資金을 投入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그 두 人間衛星의 遠地點(三, 四號가 똑같이 二百三十四「키로미터」) 近地點(三號는 百八十「키로미터」, 四號는 百七十七·九「키로미터」)이 비슷하여 宇宙空間에서 十數「키로미터」까지 가까워진 때가 있었다 하여 「랑데뷰」(가까워 진다) 「아베크」(飛行이니 하여 떠돌이) 했었다.

사실상으로 두 人間衛星이 그렇게 가까워져도 發射할 수 있는 蘇聯의

技術이 높은水準에 到達해 있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앞으로 달, 火星 혹은 其他遊星으로 사람이 탄 宇宙船을 보내는 경우, 地球周圍 宇宙空間에다가 宇宙停留場을 建設하여야만 손쉽게 目的을 달성하게 된다.

宇宙停留場을 建設하고 그곳에서 다시 宇宙船을 組立하려던 人間衛星이 自由在在 「랑데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볼때 蘇聯이 비록 本格的인 「랑데뷰」飛行을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本格的인 「랑데뷰」飛行에 상당히 가까이까지 技術을 發展시킨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點, 美國은 約二年 蘇聯에 뒤졌다고 斯界에서는 判定을 내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보스토르크」三號가 달까지를 三·三往復할 수 있는 距離인 約二百六十萬「키로미터」를 九十四時二十五分間에 「보스토르크」四號가 二·六往復할 수 있는 距離인 約二百萬「키로미터」를 七十時間五十九分에 飛行했다는 것은, 아직 사람을 달까지 보낼 수 있기까지만 未及이지만 그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地球에서 달까지를 宇宙船이 가려면 地球의 引力에 抗拒하면서 飛行하여야 하기 때문에 「로게트」의 推力이 한번 地球周圍軌道에 進入시키주기만 하면 되는 人間衛星「로게트」의 推力보다 훨씬 커야만 되는 것이다.

地球에서 달까지를 宇宙船이 一往復하려면 실제로는 五·一六日의 時日이 必要하다는 사실로서도 달까지의 往復이 地球周圍軌道를 旋回하는 것

과는 比較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蘇聯이 「보스토르크」三·四號를 成功적으로 發射해서 成功的으로 回收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驚嘆한만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秘密의 배일 속에 잠겨 추진되어가는 蘇聯의 態度는 科學의 이 아니라고 非難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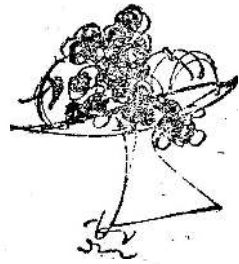
蘇聯도 하루속히 美國 모양으로 全世界注視裡에 公開의 人類共同財產인 科學에 貢獻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蘇聯의 「보스토르크」三·四號에 刺戟을 받은 美國에서는 十月三日에 「쉬러」中領이 탄 「시그마」七號를 發射했다. 이때 美國은 推進「로게트」인 「아틀라스」의 能力上「중중」重最을 늘릴 수 없음으로 해서 地球三周 이상은 극히 冒險의 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果敢하게 六周시킨 것이었다.

食糧이란 지 酸素라는 지 물은 二十八周分을 그 「시그마」七號에 貯藏하고 있었던 飛行中 人間衛星의 姿勢를 制御하기 위한 小型「제트」用推進劑인 過酸化水素가스가 三周分이고 커기다가 電池의 能力이 四周分이었으므로 六周라는 것은 상당한 冒險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四周째부터는 姿勢制御用 「가스」를 쓰지 않고 四·五周째는 衛星에서의 모든 送受信을 中止하는 이른바 「漂流飛行」을 敢行하지 않았으며 完結되었다.

이때도 宇宙服에 故障가 생겼으나 「진보」의 「오로라」七號때에 그 修理에 約三十分所要였던 것과는 달리

(P 22로 계속)



人間的 權利 · 人間的 尊嚴性

— 世界 人權宣言日에 부쳐 —

金 箕 斗

△서울大法教授▽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서는 매년 세계인권일예 기념행사로서 강연 전시회등을 통하여 텃밭이 되고 풀이 하여 소 리높이 떠돌아 온 구호이고 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학자들의 입과 붓을 통하여 도처에 서 인간의 불가양도적인 천부의 권리라느니 또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라느니 강조되어 온 구호이다.

따라서 우리 일반국민들은 이러한 이야기 는 참으로 귀가 아플 정도로 자주 들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실생활 과는 거리가 먼 학문의 세계 이상의 세계 에서는 의되는 추상적 개념인 것과 같은 느 낌을 면할 수 없다. 최근에는 하도 자주 들 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실용이 날 뿐만 아니라 또 정치쟁이의 잠고대까지 작되었다 나 하는 정도로 우리 국민대중의 관심과 각 지도 말라 없어진 무미건조한 구호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숙임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우리의 국민대중을 위한 국민대중의 생명인 이 흥 대한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이란 구 호가 국민대중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할 것이 국민의 감정과 유리되어 일부 집행 자와 지식계급이 독점한 구두선이 되고 말 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탄할 일이다. 이러 한 결과를 초래할 바에야 애당초 이러한 구 호가 강조되지 안하였드라면 오늘날 이것이 진부한 것이 안되고 신선한 구호로서 국민 앞에 나타났을 것을 —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러한 괴상한 결과가 되었을까?

거기에는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떠돌아며면 바로 민주정치가 실현 되는 듯이 알아온 자칭 민주주의의 선구자 로 자처하던 우리의 선배들의 책임과 또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권리를 찾아 본 일이 없는 우리의 무능한 민중의 역사 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을 유행어와 같이 들은 기분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일까? 그것 이 에누리 없는 사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연단에서 또는 붓을 들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던 그 사람이 연단에서 내려온 순간 붓을 는 시간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자기들의 본 능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 성을 모두한 장본인들이 아니었던가?

다시 말하면 인권을 안다고 존귀한 것이 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진정한 인권이 무엇 인지도 모른 사람들이었고 다만 대중을 기 만하기 위하여 떠돌아 댈 잠고대에 불과 하 였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자신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아무리 떠들어댄들 대중의 머릿속에 올바르게 인식 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이러한 무의미한 구 호가 대중의 귀에 실음이 나게된 것도 당연 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또 을바르게 인간 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식한 사람들에게 의하 여 강조되었다 할지라도 수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대대로 내려오면서 단 한 번도 인간의 권리를 찾아 본 역사가 없는 우리의 캄캄한 국민대중에게 갑자기 인권사상이 고취되어서라도 어떠한 일이 아니었던가? 결국 인권이 있었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찾아본 일이 없는 대중이 어찌 인권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으랴? 우리는 봉건, 식민지의 이어 받은 역사를 통하여 봉종과 골육의 역사 그대로였다.

절대적 권력이나 폭력에 잘 복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반항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죽음과 슬픔이 있었던 것이다.

인민 대중은 지배자의 노예로서의 생활만 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보아온 것, 이어 받은 것은 이러한 비굴과 예속의 생리였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전통과 생리를 가진 우리 국민대중에게 갑자기 인간의 권리가 있다고 인간의 존엄성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여 보았던들 그것은 먼서구의 선진국가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같이 국민대중이 가슴깊이 인권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국민전선을 전개하지 않는 한 인권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인권은 서구의 계몽 사상가들 즉 민주주의 선구자들에 의하여 쟁취된 것이고 절대로 평화리에 얻은 것이 아니다. 참으로 인권은 이러한 민주주의 전선의 용감한 전사들의 피의 기념탑이었던 것이다.

유명한 불란서 혁명이 바로 인권을 찾기 위한 피의 항쟁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一七八九년 七月十四일 불란서의 왕도 파리는 아침부터 밝은 날씨였다. 파리의 거리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에 쪼여 번쩍이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아침 일찍부터 우유배달이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바쁜 거리였지만 그 날은 어쩔일인지 한 사람도 거리에 나오지 않았다. 침침하다. 싸늘한 적막이 감돌고 아침의 햇빛은 지붕 밑을 파고 내려와 거리를 쪼이기 시작하였다. 이 약二시간이 못되는 짧은 적막속에서 파리의 시민들은 다같이 하나의 빛에 인도되고 하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의 중대한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결심이었는가 「바스티유 로가자, 바스티유를 쳐부시자」 모든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파리의 동쪽에는 바스티유라는 감옥이 있었다. 이 감옥은 물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요소 요소에는 대포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요새감옥이라고도 불리었다. 이 감옥에는 국왕의 명령에 반항한 자 국왕의 정치를 비난한 자들이 수없이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의 불란서의 국왕은 대대로 폭정을 거듭하여 인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왕을 두려워하여 누구나 반항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만 용기 있는 몇 사람만이 반기를 들어서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는 유명한 계몽사상가 볼테일(一六九四—一七七八)도 있었고 바스티유라는 시를 써서 오늘날도 읊어지고 있다. 이 바스티유 감옥의 대포는 파리의 시민들이 국왕의 욕을 하지나 않는가

하고 국민의 입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포의 총안에서 파리 시민들이 폭동이나 일으키지 않나 하고 언제나 감시의 눈이 번쩍이고 있었던 것이다. 또 파리 시민들도 바스티유 감옥은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그들을 위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바스티유 감옥은 불란서를 무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부르본왕가의 표본과 같은 것이었다.

실은 二일전 七月十二일부터 파리 전시에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파리의 시민들은 국왕의 정치에 견딜 수 없어서 드디어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시민들은 무기교를 파되하고 총포상을 습격하여 총기를 탈취하고 五만본의 창을 준비하였다. 시민들은 시내의 경비대를 공격하여 항복시켰다. 그리고 七月十四일에는 누구의 지도도 받은바 없이 바스티유를 공격하는 기분으로 총만 되어 있었다. 이날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여 이를 포위하였다. 四시간후에 바스티유 감옥은 낙성하였다. 그리고 성문은 열렸다. 바스티유 감옥의 성문이 이같이 파리 시민의 힘으로 열렸다는 것은 불란서 전체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한다. 국왕의 정치에 불만을 가진 불란서인들은 여기저기서 국왕의 군대를 공격하여 불란서 전토에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혁명이 승리로 돌아 가고 파리에는 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파리의 광장에는 축하연이 베풀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군중은 일제히 「잔악한 세」라고 외쳤다.

총을 떠나 나날 때나 언제나 신을 부르던 것이 불란서인의 습속이었는데 혁명이 승리로 돌아간 이마당에서 불란서인이 크게 외쳤던

이들은 신이 아니고 신을 대신하여 잔착크
의 이름이었다.

이 불란서 혁명의 심볼이 바로 잔착크루소
였고 그 사상이 자유 평등의 자연으로 돌아
가라는 구호였다.

즉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인간의 권리
와 인간의 존엄성을 찾자는 것이었다.

이같이 서구의 인간의 권리는 이 뛰어난
불란서 혁명의 봉화불을 계기로 수백년의 전
통과 역사속에서 정취되어 왔던 것이기 때
문에서 구의 인민들은 인간의 정체를 보았
고 또 그것을 정취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이라는 것 또
그것을 지킬라야 하는 부단한 경계와 저항을
필요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영미에 있어서 서구에 앞서서 영
국의 명예혁명에 의한 대헌장 미국의 독립
전쟁 권리장전 등의 역사 인간의 보장과 확
득을 위한 수단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거쳐 민족속에서 울
어나온 인권사상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인권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즉 국가권력과 대
결에서 고난의 역사가 없는 우리의 인권사
상은 피허약한 것이 되고마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우리의 인권의식이 형식적
이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것은 이러한 그
것의 역사적 성장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것은
이러한 인권사상에 깊은 뿌리를 박은 서구
의 근대민주문화가 민족과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역사적 실증은 깊이 비판하
여 우리사회에 있어서도 진정한 인권의 확
립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 곧 민주문

화의 초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이러한 고귀한 인권은 법으로서 보장될수
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권술한
마와 같이 국민대중의 자성된 인권의식의
뒷받침을 얻어야만 참으로 인권이 보장된다
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법으로만 보장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임법태도에 따라서 인
권이란 넓힐수도 있고 좁힐수도 있는것과 같
은 착각을 일반 정치인이나 법률가들에게 주
고 있는것 같다.

인권이란 그러한 고무줄과 같은 것이 아니
다.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무엇보다도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즉 불가양도적인
천부의 권리라는 사상이 여기서 나온 것
이다.

따라서 근대민주제국의 헌법은 이 인권보
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체제인 것이다. 즉
인권사상이야말로 민주사상의 근원이다.

우리는 다시 인권선언일을 맞아서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당한 진실
한 인식을 하여 과거의 그릇된 마비된 인권
의식을 자성시켜야 할 중대한 의의를 새삼
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참으로 진술한 불란서혁명의 이야기에서
말한바와 같이 인권은 민족의 피로서 정취
되고 민족의 피를 먹고 자라났으니 우리가
인권을 지키는 태도도 이와 같은 피의 투쟁
에 의하여서라도 끝까지 찾아가야 할것이다
오가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하거늘 일반적
으로 우리의 태도는 자기의 권리를 찾기위
하여는 상당한 희생적인 노력을 하면서도
타인의 권리가 유린되는것을 보고 수수방관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는 자기의 권리나

타인의 권리나 인권이라는 이를하여서 동일
한 운명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다. 그것이 인권을 모르는 탓이라 하겠다.

국가는 때때로 공공의 복지를 위한다는
미명하에서 때때로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부 위정자의 속임
수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진정한 공공의 복
지란 정확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일부다매의 이익을 공공의 복지라고 받아드
릴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애매한 개념에 의하여 가장 기본되
는 중요한 기본적 인권이 제한될수 없는 것
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자각하여 이러
한 식의 인권침해로부터서도 인권을 강력
히 수호하여 나가야 할것이다.

높 이 고
높 임 받 자
서 로 지 닌
사 람 권 리

原子力時代와 民主主義

(F)



아놀드·로인비

(오늘날의)

英國의 選舉民은 莫大한 數에 달하는 世界의 選舉民中에서 가장 成熟한 部類에 들어간다고 筆者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英國에서조차도 그렇게까지 公的인 問題들이 選舉民에 의해서 곧트물릴 수 없는 지경이라면 世界全體에 있어서도 이러한 政治的 惡化狀態는 필연적일 것이라든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 뿐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公的인 問題의 繁雜化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選舉民側의 知的 判斷力이 不足하다는 것을 말한 데 불과한 것이다. 公的인 問題가 비교적 간단한 社會環境에 있어서조차도 民主政治에 있어서의 致命的인 弱點을 들어내는 面, 즉 選舉民의 道德的 判斷力의 不備하고 하는 面은 어떠한가. 民主政治라고 하는 政治的 理念의 基礎的 條件의 하나는 個人으로서의 投票者가 知的으로만 賢明한 人 아니라 道德적으로 私心이 없다는 것이다. 즉 어느 쪽이 옳으냐고 하는 判別力이 있을 뿐 아니라 가령 자기私의 私的인 利益에 反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옳은 쪽의 길을 希望하고 그 쪽으로 投票하는 能力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民主政治에 있어서의 投票者는 多少 賢者일뿐 아니라 多少는 聖者라고 보는 것이다. 즉 投票者는 原罪를 聖者와 같이 效果的으로 克服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가령 어떤 社會인으로서라도 그러한 경지에까지 到達한 投票者가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原罪는 文明에 對해서 아무런 影響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文明人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支配하는 것과 같은 程度로 原罪는 그러한 自稱「文明人」들을 支配하는 것이다. 紀元前 五世紀時代의 아테네인은 理智의이고 教育있는 文明人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클레스의 政敵이 그들의 良心에 對해서 呼訴한 때 對해 페리클레스가 그들의 私利에 對해서 呼訴하므로써 政敵을 물리쳤던 것이다. 우리들 二十世紀의 西歐人は 아테네人을 보더라도 道德적으로 훌륭하다고 自負할 수 있을가. 筆者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다.

道德的인 面을 생각하여 본다면 메모크라시라고 하는 政治理念에 있어서의 무엇보다도 根本적이고 무엇보다도 뚜렷한 약점이 表面에 나타난다. 메모크라시 政治理念은 普通의 成年者라면 무엇이 最善인가를 判別하는 知能을 가짐과 동시에 그러한 最善의 것을 선택하는 德性을 갖출 것을 前提로 한다. 이러한 前提는 「統治는 社會惡이며 人間의 原罪에 對한 罪할 수 없는 刑罰이다」라고 하는 在來의 기독교의 敎理보다도 政治라는 것에 關한 眞實과는 필연 동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약점을 밀어 붙일 수 있는, 무엇이든 適當히 希望을 걸 수 있는 援軍이 天使들로부터 오지 않을 것인가. 選舉民의 質的인 濃度가 쇠박하여진 事實과 行政實務가 繁雜化한 事實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民主政治가 훌륭히 運用됨을 저해한다는 것을 認定한 다손 치며라도 教育의 普及이라는 것이 民主政治에 있어서의 好條件이 될 수 없을 것인가. 教育이라는 것은 終局的으로 말해서 事實을 배운다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意味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人生에 關한 道德的인 訓練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것보다도 넓고 보다 깊은 意味의 教育이 메모크라시를 救하지 못할 것인가.

이러한 質問에 對한 答은, 世界의 他部分보다도 社會적으로 成熟한 나라에서는 教育의 普及의 덕으로 우리들의 一生中에도 메모크라시가 보다 完全한 것으로 된다는 可能性이 뚜렷하게 많아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훌륭한 進歩는 第一次大戰後에 一般公衆의 感情이나 世論에 미치는 新聞報道的 強化的인 影響이 상당히 減少되었다고 하는 반가운 事實을 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社會적으로 比較的 發展된 나라들에서 보는 그러한 경향은 그러한 점에 限해서는 우리들에게 고무적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손을 놓고 기뻐하기 전에 다음의 두가지 質問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첫째로는, 그러한 少數의 社會적으로 發展된 나라들에 있어서나라도 教育이라는 것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選舉民이 늘었다는 것과 公務의 繁雜化에 의해서 메모크라시가

란은 損失을 實際로 어느 程度까지 補充하는가 하는 것. 둘째로는 世界의 大半에 걸쳐서 眞正한 메모크라시라고 할 만한 것이 可能하게 되도록 좋은 結果를 教育이라는 것이 豫測할 수 있는 將來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期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質問인 것이다. 結局 人類全體의 現存人口의 約五分之一밖에 不用하고 있지 아니한 西洋世界에서조차도 西유럽의 東部나 南部地域의 諸國에서는 메모크라시를 成功시키는 점에 있어서 빠져진 政權을 맞은 것이다. 近代西洋의 議會主義 메모크라시가 盛하고 있는 듯한 地域은 불과 西北유럽과 北美, 오스트라리아와 뉴질랜드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原子力時代에 있어서의 메모크라시에 무엇을 期待할 것인가. 筆者는 知的이고 道德的인 點을 모두 認定하더라도 다음의 두가지는 達成可能하다고 期待하여도 좋다고 말하고 싶다. 그 첫째로는 一國의 政府은 아니라 앞으로 出現할 것이라 생각되는 世界政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政府라는 것에 대하여는 市民의 意志를 無視하는 것은 어느 限度 以上으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그러한 限度를 넘으면 반드시 罪를 받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둘째로는 어느 一方의 政權보다도 他方의 政權을 배하여 政權의 反應에 얽힌다고 하는 手段을 市民이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불것같은다면 어떤 意味에서는 메모크라시를 가진 社會라고는 일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은 社會에 있어서조차도 이상의 두가지 점이 어느 程度까지 效果的으로 遂行되었던 것이다. 가령 中國에서는 政府가 傳統的으로 마음대로 政治를 行하여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中國에 있어서조차도 國民은 몇번이나, 政府가 어느 限度를 넘어서 마음대로 하려했을 때는 그것을 制止하고 그들의 實力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中國에서는 또한 世論이 新政權을 支持하는 쪽으로 서서 民의 公憤을 종종 뒤집었던 것이며 로마帝國에 있어서도 아라비아의 카리브統治國에 있어서도 적어도 한 번씩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라비아의 카리브統治國에 있어서는 國民一般이 우마이야朝를 폐하고 앳마스朝를 택했으며 로마帝國에 있어서는 國民이 아우구스투스元首政治의 精神을 배척하고 메오구레티아누스政權을 택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以上)

두가지 경우 스스로의 意志를 주장함에 있어서 그들이 追求한 目的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積極的인 性質의 目的이 아니라 消極的인 性質의 것이었다. 즉 政權을 스스로의 手中으로 권 것이 아니라 少數獨裁者가 自己를 少數의 利益을 높이기 위하여 獨占하고 있는 政治權力을 지나치게 惡用하고 있다고 大衆이 생각하였을 때 그러한 少數者의 手中에서 政權을 빼앗는 것이 目的이었던 것이다. 第三世紀의 로마帝國에 있어서도 그리고 第八世紀時代 아라비아의 카리브統治國에 있어서도 一般의 世論이 支持한 것은 그때까지의 政體보다도 훨씬 더 獨裁의이고 官僚的인 新政體였던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政權을 支持한 것은 그 새로운 政權이 積極的인 性質의 自治政治라고 하는 意味에서가 아니라 特權의 排除 다시 말하자면 平等

이라고 하는 消極的인 意味에서 메모크라시의 원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들 두가지의 先例는 現今의 世界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미 깊은 것이다. 왜냐하면 特權의 排除와 平等의 確立은 오늘날의 世界에 있어서도 大衆이明白하게 念願하는 目標인 것이며 또한 實現의 方向을 향해서 우리들의 生애에 크나큰 進歩를 이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政治的으로 比較的 훌륭히 성숙한 나라의 國內生活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階級的 特權이 우리들의 生애에 革命的으로 輕微한 事實을 눈으로 보아 왔던 것이다. 世界全體로서의 生活을 보는 경우에도 기왕의 西歐帝國主義國家가 아세아,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階級的 特權에 배하여 온 事實을 위에 君臨하는 程度도 國內生活에 있어서의 階級的 特權에 못지 아니한 程度로 革命的으로 輕微한 事實을 뚜렷이 보여 온 것이다. 政治經濟, 社會라고 하는 現代의 人間의 諸關係가 平等이라고 하는 消極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메모크라시의 方向으로 強力하게 前進하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를 象徵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점을 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一九一四年 이래 英國의 稅制가 進歩하였다는 것. 그리고 버마, 세이론, 파키스탄, 인도 共和國이 一九四七년에 國家의 獨立을 達成한 것이다.

人民은 마음대로 바라는 것을 인젠가는 손에 넣는다고 하는 一般的 傾向이 넓은 意味에서 올바른 것이라 하면 우리들이 只수 들어가고 있는 歷史의 새로운 章에 있어서는 政治的 自治制라고 하는 意味에 있어서의 메모크라시의 進歩보다는 社會的 不平等이라고 하는 意味에 있어서의 메모크라시의 進歩가 훨씬 더 될 것이라고 豫測하여도 좋을 것이다. 大衆이 意識의 으로 과거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自治政治라고 하는 理想에 등을 매는 일이 또다시 있을 자제도 모르는 것이다. 大衆이 그러한 態度를 갖는다면 그것은 「일의 性質」 그 자체부터 自治政治의 制度는 언제나 利己의인 少數者의 手中에 놓일 것이기 쉬우며 本來 大衆의 同盟者와 같은 獨裁의 官僚政權이 大多數大衆의 利益을 有效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形의 獨裁制와 大衆과의 同盟에 의해 비로써 政治, 經濟力이 特權의인 少數階級的의 手中에 떨어져서 一種의 特權少數階級에 지나지 않은은 물론이나, 中産階級的의 議會主義와는 달라서 人民大衆의 同情과 支持를 받지 못한다면 그 權力의 地位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다른 어떤 種類의 少數支配階級보다도 大衆의 利益을 지키는 데 關心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階級的인 것이이다.

原子力時代에 있어서의 政體의 이러한 獨裁的인 官僚的인 特質은 大衆의 見地에서는 어떤의 마음대로 自由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되겠지만 앞서의 少數支配階級的의 見地로 볼 것 같으면 專制的인이고 自由를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이러한 方向으로 社會가 향한다고 하는 趨勢에 對하여 中流階級은 強力하게 抵抗할 것인가. 만약 우리들이 살고 있는 社會가 戰爭에 依한 파괴에 있어서 어느 程度 安全하다면 中流階級的의 強力한 抵抗이 行하여 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原子力時代에 있어서는 階級的의 相違, 民族의 相

進文明的 相違의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파파의 공포에 떨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공포는 대단한 것이다. 우리들의議會主義制度에 있어서 現狀의 그대로의 機構로서는 그危機에 對한 安全은 조금도 保障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現狀의 그대로의 機構는 原子兵器에 對한 統制가 單一의 政府에 依해서 一元化되는 世界國家가 아니고 아직도 原子戰爭을 相互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는 局地的 獨立主權諸國家라고 하는 混沌 狀態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社會의 平等을 바라는 絶對多數 人類의 希望과 뒤섞여서 이러한 原子戰爭에 對한 萬人의 恐怖는 中央集權의 官僚의 世界政府의 勳業을 助成하는 心理的 推進力인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個人의 人格이 다음의 世界史의 새로운 章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 후행크

린후스벨트나 윈스톤 처칠의 政治經歷은 어떠한 現代의 救濟인자도 모른다. 바르데르 말해서 지난날의 비숫한 危機에 當하여 人類가 何を 말지 알지 못했 것과 같은 훌륭한 資格을 갖춘 政治家들에게 人類가 何を 말지 알지 못하고던 우리들의 世界가 自殺하지 않고 이 原子力時代를 어떻게 돌고나갈 것인가, 필자는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例로서 필자는 다음의 두 人物을 들 고져 한다. 그것은 漢의 建國者 劉邦과 로마의 建國者 아우구스투스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훌륭한 資格을 가진 政治家와 節度, 忍耐, 그리고 持久力을 들고져 한다. 人類는 일부러 自殺을 敢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우구스 투스나 劉邦에 比等하는 누구는 새로운 建設의 仁慈가 풍부한 政治家에 對해서 相當히 廣範한 自由裁量의 權限을 부여하게 된 理想이다.

지금 筆者가 말하는 것은 議會主義의 人 에모크라시에 있어서 는 아마도 正統派가 못된다는 점을 筆者 自身도 물론 알고 있다. 다만 지금 筆者는 冷靜하게 眞心으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筆者가 말하는 것은 꼭 바른 정신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글을 끝내기 전에 筆者의 所論을 詳細하게 적어서 그 뒷처리를 하고자 한다. 앞서 列擧한 政治家의 비가치 資格條件을 하나씩 들며 다음의 點을 論하고자 한다. 그 첫째 點은 우리들이 現在 直接하고 있는 어떠한 危險한 事態로부터 해어지기 위해 必要한 程度의 必要한 速度를 가지고서 人民이 높은 地位에 있는 有能한 人間의 힘을 發揚이 없 이 그의 不可缺한 資格條件을 育成發展시킬 수 있다는 可能性이 없다는 點. 둘째 點은 앞서 말한 두 사람의 歷史上의 政治家는 둘이다. 우리들의 時代에 있어서도 世界의 諸問題를 擔當시킬 必要가 있는 政治家의 類型을 代表하고 있다는 點이다.

(다음으로)

첫번째의 洞察力이라고 하는 資格에 對해서 말한다면 저어 도 다음의 세가지 點을 洞察해내는 政治家의 手中에 맡겨 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世界를 破局으로부터 救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첫째 點은 人類가 오늘날 우리들이 保有하고 있는 것과 같은 銳利한 武器로서 武裝

하고 있는 한 有効하고 신속하게 現在의 局地的인 主權國家로부터 그의 主權을 빼앗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點. 둘째 點은 西洋先進國家에 있는 產業勞動者 그 이외의 諸國家全部의 모든 階級の 사람들을 有効하고 迅速하게 西洋先進國의 中流階級과 社會의 으로 平等의 地位까지 向上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點. 셋째 點은 最高度의 政治家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才能과 戰爭을 全廢하고 社會의 對不可缺한 改革이 結果가 原因이 되어 그 것으로 因해서 말스다가 社會의 生活手段에 對한 人口의 壓力이라고 하는 問題가 急速한 形態로 그것 도 世界의 規模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點이다.

命命權을 갖는 指導力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世界의 選舉民이 이상과 같은 非常한 큰 세가지 點을 단 하나라도 認識을 五칠 수 있는 洞察力을 가지고 있지 아니라는 筆者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러한 資格條件을 갖춘 政治家가 지난날에는 분명히 存在했던 것이다. 둘째의 必要한 資格條件은 節度라는 것이다. 洞察力이라고 하는 資格이라 하면 兇惡한 獨裁者나 秦의 始皇帝 같은 無謀한 暴君이나 유리아스 씨자와 같은 性急한 君主에게서도 볼 수 있는 長點인 것이다. 그러나 洞察力을 實行에 옮겨서 成功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劉邦이나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人物의 特色이었던 資格, 즉 節度를 갖 추고 있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모두 「급하면 물아라」 「천면을 저 커늘음을 더득하고 그것을 實踐했던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각이 뿌리박은 因習이나 偏見 등을 打破하기 위한 速政의 方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政治家가 相對해 나가야 하는 人間이라고 하는 動物의 性質을 그들은 충분히 理解하고 있었 點이다. 그것은 낙타와도 같은, 말과도 같은, 또는 山羊과도 같은 人間性인 것이며 一定限度 이상으로 強制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限度를 넘으면 反抗의 으로 되어서 命令者의 目的을 부서버리게 되는 것이다. 人間은 위에서 뜻한 것 보다는 이르는 것이 쉬운 動物인 것이다. 兇惡하나 始皇帝나 유리아스 씨자가 이룩하였던 것이 결국 부러지고 만 主된 理由도 그들이 한결같이 劉邦이나 아우구스투스가 非常하게 高度로 發揮한 長點, 즉 節度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第三의)

必要資格인 度量이라는 것은 출저히 그리고 欣然하게 愚者들을 包容하는 힘인 것이다. 殉教者와 같은 忍苦로서가 아니라 마지 않지 않은 듯이 實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達人의 德로서 그것이 되는 能力인 것이다. 이러한 度量이라는 才能이 없거나 중요하가는 다음의 두 사람의 近代 美國政治家가 그러한 能力을 缺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政治經歷에 오점을 남겼다는 事實이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前에 國務長官이었던 에치슨氏와 大統領이었던 우드로 윌슨氏의 두 사람인 것이다. 두 사람 다 중요한 地位에까지 오른 政治家로서 더우기 偉대한 洞察力과 知性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에게 부여된 커다란 政治上의 機會를 충분히 活用하는 데

成功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람 다 野蠻人들과 점 추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못건대 苦痛스러웠던 것이다. 이 글에서 筆者가 말하는 野蠻人들이란 上院議員이나 新聞記者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일을 참아 나가는 것이 못건대 苦痛스러웠기 때문에 그러한 苦痛을 감추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깊은 反感을 사게 되었고 愛想이라는 점에서 메이비드·로이드·조오지라면 것이다. 이러한 度量和 實績과 비교한다면 全히 對照의 인 것이다. 앞서 말한 劉邦이나 아우구스투스는 事實上의 獨裁權力자들이기는 하였으나 그의 政策을 成功시키기 위해서는 愚者나 野蠻人들의 不斷의 協力이 絕對로 必要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역시 그러한 愚者나 野蠻人들을 구슬린다는 藝를 완전히 즐겼을 듯이 해내었던 것이다.

第四의 必要資格은 持久力인 것이다. 그것은 예를들면 스탈린 같은 사람은 상당히 強했다. 잊을려는 缺點부성의 發作的인 氣質을 갖았으며 持久力이라는 점에 있어서 가장 약하여 결과적으로 자기를 멸망시켰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幸運이었던 것이다. 漢의 劉邦과 아우구스투스는 모두 이러한 持久力의 長點을 高度로 發揮한 사람들이며 그 중에서도 劉邦은 뛰어났던 것이다.

筆者는 다음과 같이 結論코자 한다. 우리들이 이제부터 나아가려고 하는 세 로운 歷史의 章에 있어서 世界의 統治者들이 이 世界를 이끌고 當面하고 있는 戰爭의 危機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戰爭의 危機에 뒤이어 다치는 人口問題의 危機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政治家로서의 以上の 배가지 資格은 不可缺인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問題를 讀者自身이 심각하게 생각 하여 보았으면 한다. 즉 뉴질랜드나 덴마크의 選舉民과 함께 폴드·코스트나 나이지리아의 選舉民까지를 包含하는 오늘날의 世界 選舉民에 있어서 必要한 程度로, 그리고 必要한 時期까지에 以上の 배가지 훌륭한 條件이 實現될 것인가 하는 質問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質問에 對해서 眞心으로 實現된다면 答을 할 수 없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廣範한 權限을 부여받은 政治家들로 하여금 이 危機에 처한 데모크라시를 구원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缺點이 적은 種類의 獨裁政體일지라도 역시 弊害와 危險이 따르는 周知의 事實이나 그렇다고도不拘하고 그러한 事態가 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結局이 세상일이란 무엇이든 代價를 支拂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原子力時代에 있어서 데모크라시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하는 代價는 물론 지극히 비싼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끝)

X X X X X

(P 15에서)
 時에 修理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부분이 改良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렇게 해서 美國은 六三年度 中期에 人間衛星으로 하여금 地球를 一晝夜 동안에 旋回하게 하려는 「머큐리」 計畫最終節을 보다가도 自信있게 推進할 수 있는 判斷을 얻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상 人間衛星 發射成功과 더불어 七月十日에 美國이 發射한 「벨스타」 衛星의 成功의 意義도 높히 評價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그러한 中繼衛星이 約五十個는 더 發射되어야만은 世界의 「텔레비전」 및 長距離 無線通話를 「카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서도 여하튼 「벨스타」 衛星 하나만으로도 美國과 歐羅巴를 「텔레비전」으로 連結시켰다는 것은 여간한 業績이 아닌 것이다. 「벨스타」 衛星을 地球 三萬四千三百哩로 미터」로 發射한 자기 百二十度 角度를 유지하게 發射하면 그것만으로 全世界를 「카버」하는 「텔레비전」 中繼를 可能하게 한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는 豫測키 곤란하다. 다만 지난 七月에 발사된 「벨스타」 衛星 하나의 성공만으로도 오는 六四年度 東京의 「올림픽」을 世界 넓은 地域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希望을 붙여볼 수 기인 充分한 것이었다.

앞으로 二年度 동안 美國이 얼마큼 努力하는가에 따라 最少의 中繼衛星數로 最大地域에 걸쳐 中繼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技術이 닦아져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기대할 만하다.

이밖에 六二年度 宇宙科學界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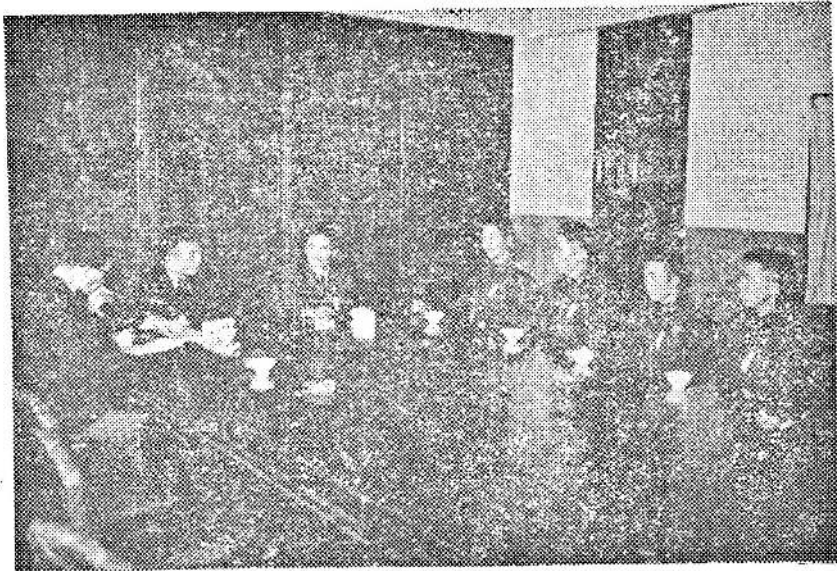
로 注目되는 것으로는 蘇聯이 종래한 두가지 人工衛星, 人間衛星, 혹은 宇宙 로케트」에 集中했던 것과는 달리 二個의 人間衛星 이외에도 十個의 人工衛星을 발사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純全히 科學的인 「메이타」 蒐集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역시 秘密속에 감겨 있는 것이라 果然 무슨 目的을 지닌 것인지가 그 나라 밖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한편 美國은 氣象衛星인 「타이로스」를 비롯해서 平준히 實用衛星을 發射해 왔고 「메이타」가 秘密에 붙여져 온 偵察衛星인 「사모스」등 軍事衛星도 平준히 開發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만 美國이 달과는 別로 因緣이 없어서 그런지 「페인저」三·四號를 모두 失敗했다는 것이 앞으로 본格的인 달 旅行을 하기 위한 時日을 그 만큼 延期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느낌이 든다.

도 보자
 불도 보자
 꺼진 불도 보자
 다 시 보자
 너 도 보자
 불 조 심



백찬 꿈을 바라보며.....

空士生徒의 生活을 말한다

때, 一九六二年十一月二十五日
 空軍士官學校會議室

참석자

- 김 유기 生徒(四학년)
- 김 두석 生徒(四학년)
- 장 덕수 生徒(二학년)
- 손 덕규 生徒(二학년)

參與

- 고영근 中領(생도전대 第一大隊長)
- 김찬구 少領(공사·정훈관실장)

司會

민재익 大尉

司會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관학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대를 가진 나라에서는 그 군대를 움직여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군의 자랑인 공군사관학교의 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 기

공사十訓

- 1, 容儀端正, 清廉潔白,
- 2, 誠心服從, 責任完遂,
- 3, 信義一貫, 公平無私,
- 4, 沈着果敢, 信賞必罰,
- 5, 率先垂範, 思慮兼備,
- 6, 7, 8, 9, 10

회를 베풀어 주신 고중영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특정한 목표를 지원할 때는 희망과 꿈과 포부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물어보기도 할까요? 먼저 四학년의 김유기 생도부터.....

김유기 임교한지도 이제 오래되고 보니 생생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조종사가 되어서 하늘을 날라 보겠다는 꿈이 아무래도 지배적인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수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한 사람은 누구나 한 것 없이 하늘을 날라 보겠다는 꿈을 안고 입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司會 하늘의 꿈을 안고 좋은데요. 이디, 대장님의 젊은 시절의 꿈을 한번 들려주세요. 高中領 사내다운 일이니까요. 스틸

이 있고 또 비행한다는 그 자체가 의 있는 일입니다.

司 會 교육체제를 들려주세요. 조종사로서, 말하자면 장래의 자취반으로서 그리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기술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 주기 위한 학과등을 말씀입니다.

高中 額 생도들은 학과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기계학이니 전기학이니 역학이니, 게다가 일반 군사과학등 사실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다 필요해요. 이공과 제종의 지식은 절대 필요하니까요. 모두가 필요한 교과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여기의 군인으로서의 정신적 무장을 해야하니 이러한 정신교육과정이 있지요.

司 會 김두석생도논 이런 교과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지요? 그 스케줄을 들이 볼까요?
김두석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시간적 활동은 다소 다릅니다만, 대체로 여섯시에 기상하면 주변정리를 한 뒤 아침 자습시간이 있습니다. 정상학과는 오후 4시 45분에 끝나면 5시까지 주변정리를 하고 저녁의 자습시간이 있습니다.

司 會 피와활동은?
김두석 주요인입니다. 봉사반, 영어회화반, 일어반등이 있고 또 패스·점, 문예, 음악, 동, 등의 반도 있습니다. 한달에 1회정도 전문분야의 강사를 초청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곤 합니다. 각종 무술도 반을 조직하고 있는데 무예반, 유도반등 전문적인 분야의 반을 편을 두고 있습니다.

司 會 락 다채로운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김두석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학과의의 이러한 상식을 가져는데 크게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司 會 4학년의 김유기생도는 어느 클럽에 속했는지요?
김유기 저는 영어회화반입니다. 가반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미나 소질을 따라서 이밖에 세로이반을



김유기생도 김두석생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육산반도 있는데 미포라지를 사육하는 사람도 있고 누운가는 오이씨를 연구하고 화초를 가꾸고.....

司 會 김유기생도가 하고 있는 영어회화반의 활동은 어떻게요?
김유기 주로 회화공부를 하기도 있는데 누름기 같은 것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회화를 통해서 그

들의 생활양식, 생활태도, 생활관정등을 알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司 會 피와활동에는 자유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텐데요 대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침으로 지도 하시는지요.

高中 額 강제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유로웁습니다. 이번엔 신실한 측산반이며 원래반은 동물학을 애호하고 식물학을 가꾸어야 한다는 정신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토끼를 손질하는 등— 특히 딱딱한 분위기를 풀고 정서적인 생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문학감상이나 음악감상은 도움이 크다고 봅니다. 음악감사를 초청했을 때 들어가 보았는데 영소의 긴장을 푸는 데는 참 좋더군요.

司 會 가장 자유시간이 많은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인데 어떻게 지내는지요. 장덕수생도논 어떻게 지내는지요?
장덕수 인편 과목을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잘 안됩니다. 역시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을 시간적으로 꼭 짜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처럼의 일요일이 되니 할 일이 역시 많습니다. 세탁을 하는 때도 있고요. 외출을 하게 되면 영화도 보게 되고 만담 사람들도 있구요.

司 會 김유기생도논?
김유기 1, 2학년 때는 일요일이면 무조건 외출했읍니다. 그러나 3, 4학년이 되면 무조건 외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출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여자 친구를 만나고, 영화, 등산출근기도 합니다.

司 會 사관생도는 여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입니까?
정·후렌드와의 접촉같은 것 말입니다.(笑聲).

司 會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笑聲) 언젠가 바라는 눈치예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면서 눈치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魏大生 들로부터 저희들 교사생도들과 유학자는 제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접촉하기도 하지요.

司 會 대개 어떤 경우 일들이 어떻게 보지요. 생도 여러분들.
김두석 일반 학생들의 비해서「에고」하지 않고 그러자니까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깨끗하고 믿음직한 것이 있다더군요.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성을 가지게 됩니다. 애티켈이나 저산에 늘 신경을 쓰게 되는데 한 사람의 처신이나 전 생도들의 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심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마디를 말해도 무개 있는 말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 쪽에서 불꽃 말을 걸어올 때는 당황하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리이드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司 會 데이트를 많이 할 하나요?
김두석 가끔 합니다.
司 會 과장님 생도들의 이 방면의 있어서의 생활을 지도하실 텐데 어떤 방침으로 지도 하시나요?
高中 額 물론 관심이 큼니다.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司 會 데이트를 많이 할 하나요?
김두석 가끔 합니다.
司 會 과장님 생도들의 이 방면의 있어서의 생활을 지도하실 텐데 어떤 방침으로 지도 하시나요?
高中 額 물론 관심이 큼니다.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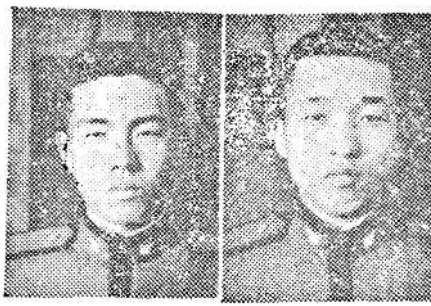
나이다. 요즘, 梨大, 淑大의 행사가 있을 때는 초청을 받은 하는데요. 전번에 있었던 문학모임에서도 공생도들이 많은 시가, 가창 벗이 있었다고 들고 있습니다. 여파생들이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자주 초청을 해줍니다. 여성들과 적당한 사교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교를 통해서 에티켓을 몸의 인리

고도 그들의 여성관을 진전할 방향이요? 다들 수 있지 않겠어요? 金少額 사훈기를 벗어난 젊은이로써 여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아카 리드를 당하는 것 같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관생도들은 평소의 일상 생활의 여타가 지

제약이 많고 또 학교 당국에서 생도들에게 요구하는 생활규범도 많은데 이러한 긴장된 생활의 결과로 심수를 한다면 그것은 전 사관생도의 명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나치게 조심하는 나머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추생도 한사람 한사람의 행동은 전생도를 대표 하는 것이니까 자연히 매사의 신경을 기하게 되고 그 점이 반대학생과 다른점이겠지요.

高中領 글세요. — 나이가 차서 장가를 갔지요. (笑聲)
司會 아카 정신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대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가령 명예심을 가지게 한다는가.

高中領 미국 사관학교의 4개 표어가 있지요. 친린을 하지말라, 거짓말을 하지말라 하는 등 — 공군 사관학교에는 「공사수훈」이 있고 생도들이 자치적인 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사수훈」을 기준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규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도들의 명예에 관한 사건이 있으면 명예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4년 동안 「공사수훈」을 지켜가면



장덕수생도 순덕규생도

덕판님이 강해진다고 봅니다.
司會 생활을 승화하고 푸라이드를 가지게 하도... 金少額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해주실까요.

金少額 二十四시간 훈육관이 생도들의 생활면울 전담하고 있으니 이것 이 곧 명예심을 길러주고 보타 한 전한 군인을 만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장래의 중견장부가 된다는 긍지와 소양을 갖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유가 명예제도는 그것을 하나의 전 문화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위원회는 생도들의 명위에 대한 토의를 하고 저축 여부를 투표로서 판정하여 결정하지만 명예의 본질에 대해서 말한다면 원래 짚은이가 지켜야 하는 높은 수준의 신사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심에 기반을 둔 거저 짚 없는 행위, 누가 보아도 몇몇한 행위가 명예의 근본이 아니고 생각합니다. 규칙 때문에가 아니고 명예의 근본되는 본질에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고 믿고 또 제도를 떠나서 스스로 자각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전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선배에서 물려받아 후배에게 물려줄 전통은 무엇이 있다고 봅니다.
金少額 기생도,

김유기 글세요. 이거다 저거다 고집이서 말할 수는 없읍니다만 — 가령, 자동판배기 같은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사든 저 자유니까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요.

司會 그건 물론 자동판배기 자체가 아니고 자동판배기 제도가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가겠지요.
김유기 네. 그 분위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들 수 있기가 빠른데 자동 판배기로서 속한 것이 더 그 좋다는 분위기, 그것은 전생도의 정신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덕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빠

하지만 고등학교때 교실안에서 읽이 버린 적이 많았어요. 사관학교의 이런 분위기는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司會 그 전통이 길어 빛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끝이겠습니다.

생생한 敎訓

나이가 겨우 삼십세로서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비누, 치약 회사인 티버·부라저스 회사 사장인 찰스·라크만씨는 상급사 이의 배당을 제해 놓고서도 해마다 1만 달러의 봉음을 받았기 때문에 돈 많은 미국 사회에서도 감쪽 놀라게 되었다.

「영웅이 되는 것과 방랑자가 되는 것의 차이는 머릿칼 한 오라기의 차이이다.」라고 새삼스럽게 말하는 라크만의 과거는 남보기처럼 평탄하고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학하면서 도 인제나 최우수의 성적으로 중학을 졸업하고 장학금을 무리로 받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학은 유럽의 상과대학이었기 때문에 얼마 뒤의 그곳을 그만두고 일리노이 대학의 진취파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이 대학의 진취파사라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불경기 때문에 한 장의 휴지값밖에 못 받았을 때 그는 곧 실망회망으로 바꾸었다. 그때서 처음으로 나선 것이 비누 판매원이 되었다.

△空軍大領·第十戰飛團團長▽

II. 리퍼블릭 (Republic) F-105D Thunderchief의 武裝系統과 航空作戰概念

- 完壁화된 武裝系統
- 機體의 特徵과 그 運搬能力
- 結合된 航法裝置와 火力製禦系統
- 作戰面에 對한 考察

前章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現代의 航空作戰概念은 及其也 多用途單座戰闘機 防禦에서 攻擊으로, 核武器의 微小化와 그 運搬의 可能, 高空, 低空에서의 敵에 對한 超音速 自動爆擊, 武裝偵察, 制空作戰, 長距離移動等の 必要性을 낳아서, 「미사일」發射과 더불어, 戰闘機의 開發이 高潮되고 있었으며, 오늘날 美空軍의 戰術機中에서 이리한 多用途性을 처음으로 充足시켜준 「리퍼블릭」(Republic) F-105D] Thunderchief의 對해 言及한 이

로써 現代의 航空作戰에서의 樣相과 多用途戰闘機의 運用面을 考察해 볼 可하다. 이 F-105D가 實戰에 適合하다고 決定되기에까지는 무려 延五百萬時間의 研究期間을 포함하는 約七年間의 時日과 十餘億弗의 開發費가 投資되었으나 Tactical Air Command와 Air Material Command에서 Republic Aviation Corporation과 共同의 로이와 같이 高價의 航空機開發製作에 着手하고 이를 多量生産하기로 決

定한 事實은 아직도 有人航空機의 實戰可用性을 立證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卽 超音速戰爆機가 遂行할 수 있는 機能을 有人操縱처럼 正確하고 能率있게 構當할 「미사일」은 尙今 없는 것이다. 美空軍이 F-105D Thunderchief의 게 要求하였던 重要任務를 본다면,

1. 敵軍事潛在力의 파괴

最高九〇〇m. 地點까지 大型 高威力의 核爆彈을 運搬하며, 低空에 있어 Mach 1 以上, 高空에 있어서는 Mach 2 以上の 速度로 爆彈投下가 可能(正確度는 低空 Mach 1 에서 150-350 yds, 高空 Mach 2 에서 500-900 yds 內의 偏差)

2. 地上軍支援

高性能爆彈, 殺傷爆彈, 비이탈彈의 投下와, 地上目標物에 對한 機關砲와 空對地사인의 發射, 또한 胴體內의 爆彈倉(Weapon bay)의 武裝外에도 機體밖의 最大限 五挺의 武裝이 装着 可能.

3. 敵레이다 施設의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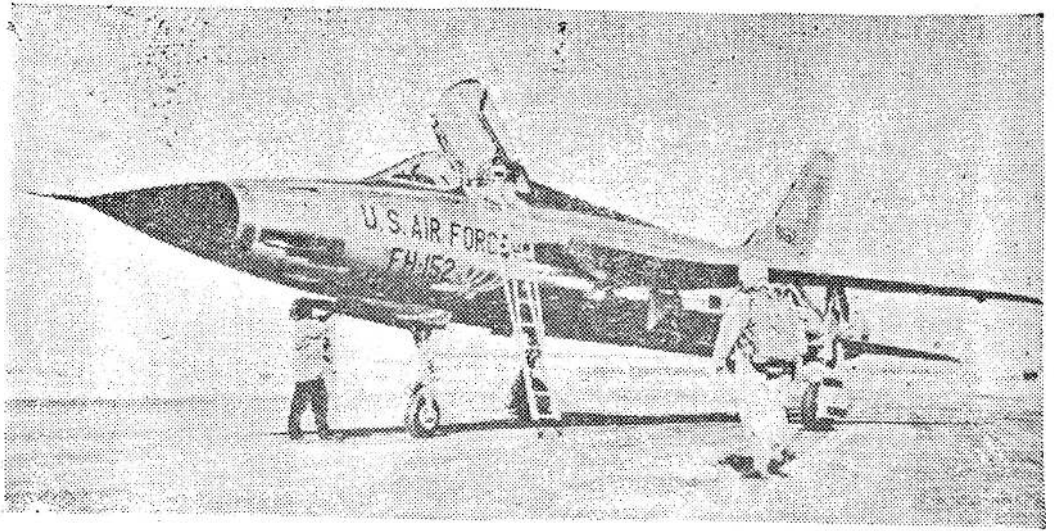
機體에 裝備한 特殊레이다 호오밍(Homing) 機構에 依한 敵의 레이다 스테이션(Radar station)의 探知, 破壞.

4. 武裝偵察

戰術偵察機로서 敵의 上空을 強行 偵察하기 爲해서, 自衛用 武裝.

5. 地上敵機에 對한 破壞

原來 Mach 2 의 速度로 高性能의 敵機遂擊任務는 F-105D의 機能에 포함안된 것이어서, 페트로 哨戒飛行, 局地遂擊任務에만 쓰이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F-105D는 半自動式으로 遂行하는 全天候作戰任務에 필요한 裝備을 全部 具備, 여기에서, 全天候作戰을 F-105D가 遂行할 수 있는 可能性이 야말로 武裝系統 考察에 있어서 決定의 要素가 되었는 것이다. 왜냐하면 歐羅바나 亞細亞의 一年中 數個月은 惡天候條件下에서 作戰하지 않으면 안되는 事實을 처음으로 考慮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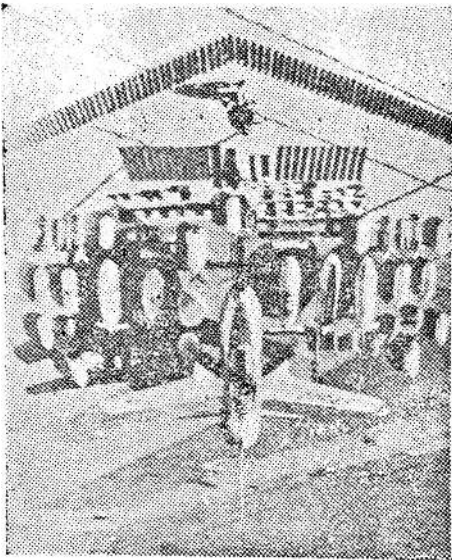


F-105 D의 雄姿

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F-105 D는 어떠한 氣象條件에 서도 그 任務을 遂行할 수 있는 有數한 航空機일 뿐 아니라 大部分 高度의 自動式 武器系統이기 때문 에 航法과 操縱補助 裝置가 조종사의 負擔을 덜고, 다만 戰 闘에만 注力할 수 있 겠음 設計되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着陸接近까지도 조종 사의 操作이 必要없 이 自動化가 可能한

F-105 D가 積貯할 수 있는 甚대한 武器(爆彈倉과 主翼 밑에 裝着積貯할 수 있다)

것이다. 이른바 現代空軍에서 制空權이라는 것은 有人航空機 또는 미사일이 어떤 惡天候와 相對敵國의 如何한 抵抗에 도 能히 敵의 目標物을 격파시킬 수 있는나에 따라서 確保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미사일의 경우에서 이것이 잘 操作될 때에는 別問題이지만, 그러나 그 命中率의 正確性은 아직도 疑問의 餘地가 남아 있는 것이다. 反面에 航空機가 미사일에 比해서 敵의 防衛能 力을 고려해볼때에 弱點이 있기는 하 나 電子裝置를 利用하여 敵의 레이 다 電子網圈下의 低空飛行으로 또는 ECM 作動으로서 敵의 레이더 捕捉을 피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目標에 接近하면서도 必要할 때는 機首를 自由



自在로 變更함으로써 自己防衛를 하 여가며 正確하게 爆彈과 미사일을 發射하여, 效果的인 攻擊任務을 達成할 수가 있는 것이다. 勿論 一個의 IRBM 大隊가 戰爆大隊보다 運用維持費가 廉便한 所지만 航空機는 미사일처럼 한번만 쓰거나 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全面戰이나 局 地戰에서나 모두 敵의 目標物과 對하 는 것이 必要한 以上, 有人航空機는 多用的이고 正確하면서도 보다 機動 性있는 「武器」로 當分間은 계속 殘存 하고 있을 것이다. (F-105 D 같은 戰爆 機 一臺은 IRBM 一臺의 費用과 맞

完壁화된 武器系統

리퍼브리戰術機의 重點은 무엇보다도 武器系統의 現代化에 있다. F-105 D 製作課程을 훑어 본다면, 一九五一年— 처음으로 研究에 着手 一九五五年十月二十二日—原型(XF F-105 A)의 最初飛行 一九五六年五月— F-105B 가 試驗飛行

一九五八年五月— F-105B 가 韓國動 亂에서 그 勇名을 떨쳤던 美空軍 第四戰術飛行團의 第三三五戰術 戰術飛行大隊에 配屬 一九五九年七月九日— F-105D 가 處 女飛行

이러한 開發課程을 通해서 리퍼브 리社는 美空軍에서 要永하는 아래와 같은 事項을 研究하였는데, 가, 超音速 單座型 나, 重量十二噸內 다, 音速圈內 飛行에 있어서 抗力 의 減少

라, 標準武裝—M 61 20 m/m 速射砲 六門

마, 自動航法 및 補助裝置

바, 武裝系統—爆彈倉에 核武器積載, 超音速投下

* 胴體속에 爆彈倉을 두는 利點—①, 附加의 外部抗力이 없다. ②, Mach 2의 超音速接近이 可能하다.

③, 核武器와 連結되어 있는 電氣接線이 惡天候나 氣流에 露出이 안된다.

④, 爆彈을 航空機胴體의 部分에 積載하므로써 發射時의 機體, 動搖나, 投下彈道의 偏差가 적다.

⑤, 核武器積載가 外部로 露出안된 다.

그리고 또한 F-105 D의 武裝能力을 概觀하면,

機首에, △ 每分六,〇〇〇發의 G. B T-171 E-3(M-61)20m/m 機關砲 一六門.

爆彈倉에, △ 二,〇〇〇파운드의 核爆彈, 大型爆彈

△ 四,〇〇〇파운드의 高性能爆彈

△ 一,〇〇〇파운드의 爆彈 四發

△ 네이팜彈(또는 補助 탱크로서 특 탄組立이 可能)

△ 空對地 미사일 (White 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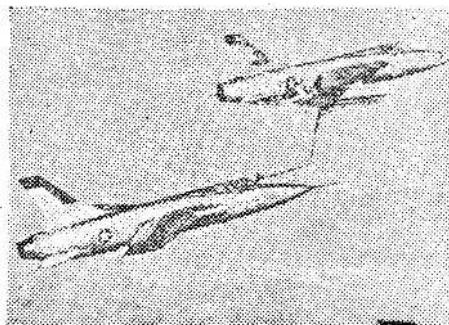
△ 空對空, 空對地兼用 로켓포彈 一九〇發

等 장비하고도, 自動裝置로 攻擊이 可能한 武裝系統을 갖추고 있다.

機體의 特徵과 그 運搬能力

F-105D 機體의 安全荷重系數는 8.67 gram에 破壞荷重系數는 13 gram

F-105D에 依해서 空中給油設備은 三光景(高空 超音速에서 二分間 六〇〇갤런의 給油가 可能하다)



인메이그의 戰闘機보다도 높은 數值로서, 超高速, 超低空 飛行으로써 LABS 攻擊이 可能하다. 이 安全荷重系數는 攻擊任務을 수행함에 있어서 壓力과 機體에 오는 火力에 對한脆弱度 및 航空機壽命을 決定하여, 最도로, 設計上의 Key point가 되는 것이다.

主要과 尾翼인

- 超音速, 超低空에서의 戰爆任務
- 積載物의 最適度의 考慮
- 重力中心에서의 急變轉을 爲한 自動照準

- 目標物接近을 爲한 安定度
- 音速圈內飛行에 있어서의 最低抗力

等을 最大로 고려해서 設計되었으 며 特別 電氣裝置와 燃料 탱크를 油壓

系統에다 特殊하게 適用시킨 點이다.

여기에서 F-105D의 後部胴體의 「크 로바·인」이라고 불리는 四枚의 「에어·브레이크」裝置를 注目할 필요가 있다. 이 에어·브레이크는 제트·엔진

의 排氣口를 감싸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 操縱士는 네가지 位置를 調節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第一位置—完全히 閉鎖되는 型態로서

아프다·바너를 使用치 않을 때,

第二位置—제트·파이프 周圍에 약간

의 간격을 생기는 型態로서 아프다·바너를 使用할 때,

第三位置—左右의 二枚가 열리는 型態로 速度調節이나 着陸時에 使用한다.

第四位置—四枚의 브레이크가 전부 열리는 形態로서, 減速 또는 急降下할 때에 使用한다.

다음, 垂直尾翼에는 아프다·바너 冷却空氣의 吸入口가 있다. F-105D

의 심장인 엔진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飛行安全에 크게 寄與하고 絶對的

信賴性을 가진 Pratt & Whitney J 75-19W로서, 低壓八段, 高壓七段의

十五段階縮器와 高壓用一段, 低壓用一段의 各個의 「타빈·호일」을 使用하고 있다.

아프다·바너를 使用할 때에, 二四,五〇〇파운드의 出力을 내고, 水壓裝置를 利用한 噴射을 併

用하면 二六,五〇〇파운드의 推力을 발휘한다.

空氣吸入口는 F-105 D의 外形을 特徵지어주는 要素로서, 一分間 百萬

Cubic/feet 以上の 空氣를 吸入하므로써, 비행中에 있어서, 超音速波動에

依한 亂流을 防止하는 「Double shock Wave」를 發生하게 한다. 強力한

엔진에 필요한 大量의 공기를 공급하

며, 機體의 速度나 姿勢의 變化에 對해서 恒常 必要한 空氣流量을 確保하

고 流速을 調節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바와 같은 機體의 特徵과 더불어서, 다음엔 F-105D의 그 運搬力을 概觀하여 보기로 한다.

F-105D의 性能은 20 ton級 무게의 航空機로서는 놀라운만한 것으로 機體

外에다 裝着物없이 水平飛行에서는 Mach 1.25, 36,000 피트에서 Mach 2.15의 速度를 나타내, 아프다·바너 없

이도 超音速으로 飛行할 수가 있다. 아프다·바너와 水壓裝置를 利用한 噴

射(Water Injection)을 使用하면 激擊任務의 경우에는 離陸後 二分一

秒以內에 約 四〇,〇〇〇피트 上空에 까지 上昇할 수가 있게 된다. 離陸,

滑走를 開始하여 八,五〇〇피트 高度에 上昇하기 까지는 불과 五五秒밖에 안 걸리나, 上昇高度는 五〇,〇〇〇

피트 以上인데, 三六,〇〇〇피트의 高度에서 最大速度로 加速을 하면 七〇,〇〇〇피트 高度에까지 機動할 수

있는 急上昇이 可能하다. 또는 彈道 上昇(Ballistic climb)의 頂上(Peak) 근처에서, 空對空 미사일을 그 高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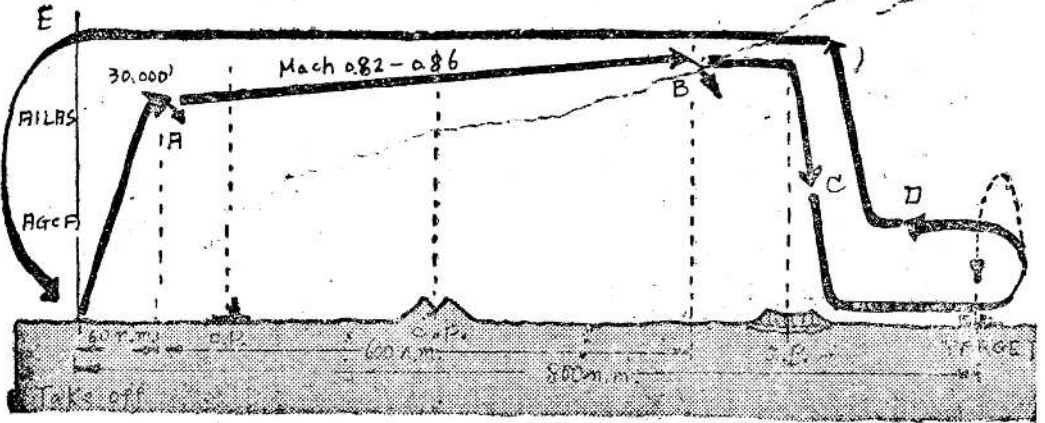
以上으로 發射할 수가 있다. 四〇,〇〇〇피트 高度와 超音速에서 F-105D

가 5.0 G까지 「G」를 견디며 垂直旋回를 할 수가 있다.

Thunderchief의 運搬能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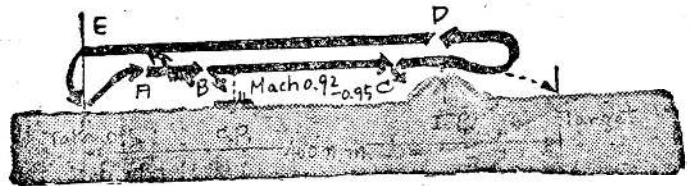
첫째, 最長離陸任務遂行의 典型的인 事實에서부터 알 수가 있다. 即 四七,〇〇〇파운드의 離陸時의 自重과 一,二〇〇갤런의 燃料과, 一,三五〇갤

런相當의 各個의 補助燃料 탱크, 三三〇〇파운드의 무게의 核武器를 一



〔圖表〕 1. 高空接近에 의한 핵爆彈 長距離攻擊任務

48,400 파운드의 自重과 補助탱크 세개를 달고서 30,000 피트까지 上昇한다. 중조사는 (A)點에서 胴體 앞쪽의 補助탱크를 떼어 버린 後에, (C.P)까지 비행한다. (B)點에서는 나머지 두개의 補助탱크를 떼어 버리고서는, (IP)點을 확인한 後에, (C)點에서부터 NASSAR 레이더로 「地形回避」를 한다. 이 後 超音速, 底空으로 目標物에 接近해서 自動爆撃을 한다음엔 (D)點까지 到着한다. 여기서부터 다시 再上昇하여 基地로 歸還하게 되는데 (E)點까지 와서부터는 ALLAS 裝置를 써서 自動操縱을 하여 着陸한다.



〔圖表〕 2. 저공접근에 의한 핵폭탄 공격임무

操縱士는 (A)點에서 「地形回避」에 들어간다. 胴體 앞쪽의 補助탱크를 (B)點에서 落下시키고, (C)點에서는 두개를 마저 떨어뜨려 버린다. IP에 와서는 「아프라·바니」를 쓰고, 自動爆撃裝置를 作動시키고 目標物에 超音速으로 接近해서 緩降下 폭격을 한다음 「Halp loop」 비행으로 歸還한다. (D)點을 넘어선 (E)點에서부터 着陸接近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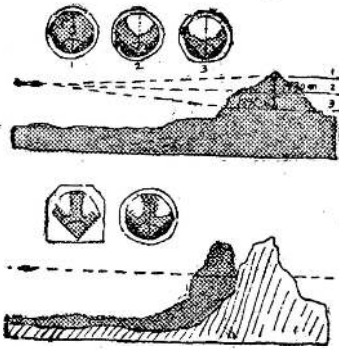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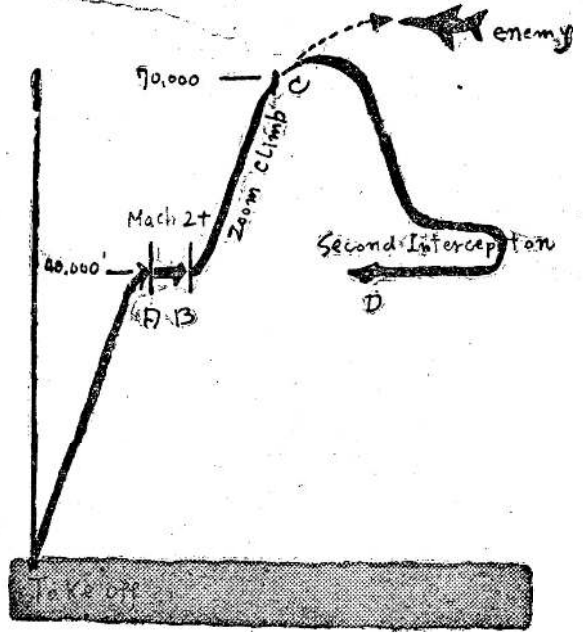
하고서 F-105D가 音速以下로 三〇,〇〇〇~三六,〇〇〇피트 高度內에서 目標物을 찾아서 飛行한다면 八〇〇~九〇〇마일의 作戰行動半徑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任務完遂後에라도 正當燃料豫備量外에, 아프라·바니를 쓰면서 低空超音速飛行을 三分間이나 할 수 있는 연료가 남아 있게 된다. 둘째, 近距離 地上支援任務에 있어서 F-105D는 胴體와 主翼 밑의 一九〇個의 70m/m 로켓, 一,〇〇〇파운드 카리 爆彈 네개, 四五〇갤런 補助燃料탱크 및 그 外에 필요한 보조 탱크와 一,〇〇〇파운드의 護送하는 武器를 積재하는 것이다. 護送 또는 哨戒飛行時에는 爆彈倉에 다 른 補助燃料탱크 하나와 밖에 있는 세개의 補助燃料탱크를 가지고 F-105D는 航線 距離 2,000 마일 이상 비행할 수 있는 二,九〇〇갤런의 燃料을 積재하게 된다.

F-105D의 生産은 高度에서의 空中給油를 爲한 研究에 關心의 다시 살리게 되었는데, 이는 F-105D의 날개 밑에 있는 두개의 「Buddy」 탱크와 「Drogue」로서 連絡되는 KB-50J 航空機나 혹은 다른 F-105D의 依해서 空中給油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給油方法以後에, TAC과 F-105D에게 파지 衛星과 같은 無限의 機動性을 부여한 파지 Boeing KC-135 Stratotankers를 裝備하기가 이르렀다.

航法裝置와 火力制禦系統
F-105D의 多用途性은 무엇보다도 全天候作戰能力과 火力制禦系統의 結

[圖表] 3. 요격전투 임무의 遂行圖

四〇,〇〇〇피트까지 야만. 바디를 쓰고서上昇해서 (A)點에到着한다. 여기서부터 Mach 2로 加速해서 (B)點에서 急角上昇한다. 여기서부터는「판석 에디지」에 依하여 彈道의 頂點인 (C)點에 (七〇,〇〇〇피트)까지上昇한다. 다시 四〇,〇〇〇피트까지 下降해서 第二次破擊을 위해서 (D)點에서 待機한다.



[圖表] 4. NASARR 레이다에 依한 地形廻避의 圖解

레이더는 6,000 피트 上下의 前方을 投. 스크로프上影시켜 주는 것으로써, 위의 그림은 레이다에 세가지 影像이 나타나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종사는 레이다에 나타나는 地形 障礙物 사이를 돌고서 비행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合에 있다. 이 「제스틴」의 基本的인 要素中의 하나인 AN/APN-131 Doppler 航法裝置인 「D」의 數個의 Doppler 레이다, 數個의 비행 Data 捕捉器, 비행 Data 計算器, 航法計算器로서 組立되어 있어서 航空機의 位置, 對地速度, 航蹟, 目標物까지의 거리, 風向, 風速 등의 메타를 自動的으로 表示하는 수단. 또한 이 「제스틴」의 R-14A NASARR의 作務는 「제스틴」의 「X-band monopulse」 레이다로서 약 18°42'의 反射鏡이 있어서 地形의 Radar mapping을 조종사로 하여금 Doppler 航法 裝置을 修正하는 誤差를 修正해주고, 目標物을 확인하는 것을 可能케 한다. 그 외에도 航路上의 地形廻避, 目標物에 對한 傾斜거리, 空中目標物의 確認, 追擊 등을 自動的으로 操縱士에게 알린다.

또한 General Electric FC-5의 自動操縱裝置(Three-axis autopilot)을 갖는 「제스틴」의 Doppler 航法裝置에 連續되어 있어서 航空機가 恒常計畫된 「코스」에 있게 해주고, 上昇, 着陸, 接近時에 있어서 自動的인 調整役割을 한다. 그래서 空對地武器中에 「能게 해주는」 General Electric AN/ASG-19 같은 特殊한 火力制禦系統이 登場케 되었다. 이것은 彈道計算器와 Doppler 航法裝置 그리고 다른 補助器를 使用함으로써 목적임무에서 惹起되는 모든 問題를 解決해주고 있다. NASARR와 함께 「Thunder stick」라고 불리우고 爆擊飛行의 操作을 自動的으로 하는 것은 이 裝置는 空氣密度와 風速, 風向의 交叉와 最終目標物까지 接近飛行할 동안의 航空機의 安定度 및 爆彈發射을 調節해 주기도 한다. 이것은 連環인 「Half loop」飛行을 通하여 低空 또는 緩降 후 高度 水平飛行에서의 計器爆擊을 可能케 하기도 하는 것이다. 地上目標物의 地上戰團部隊의 支援과 함께 攻擊된 때에는 「Thunder stick」裝備한 化學彈의 投下와 空對地 미사일의 發射을 調整하기도 한다. 結局 이 Thunder stick의 戰團任務에 있어서 M-16機關砲와 空對空 미사일의 發射을 爲한 火力制禦作用을 하여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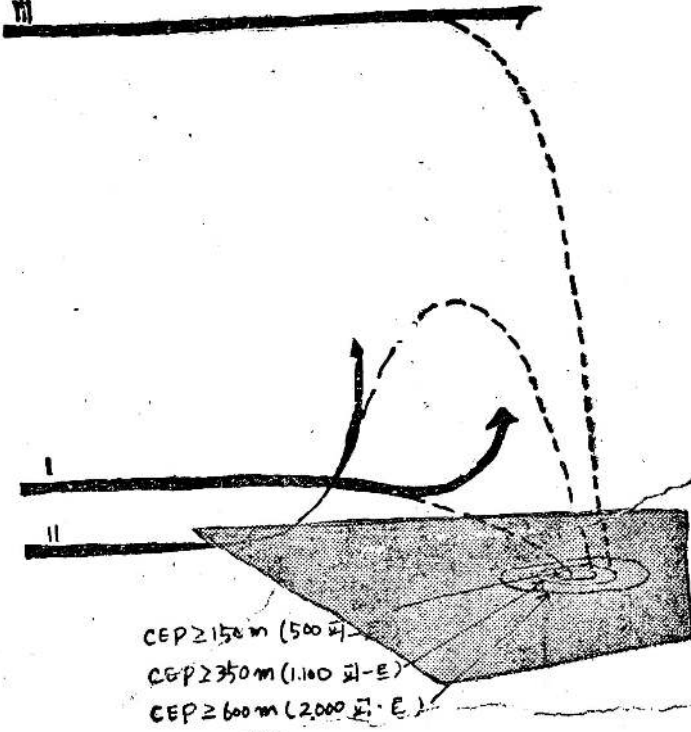
作戰面에 對한 考察

以上에서 본바와 같은 航法裝置와 火力制禦系統에 聯關시켜서, 이번에는 F-105D의 作戰面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圖表】 5. F-105 D의 爆擊方法 圖解

Ⅰ—線降下방법의 爆擊法
Ⅱ—Halo loop 방식의 低空이동 爆擊法
Ⅲ—高空이동 水平飛行의 低空이동 爆擊法

제가지 方法의 選擇은 各기 性能에 따라서 그 命中 精度의 偏差가 생긴다. 故로 가장 偏差가 적은 方法은 40,000~50,000 피트 高度에서의 中高度이동 爆擊法이 理想的인 方法이다.



CEP \geq 150 m (500 피트)
CEP \geq 350 m (1,100 피트-E)
CEP \geq 600 m (2,000 피트-E)

가, 高空接近에 依한 核爆彈 長距離 攻擊任務

主로 堅固한 敵陣地等을 攻擊하는 경우인 때, 各個의 補助點들을 使用함으로써 二, 三, 五, 〇, 〇 피트의 高度에서 三, 〇, 〇 피트의 武器를 發射하여, 總重四八, 四, 〇, 〇 피트의 亞프타·바니를 使用해서 離陸한다.

三, 〇, 〇, 〇 피트 高度까지 上昇(가) 리고 60 n.m. (110 km) 에서, 自動操縱의 飛行한다. 600 n.m. (1,100 km) 까지의 距離 동안에 高度 三, 〇, 〇, 〇 피트 高度까지의 速度 Mach 0.82, 三, 三, 〇, 〇 피트의 高度에서의 亞프타·바니를 發射한다. 亞프타·바니의 速度는 Mach 0.86 이다. 亞프타·바니의 速度는 370 km)에서 NASSAR FOS의 速度를 보고서 偏差를 修正한다. 이리 기까지의 二〇分間의 所要되는 때, 目標에서 約 100 n.m. (180 km)의 距離가 되면, 超音速으로 上昇해서 目標 物으로 향한다. 以後 I.A.S.S.法의 依해서 核攻擊을 마치고면, 自動적으로 離陸되어서, 高度 三, 五, 〇, 〇 피트까지 올라간 다음 Mach 0.92—0.95 速度로 自動操縱으로 歸還한다. 이런 方法이 F-105 D의 約 800 n.m. (1,480 km) 의 거리의 目標까지 攻擊作戰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 低空接近에 依한 核爆彈 攻擊 任務

敵의 陣地나 補給망의 捕捉圈을 打破해서 低空이동 飛行을 敢行하는 경우인 때, 이 때의 FOS 장치의 地形 避法 方法으로 그 能力을 발휘한다. F-105 D는 離陸直後 곧 自動操縱으로 發射해서 六, 〇, 〇, 〇 피트 以下の 高度로

直進, NASSAR 飛行기가 가트리는 前方 六, 〇, 〇, 〇 피트 上下의 地形을 보고서 障礙物을 自動적으로 避한다. 最後의 速度는 Mach 0.92—0.95 가 된다. 最後의 Check point를 通過해서 亞프타·바니를 發射, 超音速이므로 目標物에 進入한다.

다, 空對空 誘導 미사일에 依한 遠 擊 戰 任務

유지 전투의 空戰에서의 胴體內의 爆彈倉 (Weapon bay)內의 空對空 誘導 미사일을 發射해서 一, 一, 〇, 〇~一, 一, 五, 〇〇 피트의 重量 三, 五, 〇, 〇, 〇 피트 이하로서 離陸한다. 이 때의 亞프타·바니를 發射해서 上昇하여, 超音速 飛行으로 속도를 높여지고, 高度 四, 〇, 〇, 〇 피트에서 一, 但 水平飛行으로 올라 간 다음 Mach 2까지 加速하여, 力으로 高度 七, 〇, 〇, 〇 피트까지 昇차로 上昇해서, 目標物을 照準한 空對空 미사일을 發射한다. 이 때의 方法으로 高度 七, 二, 〇, 〇 피트 이상에 있는 敵機의 對空 誘導 可能하다. F-105 D의 空對空 미사일은 「싸아드·파우지」四發을 發射하고, 그 外에 20 m/分 速射砲가 있으므로 二回 以上の 誘導 可能한 때, 두 번째로 誘導 誘導 誘導, 보통 四, 〇, 〇, 〇 피트까지 線降下한다. 이 때의 速度를 加해서, 目標物에 再次로 上昇하여, 加速해서, 이 런 경우의 空對空 F-105 D의 基地를 中心으로 300—400 n.m. (550—740 km)

의 遂行行動範圍가 되며, 時間으로 1時間以内이다.

哨戒비행時의 1~3個의 補助명크를 달고서 (空對空미사일을 장착한 채로) 滯空時間을 延長한다. 이 哨戒任務는 地上管制組織의 指揮에 依해서 高度 30,000~40,000呎 사이에서 亞音速비행을 하지만, 空中心標物을 發見한 時의 補助명크를 飛上고고로서는 加速, 上昇하는 方法을 取하는 것이다.

그리고 F-105 D의 寸을 縮小한 것이 現在의 Century-series의 艦兒의 製造費에 論議되고 있는데, 高價의 製作費에 比例해서 支援器材와 基地施設 및 整備人員의 問題인 것이다. 即ち 多用途의 이고 高性能이기도 하다. 充分한 能力을 裝備하기 위해서는 基地施設을 後方진수히 永久基地에 다 두지 않으면 안된다. 前線近接支援을 爲한 戰術任務의 수나 高價가 아니라 戰術問題인 것이다. 그러나 Flat G-91, Douglas A4D, Northrop N-156 등의 戰機種이 一인目的인 다. 例컨대 敵戰車一臺의 파괴의 核武器攻擊이 너무나 重要하다. 事實인 것이다. 다음에는 離着陸問題인데, 前線戰術行動을 爲해서 急造滑走路를 利用해서 作戰을 하는 例로써 F-105 D가 아프라카스와 Drug-schutz를 使用하고서도 現在로서는 簡易飛行場에서의 離着陸, 不可能하다. 結局은 VJOL/STOL 戰術機의 期待할 수밖의 없다. 事實이다. 其次로, 航續性能問題인데, 美國의 戰術空軍이 歐羅巴(美本土)와 조메스島(歐洲大陸)나

亞細亞(美本土)하와이-판島-필리핀(等)地에 連綿大洋無着陸作戰을 敢行해야 할 條件으로 보아, 空中給油問題가 技術上으로 그리 完全히 못하다. 特別惡天候나 敵의 奇襲下에선 不可能하지 않으나 하는 問題인 것이다. 其次로, 遂擊性能의 문제인데, F-105 D의 裝備된 것은 NASSAR FOS가 戰術, 航法用인 것. 高상속이지만 全天候遂擊을 爲한 敵機探索機能의 範圍가 30.0m(55km)밖에 안되니 極히 低하다. 혹이 Radar homing)型의 空對空미사일의 誘導가 안되는 것이다. 또한 六四,〇〇〇呎以上 高度에 上昇해서 敵機攻擊이 可能하지만, 이 때에 NASSAR FOS에는 敵機捕捉이 안되므로 萬一을 가서 저기가 있는 경우엔 待望을 하고 말기 때문인 것이다. 이때에는 不可不地上의 GOI를 利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其次로 弱點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F-105 D가 一九六〇年代의 最高의 傑作機로 登場되어 最盛을 거듭함으로써, 美空軍에서 一九六四~一九六五年 사이에 約九〇%를 保有하게 된 것이다. 이 때에 歐洲에서 점차 支拂되고 있고 極東에서의 交戰도 一九六二年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美空軍의 發注外의 Republic과 NATO 諸國에게서도 二五〇%를 發注한 時의 單價가 一,四〇〇,〇〇〇로서 特許附製作的 用意를 提議했었지만 實現은 보지 못했다.

Thunderchief의 完全化하는 研究가 加해지고 있는데, 例로써 Pratt & Whitney 엔진의 改良型의 채택으로 離陸滑走距離를 可及의 수리고, 裝備積載量을 増大시키게 된 것을 들 수가 있다. 特別特殊레이다와 「Infrared detector」로서 새로운 偵察裝備을 設置한 事實을 인하여, 夜間이나 惡天候에 있어서도 F-105로 하여금 偵察과 攻擊任務를 同時에 할 수 있는 二重機能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裝備는 操縱시 特이 容易하다. 레이더로서 「Infrared Picture」를 보거나 目標物을 發見해내고, 計器攻擊을 遂行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도 하는 것이다. 「Plane」로서 連結된 카메라는 中高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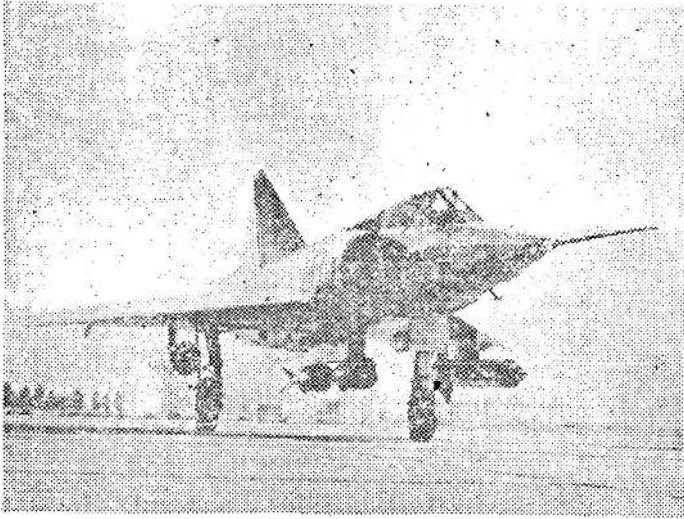
또는 低高度에서 夜間操縱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裝備는 武裝을 主眼點의 「Pylon」에 裝着할 때에도 모두 爆彈倉의 設置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如何間에 F-105 D는 美空軍에서 새로 개발된 新銳機 F-4C (F-110)의 改稱이 就役할 때까지, 또 그以後에도 계속 이 F-4C 戰術機와 더불어 美空軍 SAOC의 火力를 補充하여 주는 TAC의 主力機의 位置를 固守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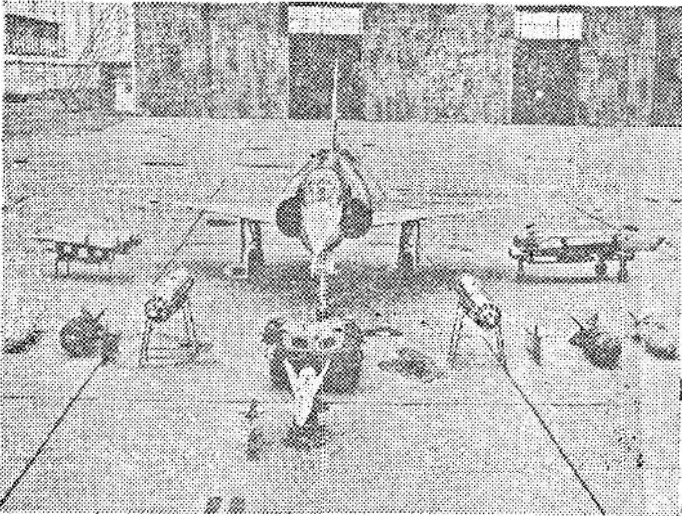
IV. 미라지(Mirage) III의 解剖와 歐羅巴의 作戰概念

- 二大戰略的 轉換의 據頭
- 基本設計
- 開發過程
- 技術的인 特徵
- 作戰面에 對한 考察

歐羅巴의 諸條件은 攻擊能力을 絕對性으로 하는 多用途戰術機가 무엇보다 時急하다. 戰略概念의 推移에 關해서 는, 第二章에서 略述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諸條件-即地地理的, 工業的인 條件, 國家財政과 技術的인 制約, 基地支援施設과 局地防空問題等-에서 오는 航空概念은 多用途戰術機를 要請하게 되었는 데, 비록 이렇다 할 제라도 美國의 F-105 D와 같은 高價의 航空機를 채택한다는 것이 歐羅巴 諸國으로서는 難問題가 아닐 수 없었다. 여기에서 歐羅巴 航空界의 脚光을 받으며 F-105 D와 더불어



미라지 III의 모습(주익 밑에 달려있는 것이「로켓·라운치」이다.)



미라지 III에 적재,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전 시광경

現代空軍 戰術機의 「雙璧」이라고 일컫는지는 安價, 簡便하고, 高性能인 Mirage III가 登場하게 되었다. 이러한 概念의 趨勢에서 過去 西獨當局에서 Mirage III 機種을 最終의 候補機로 登場되었으나, 對美國關係에서 오는 政治外交의 壓力으로 不得 F-104 G를 채택하게 되었다. 「一說」에 따르면 Mirage III의 優秀性을 示唆한 것이기다 하라(西獨, 濠洲空軍도 Mirage III를 채택했다) 우리의 경우도 機種選擇의 伸縮性이 附與되어 있다. 韓國의 立地的, 條件과 國家的인 諸條件이 歐

羅巴의 경우와 유사한 點에 비추어筆者는 次期의 戰術機로서는 斷然로 Mirage III 機種의 選擇을 自信있게 提議하고 싶은 것이다. 即 安價의 運管維持費, 整備移動의 簡便性, 高度의 性能等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實情에 가장 適合한 多用途戰術機가 아닐까 하고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近來의 數年間, 自由陣營의 「F-X 旋風」에서 Lockheed F-104 G와 함께, NATO 同盟國間에서 人氣가 高潮된 바 있고 西歐空軍의 代表機인 Mirage III에 關해서 小考하여 보고자 한다.

의 Mirage III 航空機의 原型이 如何로 設計되었는지, 改良되어 왔는가 하는 過程을 살펴봄으로써, 歐羅巴의 航空作戰概念의 推移樣相을 發見할 수가 있으며 同時에 現在의 우리의 條件을 檢討할 수 있는 好機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二大戰略的轉換의 擡頭

韓國戰亂當時, 美空軍의 航空機를 實戰에 使用해 본 結果, 重量이 무거울고, 機構가 복잡하며, 高價이어서 오히려 局地防空을 爲主로 하는 戰術

任務에는 不適合함을 發見하게 되었는데, 이때 歐羅巴自由陣營의 諸國은 增大되는 美國의 軍援에도 不拘하고 每年 國防費가 上昇되어, 이로 因한 財政的, 技術的인 制約 때문에 不得已로 輕擊戰機나, 小型戰術機(重量을 줄이고, 可及의 이면 安價의 航空機) 製作概念이 擡頭되었었다.

이때 프랑스의 空軍參謀部에서는 이러한 概念에 立脚해서, 輕擊戰機製作에 着手했는데, 特히 空中目標物의 追擊이나 交戰을 爲해서는 倍加의 出力을 얻기 爲하여, 小型제트엔진에 附加해서 「로켓」補助엔진을 가질 수 있는 航空機의 設計製作計畫을 進行시켰었다.

이 小型航空機의 利點은 比較的 重量이 가벼우므로(비록 出力은 弱하지만) 高速度와 上昇能力이 良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航空機는 目標物까지의 誘導을 全的으로 地上에 依存해야 되기 때문에 作戰行動에 制約을 줄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 小型航空機라는 것은 「미사일」을 空中에 한번 싣고 올라가다가, 다시 基地에 돌아오는 一種의 「空中停車場」 역할에 하지 못하는 事實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항공기의 攻擊航路도 地上에서 正確히 計算해서 誘導해야 하는 것이므로 敵機를 擊破할 때까지는 嚴別追擊이 困難하고 作戰効率は 매우 低下되기 때문이었다. 即 歐羅巴 諸國은 一九五二年에서 一九五四年까지 輕擊戰機製作, 設計의 着手했으나 프랑스에서는 Sud-est社에서 Durandal,

Dassault社에서 Mirage I의 登場을
경고한。

一九五四年에는 NATO理事會의提
議에 依하여 西方側의 戰略을 修正되
였으며 同 NATO의 Lisbon會議前
까지 軍事專門家들은 美國의 原子力
支援만 以하면 歐洲은 在來武器로서
도 能히 防衛될수 있다고 確信되었는
데, Lisbon會議에서 西方側 再軍備
問題를 討議하고난 經濟專門家, 政策
樹立家들은 美國의 軍援支援이 있되
라도 西歐諸國은 在來式戰略을 遂行
할만한 人的, 物的資源의 動員이 不可
能함을 認識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關係를 같이해서 NATO當
局은 基本戰略을 修正하여 NATO當
盟國은 在來式 防衛手段에 依存하기
보다는 核武器에 依한 大量報復策으로
써 防衛되어야 한다고 宣言함으로써
앞으로의 戰爭은 核武器使用을 前提
로 하는 樣相으로 突入하였던 것이
이다.

이러한 防衛概念의 進展으로 因해
서 輕邊擊機의 製作計畫은 試驗用以
外에는 量産前에 撤回되었으며, T-28
爆擊의 아니라 核武器攻擊을 假定하
는 限「防衛」라는 消極的概念은 이미
그 價値를 상실하게 되어 버렸다.

이런 첫번째의 反應은 輕邊擊機型
을 포기하고, 殘存하는 試驗機의 設計
案에는 地上「탄도」를 減少시키기爲
한 裝備를 改善하는 傾向이 나타나
었다. 最初의 Mirage III의 直接의
이후 變換에서 設計되었던 것이 是
Mirage I과 同한 主眼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地上 依存度를 減少시킬
수 있는 特殊電子裝備과 좀더 推力의
強한 엔진을 달아서 胴體를 크게 한

點을 이다. 이 Mirage III의 一九五六
年十一月 處女飛行을 한後, 冥의 試
驗飛行만으로도 充分히 Mach 1의 速度
에 到達하였던 것이다. 電子裝置에 以
어서 Mirage III는 空對空미사일의 火
力制禦系統과 目標物의 方向調整을 爲
한 裝備의 設置를 爲하여 胴體안에는
넓은「Space」가 있게끔 設計되었다.
Mirage III에 對한 研究가 계속되는 등
안, 프랑스政府는 量産이 具體화하기
前에 最初의 段階로써 一部 生産을 發
注하였다.

이後 一九五七年 八月에 또다시 다
른 戰略의 革命이 肇頭되었으니, 곧
소련首相「후르치코프」가 三〇〇〇—
五〇〇〇마일의 射程거리의 目標物
을 파괴할수 있는 ICBM의 實驗發射
成功을 宣言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
다. 當時 美소兩國은 모두가 다 獨逸
의 V2의 變形인 彈道誘導彈을 研究
開發시키 왔었던 것이 事實이나, 소련
이 드디어 장거리 목표물을 對한 大屋
破壞攻擊을 加할수 있는 武器를 所有
하게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結果로
歐羅巴諸國은 새로운 武器의 공포도
의 높아게 되었다.

核武器使用의 可能性이 登場된 이
後에 對空防衛라는 것은 爆擊機에 依
한 核爆彈攻擊이 아니라, 音速二〇倍
以上의 誘導彈에 依한 核武器攻擊으
로 轉換되었으니 이미 그 價値를 상실
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航空關係
專門家와 技術者들로 하여금 邊擊機
를 攻擊機로 改造케 한 第二의 動因
이 되었던 것이다.

一方 美國에서는 局地防空을 爲하
여 純邊擊機로 設計되었던 Lockheed
F-104가 急速하게 攻擊機로 變形되어

胴體의 構造裝備 및 武裝의 一大改造
가 進行되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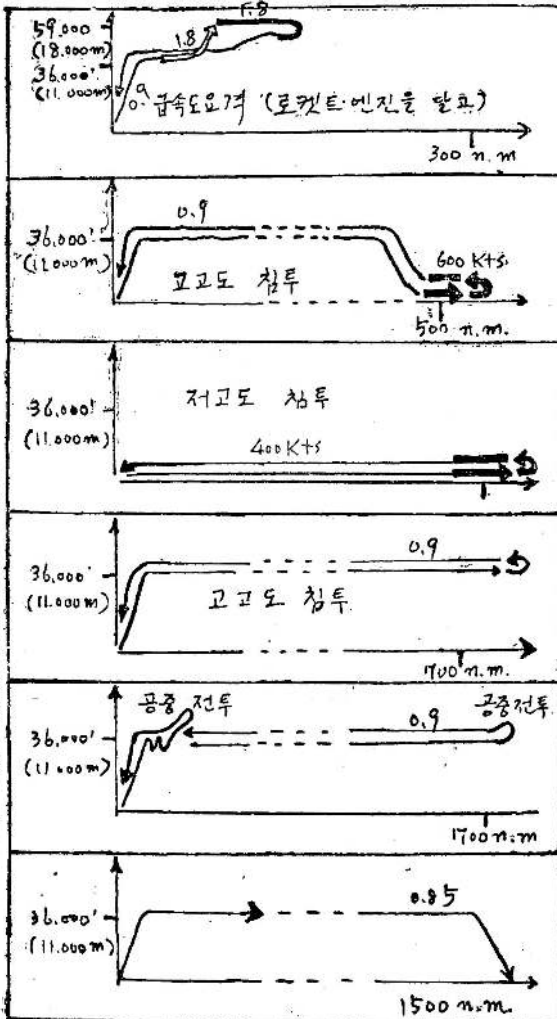
結局 Mirage III도 이러한 發達課程
을 밟아서, 防空과 高空에서의 邊擊
任務만으로 設計되었던 III C型에다
地上目標物의 攻擊任務等 多用途作戰
可能할수 있게끔 改造되었다. 特히
Mirage III에게 이 改造作業이 有利
하였던 것이 이 Mirage III가 大隊
級程度에서도 改造作業이 可能한 多
樣性있는 任務遂行을 爲한 多用途目
的으로 設計되었기 때문에 프랑스空
軍에 공인한 바가 그만큼 많았다. 이
러한 多樣性任務라는 것은 純邊擊으
로부터 攻擊과 偵察 및 爆擊等인 것
이다. 三角形의 Delta型 主翼은 比較
的 무게를 가볍게 하여 주고, 形體의
健全性을 維持케 하며 相當한 量의 燃
料을 容易하게 翼體에다 저장할수 있
는 利點을 주었으며, 프랑스의 設計
家들이 恒常制約받았던 推進力 問題
는 Dassault의 技術者들에 依해서 많
은 解決을 보았었다. 美國이나 英國
의 航空機製作會社처럼 高價의 強力
한 엔진을 使用할 수 없었으므로, 엔진
推力의 制限을 克服하고 高性能을 保
持하기 爲해서는, 航空機의 「抗力」을
減少시키는 點에 着眼하였다. 萬一
Mirage III의 美國系 航空機의 엔진을
裝備한다면 「아프타」나 「이」도 低
空中에서 超音速을 낼수 있는 優越한 性
能을 가질수가 있게 되는 多이다. 뿐
만 아니라 Mirage III가 本來 多用途目
的을 爲해서 設計되었던 만큼, 純邊擊
機에서 攻擊機로 變形하는데에는 別
困難이 없었고 改造가 可能했었고 이
變形은 航空機構造의 全面改造가 아
니라 一部 裝備와 武裝의 改良이라고

基本設計

미사일의 性能과 實用性이 開發됨
에 따라서 有人航空機는 이미 兵器로
서는 이 이상 意義가 없다는 論者가
增大되어 가기는 하나, 「미사일」과
「航空機」와의 競爭은 벌써 終止符를
찍었고, 國防政策樹立家들은 「미사일
과 航空機」의 併用案을 채택하기에 이
르렀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數年間
에 미사일이 비록 戰略的 見地에서 航
空機를 無用하게 만들더라도 各國이
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은 그러한 航空
機의 量産計畫은 아직도 戰術武器로
서의 航空機의 將來性이 계속 堅持될
것이 確實視되고 있다. 미사일을 그
開發 또는 製作費에 比해서, 파괴부
적을 考慮해 볼 때에는 再檢討의 餘地
가 있을뿐만 아니라, 誘導, 目標物探
知, 軌道裝置가 必要하고, 計算機, 安
定器, 自動操縱裝置 및 高價이면서도
脆弱性이 많은 地上레이더網에 依存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最善의 方法이란 「미사일
과 航空機」를 併用한 一即 目標物에
까지 能히 武器를 運搬할수 있는 融
通性이 있고 高度의 機動性이 있는 有
人航空機에다 大量과파가 可能한 미
사일을 結合시키는 方法인 것이다. 이
러한 「미사일」과 航空機를 併用하는
限界는 매우 細心한 問題를 提示하여
주는데, 機體의 너무 많은 電子裝備
를 設置하면 武裝系統의 거치장처럼
게 되고, 反對로 미사일調整과 誘導

〔圖表〕 6. Mirage III C의作戰 遂行圖



→ 제트 엔진 (아프라-바너 없이)
 → " (아프라-바너)
 → 제트엔진 (아프라-바너) 및 로켓 엔진

- 가. 요격
- 나. 지상군 지원
- 다. 장거리 지상목표 공격
- 라. 사진 정찰임무
- 마. 제공초계임무
- 바. 장거리 전개

裝備가 많으면, 製作費가甚大하게된
 다는事實인 것이다.
 再言하건대, 現代의 航空機의 以의
 서, 戰術武裝系統이 遂行해야 할任
 務를 大別한다면,
 ○ 高空으로 侵入하는 敵超音速爆
 擊機의 對한 遂擊
 ○ 地上軍에 對한 支援
 ○ 戰鬪地域內의 地上目標物에 對한
 戰術的攻擊 및 敵通信網의 파괴
 ○ 短距離偵察
 等으로서 이는 機動性確保, 脆弱性
 및 高價의 地上基地施設로부터의 獨
 立問題 또는 作戰準備態勢나 最安價
 의 製作費問題와 關聯되는 것이며,

Mirage III C의 武裝系統을 設計하는
 的인도 當面된 難問題였던 것이다.
 Mirage III의 開發課程
 Mirage III의 開發系統을 살핀다면,
 ○ 一九五五年六月二十五日—Mirage
 I (M.D. 550) 型機가 最初飛行
 — 곧 Mirage I가 試驗飛行에 成
 功—
 ○ 一九五六年十一月八日—Mirage III
 — 001 號機가 處女飛行
 — 이후 二年間 二〇〇回의 無事
 故試驗飛行—
 — 一〇臺의 Mirage III A가 製作
 됨—

○ 一九五八年五月十二日—一〇臺의
 Mach 2가 試驗飛行
 — Mirage III A가 到達하였음—
 — 로켓의 엔진 試驗成功—
 ○ 一九五八年九月—프랑스에서 一〇
 〇臺의 Mirage III를 發注하였다.
 ○ 一九五九年六月十八日—Mirage III
 A가 100 km 周回 코스를 時速
 1,758 km 로 世界記錄을 樹立했
 다.
 ○ 一九六〇年末—二四〇臺의 Mirage
 III의 發注
 — Mirage III C 量産着手—
 ※ Mirage 系 航空機
 Mirage III B—複座型의 操縱練習機兼
 遂擊機(一九六〇年十月二十一日

(完成)
 Mirage III E—長距離侵襲戰鬪機(胴體
 가 30 cm 徑의 上部에 Doppler
 radar, SEPR 844 補助 로켓의
 엔진付)
 Mirage III R—寫眞偵察機
 Mirage III O—海外輸出用機(Rolls-Ro-
 ys 引擎 RB-146 具 4 具 4 具 2 具
 具의 장거리 引擎)
 技術的인 特徵

機體(Airframe)—在來式 輪軸型의
 「Delta」型 날개(△度後退)로 속도
 변화에 서 생기는 急激한 抵抗增加를
 防止하여 주는 利點과, 距音速에서 超
 音速에 이르기까지의 必要한 揚力과
 運動性을 確保해 주는 長點을 갖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長點은 두
 點이다. 主翼 밑의 部分品이나 運搬
 物의 裝着, 可能點, 左右兩翼의
 補助翼과 昇降舵를 兼한 「Elevon」
 「Trimming flap」이라 固定하고
 있다. 「Air brake」도 補桁(Leading
 edge), 主桁(Main spars)사이의 固
 定되어 있다. 特記할만한 點은 「en
 bloc」各部分 組立式의 스텝이기에 便
 의 爲에 各部分의 組立을 容易하게 代
 置 시킬 수가 있다. Mirage III가 普通
 型의 補助翼에서 나트린 一級道路
 에서도 能히 運搬할 수가 있다. 이 有
 利點은 確實히 航空機製作의 附加
 的 經費를 省할 수가 있다.

胴體는 主 OSF Gyano 補구 Ferr-
 anti Airpass 火力制禦系統과 爆彈發
 射系統을 포함하고 移動式「Nose」를
 갖고 있으며, 뒤의 主翼壓式이 兩分
 離된 操縱席이 있다. 그 뒤의 Bendix
 doppler 레이다가 있다. 胴體의 다
 數部分에 「Nose wheel」 bay 와
 交換式裝備品室이 있고, 側面에 圓
 錐型의 空氣吸入口가 있다. 胴體의 各
 部分은 燃料탱크와 Main gear
 의 格納室과 補助裝置의 設置를 爲한
 平면적의 「Space」가 있다. 胴體의 各
 部分은 「엔진과 로켓트 엔진이
 있고, 尾翼이 後面에 달려 있다. 프
 레-이키裝置인 換縱士에 의한 「Petat」
 式外에도 非常時의 換수인 「Hand」
 브레이크가 있는 「Drug-schute」와
 油壓式 브레이크의 使用으로 着陸滑
 走距離를 短縮시켜 주고 있다.

三輪式 降着裝置는 油壓式으로 胴體
 안에 沈하됨이 가능하여 있으며, 二低
 壓타이어는 假設滑走路에서도 離着
 陸을 可能하게 해 주기 때문에, 降

리트滑走路가 아니라도 降하는 利點
 을 갖고 있다.

엔진(Engine)은 Mirage III의 引擎
 은 「아르파」라고 하는 最新 SNECMA
 ATAR 9C 2개의 엔진을, 空氣中
 Mach의 數에 따라 自動的으로 吸
 整되도록 二個의 圓錐型空氣吸入口에 吸
 入되어서, 好條件에서는 大氣壓力로
 다 五·五倍나 強한 壓力를 產生할 수
 있는 九段式壓縮器를 通해서 環型燃
 室에 點火된다. 一般回轉速度는 四〇
 〇〇rpm에서 Mach 2의 最高推力보다도
 二%나 強한 超速度를 내어 준다. 最
 高推力에 必要한 燃料量은 2 lb/lb/h
 보다 若干 強코 「아르파」보다 輕이 飛
 行할 때에 1 lb/lb/h 이하로 省
 程度이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特微
 을 列舉할 必要가 있는데, 이는 正面
 推力對表面(Frontal area)의 sq.ft.
 當 「八〇〇」파운드 推進力對 重量은
 파운드當 四·七九, 海上에서는 九·三
 七〇파운드의 推力, 「아르파」바다를
 使用할 때 「三三〇」파운드까지의 推
 力을 내며, 엔진과 各溫度는 燃料
 供給과 펌프(Pipe cross-section)에 依
 해서 自動的으로 調整된다. 點이다.
 또한 엔진分解의 簡便性은 注目할
 만한 點으로서, 네온에 附着되어 있
 는 胴體의 後尾翼部分을 脫고, 역시
 네온에 附着되어 있는 「Pyon」을
 제거하면 各部分의 「홀」(Kral)을 따라서
 容易히 分解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空氣吸入口는 胴體의 後面에 有
 「境界層」(Boundary layer)의 空
 氣吸入을 阻해하지 않게 되어 있다.
 燃料裝置는 均衡하게 積藏할 수가 있
 는데, 두個의 貯藏탱크와, 主翼 밑에
 한個의 탱크를 갖고 있다. 航空機가

背面飛行할 때에 燃料供給을 爲해서
 操縱席위에 補貯藏탱크가 있다. 그
 외에도 로켓트 엔진을 使用하지 않
 을 때의 調整, 前後方의 裝備庫수의
 貯藏目的을 爲해서 SEPR-841 液
 體燃料로켓트 엔진을 主엔진위에 裝
 備할 수가 있는데, 燃料은 Triethyl-
 lanin(트리에틸라민)과 Xyldine(사
 이리딘) 및 酸化硝酸의 混合物이다.
 이 두 混合液體燃料의 燃焼比率는
 一推力(六·五)파운드(三三〇)파운
 드(三〇)파운드에 發動, 調整, 安全裝置
 등 모두 自動式이다. 酸素탱크는 七九
 三磅인, 硝酸은 一〇〇五파운드를
 積藏할 수가 있으며, 各部分에 有한 低空
 外 附屬補助裝置를 포함하여, 低空
 飛行에서도 安全하게 降下시킬 수
 있는 小소실과 降落기어는 있다. 이 酸
 素탱크는 各部分에 內藏되어 있다. 「유
 스텝」(Flask)과 連結되어 있다. 이 液
 體燃料탱크는 四〇磅인 「트리
 치라민」과 「二八〇」파운드의 「사이리
 딘」을 積藏하는 데 濫擊任務時에만 使用
 된다.

操縱(Flying control)은 操縱杆
 來式 操縱杆와 方向舵로서 한다. 操
 縱杆의 作動은 機械的으로 自動操
 縱을 해 주고 「Amédée」라고 부르는 特
 殊裝置가 있어서, 必要한 움직임을
 막아 준다. 電氣式 「피스톤」 「피스톤」
 을 「아르파」 네個의 「Elevon」이 自動
 的으로 依해서 作動되므로, 各已
 分離되어 있는 油壓回路(Hydraulic
 circuit)의 連結되어 있다. 이 如한 安
 全性은 最大의 作戰을 保障해 주는 것
 이다.

方向舵(Rudder pedal)의 移動은 電
 氣油壓式으로 自動操縱系統을 爲하여
 는 電氣衝動으로 作動되므로, 動格量
 減少시켜 준다. 「Trimming flap」의
 操縱杆의 位置에 따라서 電氣油壓式
 自動操縱의 依해서 自動的으로 作
 動하게 된다. 「Level」이라 「水平安定器」
 (Stabilizing gyro)가, 自動裝置의 訂
 正을 爲한 指示를 發하여 움직이므로, 如
 何한 條件에서의 비행에서도 動格量을 自
 動的으로 減少시켜 준다.

이러한 機能을 遂行하는 自動操
 縱裝置가 있는데, 卽 轉位の 除去
 「G」發生の 調整, Mach 數值와 비
 영고도의 修正, 自動的인 「Roll」과
 「Pitch」等의 役割을 한다. 故로
 操縱士가 어느 때에도 間에 自動操縱
 裝置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가 있게 되
 는 것이다.

- 油壓系統(Hydraulic system)은
 ATAR 1-1인 依해서 連結된 두
 개의 탱크와, 自動油壓回路의 源泉이
 된다. 兩 탱크나 回路第一은 操縱機
 能을 圓滿하게 하는 하나의 電氣피스톤의
 補助裝置를 가지고 있다.
 回路第一은 아르파와 같은 依해서
 한다.
 一 主操縱機關의 一次의 作動(Nor-
 mal system)
 一 「엔진」의 正常油壓作動
 一 「브레이크」와 「어어」 브레이크
 (Air brake)
 回路第二은(備用回路 裝置)
 一 主操縱機關의 二次의 作動(Alter-
 nate system)
 一 「Wing-flap」의 作動 操作
 一 「엔진」의 非常油壓作動
 電氣系統(Electronic system)은

高度 또는 低空에서 사진촬영을 하되
 1. 再次 三六〇〇피트의 高度로
 歸還한다. 이 때의 항속거리가 1,500
 n. m (2,770 km), 行動半徑이 700n. m
 (1,300 km) 가 된다.

마, 制空哨戒任務

30 m/分機關砲 二門과 必要에 따
 라서 空對空미사일 一發과 「로켓트
 · 라우치」一個를 胴體下面에 장착한
 다. 연료저장량 一,三七〇 갤런, 總重
 량 二,三八〇 파운드로 離陸한다.

高度 三六,〇〇〇 피트에서 Mach
 0.9의 高度로 巡航한다. 항속거리가
 1,500 n. m (2,770 km), 行動半徑이
 700 n. m (1,300 km) 達한다.

마, 長距離 展開

胴體內燃料 七四〇 갤런외의 三個의
 補助탱크를 달고서, 연료총저장량은
 一,六四〇 갤런以上이 된다. 離陸總重
 량은 二,四三〇 파운드以上 達하고
 高度 三六,〇〇〇 피트로, 最良經濟
 速度인 Mach 0.85 로 航行한다. 이

種의 항속거리가 1,600—1,800 n. m
 (3,000—3,300 km) 에 達하게 된다.

以上의 Mirage III C의 概觀인데,
 아직 도이 항공機身 適應能力 方面과
 저속도인 美國의 F-106, F-110 等
 해서 劣한 點이 있고 있지만, 翼面積
 이 넓은 利點을 고쳐서 적재능력을
 增加한다면 보다 높은 戰術戰術機
 로 開發될 餘地가 많은 것이다. 特別
 Mirage III은 構造가 簡單하고 簡易
 飛行場에서도 離陸可能하므로 空
 地協同戰術作戰에는 극히 有利한 것

이다.
 또한 容易하게 機體分解가 可能해

서 簡單히 移動할 수가 있는데 12.5 m
 의 大型추레라이프 能의 推進력(幅
 2.5 m, 推力 3.8 m, 길이 13.6 m 의
 추레라이프) (歐羅巴의 一級道路에서
 移動이 充分한 點이다. 뿐만 아니
 라 「VTOL 型」으로의 開發이 研究되
 어 Mirage V의 研究가 期待되는데만
 큼 없이도 계속 有望한 多用用途戰術
 機의 「참모인」으로서 그 位置는 不動
 할 것이다. (次號에 完)

冷戰과 國際共產主義



현대에 있어서 가장 슬픈 현상은
 제2차대전이 끝난후 十七년동안이
 나 여전히 계속되는 「냉전」이라 하
 겠다. 그런데 이 냉전이 생겨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
 는가. 대개는 미소양국의 감정적
 갈등이라고 말할지만 사실은 보다
 더 깊은 요소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그것은 소련이 國際共產
 主義路線을 관철하려 들고 있기 때
 문이다. 소련이 공산주의국이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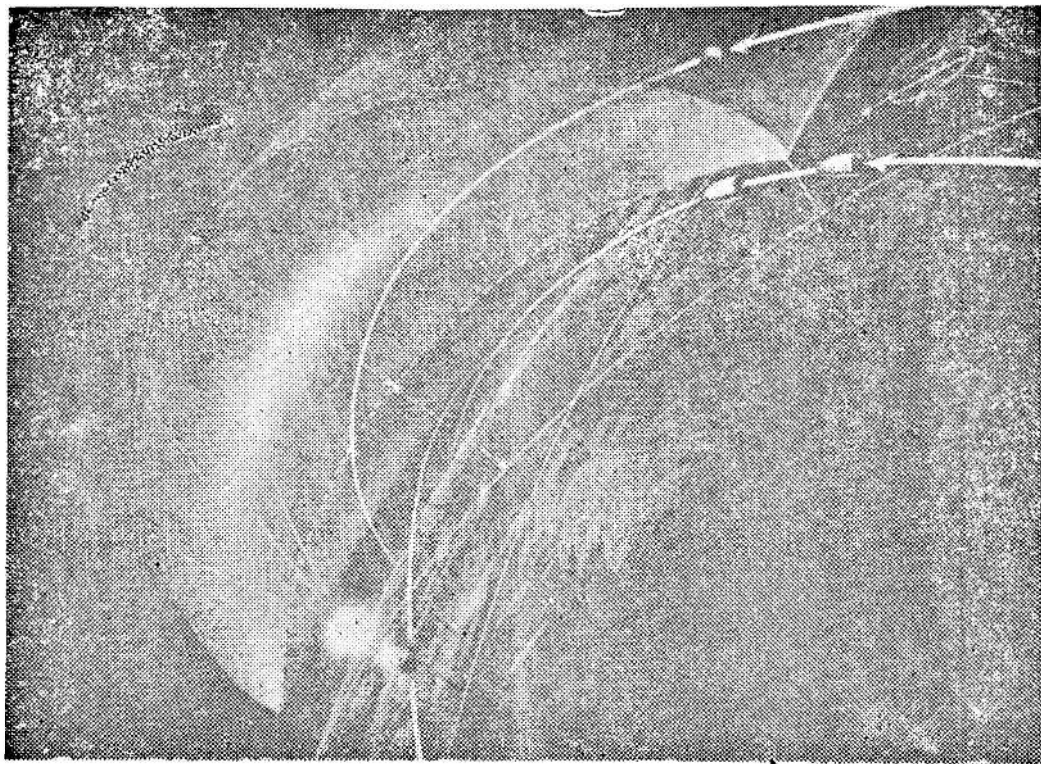
서 그 자체가 세계의 위협이 되지
 는 않는다. 소련이 帝政이면 民主
 이면 共產이면 그것은 그 나라 국
 내문제에 끝나는 것이겠지만 단지
 소련이 다른 나라로 하여금 제 나
 라와 같은 정치체제로 만들도록 하
 는 것—즉 세계赤化의 야망을 가
 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
 단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세계의 위협인 것이다. 이것만
 이었다면 소련에 대하여 不信感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세계自
 由國家群이 소련과 共存해서 알릴
 이유도 없다.
 그런데 현실의 소련은 自由國家群

으로 하여금 이점에 있어서 안심해
 도 좋다는 근거는 하나도 보며 주지
 않는다. 소련은 제1차 대전후 두
 번국이 된 리트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를 병합하고 제2차 대전
 말기에는 배럴을 향해서 진격하는
 도중, 폴란드를 공산국으로 만들고
 백린이 합다하자 그 여세로 東歐諸
 國을 모조리 赤化하였다. 최후에
 손질한 것이 체코이며 베네슈 대부
 령을 실각시키고 공산정권을 세웠
 다.

이와같은 경과로 보아 소련의 손
 이 닿는 곳은 모두 공산국으로 만들
 었는데 이것은 소련이 철학자임을
 입증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 하겠
 다.
 소련은 입을 열 때마다 國際國產
 主義란 우리가 모르는 노릇이라고

주장하지만 前記한 實例에 비추어
 볼때 그것이 거짓말임은 의심할 여
 지가 없다. 만일 소련이 國際共產
 主義路線을 포기하였다면 自由를 요
 구하는 항가리 사태가 일어났을 때
 탱크를 동원하여 그들의 절실한 요
 구를 잘고 무찌르지는 않았을 것이
 다 현재 東歐의 위성국치고 소련의
 武力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공산정
 권은 하나도 없다. 결국 따지고 보
 면 소련은 武力으로 세계赤化를企
 圖하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자유제
 국은 소련을 不信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때문에 냉전은 계속되
 는 것이며 따라서 냉전의 원인은
 소련의 國際共產主義路線에 있음이
 分명한 것이다.



有人機와 無人機

洪 聖 杓

<空軍 少領>

地球上에 人類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을 征服하였다든 꿈과 宇宙를 憧憬하는 생각이 깃들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옛날 古代의 그림자나 小說 또는 詩에 보면 莫然하나마 하늘을 날으는 想像의인 「테이마를」 내놓고 그렸으며 또 쓰고 읊었던 것이다. 그 중에 가장 特異하였던 것으로는 佛蘭西의 「몽트윙」이 「달속의 남자」라는 小說속에서 하늘을 날으는 夢想의 航空機를 그리고 썼는데 그림을 보면 나무대에 여러마리의 새를 매어 달고 뜻의 役割을 하는 輪轆을 달은 것을 가지고 人間을 飛行시키는 空想書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한낱 新奇하고 웃은 存在로밖에 생각되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奇拔한 着想에서 나온 空想小說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如何든 人類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없을까 하고 苦心하면서 研究한 것만은 否認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레도 오늘날과 같은 航空機의 꿈을 現實에 옮길려고 設計하였던 사람은 西紀一四五二年에 誕生하여 一九一九년에 죽은 伊太利人으로써 「루네상스」時代의 偉大한 藝術家이며 科學者이고 또 技術者이었던 「레오나르다 빈치」라 할 수 있다. 이 「레오나르다 빈치」는 새가 날으는 데에 對한 책을 남겼는데 이것이 現存하는 科學의인 航空研究의 가장 오랜 文獻으로, 그 내용을 보면 모두 四章으로 되어 있는데 第四章에는 飛行機械의 構造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研究의 結果로서 날개 붙인 飛行機 落下傘 그리고 「펠리클타」의 模型을 製作한 것은 有名한 이야기이다.

勿論人間이 搭乘하지는 못하였지만 想像해서 製作한 模型이 오늘날 航空技術의 研究課題가 되어 論議의 對象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劃期的인 發展인 것이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航空機에 關係研究해 왔으나 動力不足으로 사람이 搭乘하지 못한 無人航空機만이 많이 나왔었다.

그런데 오늘날 「하늘을 制覇하는者 世界를 制覇한다」고 말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말은 이미 一七世紀에 伊利太人이며 僧侶였던 「후라체스크트」라거나 「說破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萬一 人間이 하늘을 飛行할 수 있는 機械를 完成한다면 攻擊武器로 해서 可惡한 威力를 發揮하여 人類의 不幸을 招來할 것이다」라고豫言하였던 것이다. 이豫言이 오늘날 宇宙科學이 極도로 發展하여 달로까지 如前의 世界를 征服한다는 이 마담의 素爆彈을 積載하고 全世界를 震동시키려는 데 앞장 서고 있는 것이다.

이미 航空機의 威力를 地球上에서 世界를 制覇하기에 時代에 뒤떨어진 感을 주기는 하나 이 航空機가 人間이 搭乘하고 史上 최초로 出現하기에 는 너무도 早하고 있는 바와 같이 西紀一九〇三年十月十七日 美國의 「라이트」兄弟가 動力을 붙인 複葉機를 타고 五九秒間을 飛行하나 今는 成功하였던 것이다. 이 「라이트」兄弟의 複葉機가 成功하기까지에는 其間 많은 사람들의 勞力으로 이루어진 人間이 搭乘하지 않은 無人機의 無數한 失敗와 成功에서 나온 所産으로서 그렇게 되고 보면 有人機도 無人機의 連續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有人機나 無人機나 하는 語句自體가 오늘날 宇宙科學時代에 와서는 區分할 수 없는 莫然한 言辭로 되었거나 航空機라는 말 自體까지도 무엇을 어떻게 基準느냐에 問題에 人間이 搭乘하고 하늘을 날은 機械이라든 無條件 飛行機나 할 程度이었는데 宇宙人間衛星이 出現하면서 부터 옛날의 概念은 一掃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宇宙人間衛星은 實際로 飛行하는 것을 目擊하지는 어렵지만 外部로 로켓의 推進力으로 一定한 軌道에 上昇하여 날개없이 惰性에 의하여 地球의 引力圈內에서 回轉하는 둥근 공과 같은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飛行機라고는 할 수 없다는 否定論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否定論은 바로 現實을 두고한 말이며 一九六五年頃부터 人間은 月世界를 征服하기 위하여 地球로부터는 로켓의 推進力로 달 周圍까지 飛行한 후에는 달에 着陸할 때에는 그 飛行체가 現航空機 모양으로 製作되었으므로 人間이 航法裝置로 操縱하면서 着陸하였다가 처음에는 一週日 經過後 다시 地球로 歸還할 때 하여 着陸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現航空機와 差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相異點을 發見할 수 없다는 것이 率直한 理致일 진대 航空機의 概念을 어디에 歸着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航空機와 宇宙人間衛星을 區別하는데 努力하고 또는

概念을 뚜렷이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有人機와 無人機나 하는 데 焦點이 있는 것이다.

有人機는 「라이트」兄弟가 開發하여 오늘날까지 人類를 爲하여 平和적으로 많은 貢獻을 한 反面에 軍事武器로도 많은 活躍하여 왔는데 이러한 航空機도 結局은 人間이 搭乘할 수 없었던 無人機로부터 改良發展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有人機의 發展은 한 種類의 有人機를 無限히 存續시키면 人類를 爲해서 使用되는 것이 아니고 科學이 發展함에 또 다른 航空機가 出現함으로써 廢物化되는 運命을 免치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一九五七年八月에 소聯이 世界 최초로 IOBM을 成功시킨 후에는 豪言하기를 오늘날의 모든 軍用航空機는 「용광로」에 들어갈 古鐵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였거나 그의 豪言은 어디까지나 豪言에 지나지 않으며 豫言은 아니었으나 이豫言이 있었다면 比較的 魅力的인 豫言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IOBM이 實戰用으로 되고 人間爆擊衛星까지 出現하게 된 現在에 와서 過去の 航空機는 軍事武器로는 廢物化段階에 머지 않아 突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變遷하는 科學發展은 新銳航空機가 出現하는데 이 現狀은 우리 나라에서 直接目擊할 수 있고 體験할 수 있는 일로써 韓國戰爭中 我空軍에 의하여 共產軍을 強打하는데 많은 功績을 樹立한 B-51 Mustang 機는 P-51 機이 었기 때문에 性能上 Jet 機에 對抗하지 못함으로 廢頓되고 몇年前까지만 해도 新銳戰術機라 自處하던 F-80가 導入되었는데 이 F-80도 머지

않아 이 나라에서 자취를 감출 運命에 處하였으니 얼마나 軍事科學이 發展하고 있나 하는 것을 可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廢物化된 航空機는 永遠히 古物化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第二次大戰中 爆擊機로서 世界各處에서 큰 活躍을 한 B-29는 大戰終了와 同時에 誘導彈의 出現으로 한날 標的機로서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QB-1인 것이었다. 앞의 Q字의 標識은 B-17를 標的機로 改良하였다는 뜻으로 이러한 類例는 韓國戰爭當時 瀋州로 戰團機로 認識되었고 世界 최초로 實戰에 Jet 戰團機로 出戰한 F-80 Shooting star 戰團機는 그時 QB-80으로서 亦是 誘導彈標的機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新銳機는 來日의 無人機로 다시 出現하게 되는 것이다.

有人機가 無人機로 轉換된 例는 標的機에서만 이었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原來부터 無人機로 發展시킨 것이 出現하고 있다. 最近 外誌에서 보면 無人機로서 各種 科學裝置를 積載하고 地上의 誘導를 받으면서 航空機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敵의 前後方을 偵察飛行하면서 寫眞撮影 또는 Radar 電送情報을 提供하는 일까지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無人偵察機는 亦是 戰團機나 爆擊機를 改良한 QB, QB 標的機와 같이 射擊標的機로도 使用하는데 이터 無人機中 가장 性能이 優秀한 것이므로 作戰用으로 美空軍에서 使用하고 있는 Q-45 Target drone 이로서 最大速度는 音速二倍이며 上昇高度는 7,000ft 이고 飛行時間은 六〇分

間이나 되는 것이다. 이 외에 無人機로는 오늘날에 와서는 液體와 固體로 케트가相當의 發展하고 또 ICBM과 같이 大陸間을 攻擊할 수 있는 核彈頭 彈道彈이 實戰用으로 配置됨에 따라 美海軍에서 實戰用으로 就役시키고 있는 Regulus I 기 地上對地上 誘導彈이라 Turbo-jet Engine를 裝着하였기 때문에 音速 0.9로 飛行하나 攻擊距離가 1,000哩까지 飛行할 수 있었으나 速度가 늦기 때문에 一線에서 물러나 廢棄됨으로서 Regulus I 號는 無人郵便物 運搬機로 改造된 것이다. 이 Regulus 無人郵便機는 地上에서 JATO나 RATO에 의하여 地上으로부터 誘導彈과 같이 發射되나 飛行할 때부터 無電으로 誘導되다가 着陸하는 것이다.

이러한 例로 Regulus I 號란 아 니고 우리나라의 駐韓美空軍의 導入하였던 Matador 号 Turbo-jet를 裝備하였기 때문에 速度가 늦어 韓國戰線의 數個月前의 撤收시켰는데 이 Matador 号 核爆彈代身 貨物을 積載하고 發射한 後日標地에 가서는 落下傘의 依해서 着陸하게 된 것이다. Turbo-jet을 裝備하였는 誘導彈中에는 美空軍의 射程 5,000哩의 大陸間誘導彈이 있는 Snark가 있는데 이 Snark 誘導彈은 그의 射程距離로 보아서 앞으로 核彈頭代身의 貨物을 利用하여 大陸間을 運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短距離이란 Regulus I 号 無線指令으로 Matador 号 Radar 指令으로 誘導되어 目的地까지 飛行할 수 있었지만 大陸間을 飛行하는 Snark는 天體慣性으로 誘導되는 것이다. 天體慣性方法에는 天測航法調整方法과

地測航法調整方法이 있는데 天測方法은 海上의 배가 北斗七星을 보고 航行하는 Snark를 各種 星座의 引力에 調整하여 誤差를 修正하면서 慣性誘導로 飛行하고 地測方法은 地球의 引力, 地磁氣, 氣壓等을 利用해서 彈體內의 慣性誘導로 飛行하게 된 것이다. 두가지 方法中에서 이것은 彈體內의 慣性誘導로 飛行하게 된 것인 一致된 點인즉 慣性誘導는 앞으로 人間이 搭乘한 航空機나 宇宙船을 無人化하게 하는 것이다. 即人間이 操縱하지 않고 다만 計器板만을 監視하는 것인데 慣性誘導는 速度를 一種의 加速度에 依해서 決定하는 方法으로 이 加速度에 Gyro 機構의 作用됨에 依하여 加速度에 依한 速度를 計測하는 것이다. Gyro의 原理은 너무나 普遍化되었기

에 論述하지 않으나 이 慣性誘導裝置에 依한 飛行의 精密度가 높 으나 하는 것은 一九五三年 二月八日 次大戰中 超亞基爆擊機의 乘員인 日軍의 慣性誘導裝置를 積載하고 있었던 操縱士 C.L. 코린스외에 七名의 科學者와 空軍技術者가 搭乘하고 「로스톤」市를 離陸하여 十三時間後에 「로스톤」二一哩 떨어진 곳에 到達하였을 때 소리가 요란하게 남으로 前方을 보니 까 目的地인 「로스안젤스」國際飛行場의 앞에 도착하였는데 이 때 十三時間은 操縱桿을 一番도 操縱하지 않고 飛行한 것이로서 그때의 慣性誘導裝置는 重量이 二七〇〇磅이었는데 조그만 房 小型的 것이요 大陸間彈道彈은 重量이 二萬磅 정도인 彈道를 慣性裝置에

定하여 주고 發射하면 敵의 妨害없이 目的地까지 飛行하는 것이다. 誘導彈은 어디까지나 地上의 指令에 依해서 飛行하지만 慣性裝置를 가진 彈道彈은 自體內의 裝着한 Gyro의 作用으로 飛行하는 것이다. Gyro의 原理로 作用하는 慣性裝置는 앞으로 超長距離에 位置한 月世界를 비롯하여 如何한 惑星까지도 人間이 搭乘하였다 하더라도 操縱하지 않고 旅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最近 慣性裝置의 精密度에 따라서 ICBM의 核彈頭 命中率이 優秀할 뿐만 아니라 宇宙圈 旅行에도 誤差가 極少한 部分에서 到達할 수 있음으로 Gyro를 改良 發展하였는데 只 今까진 Gyro 內의 酸素가 侵入하여 오랜 歲月을 使用하면 内部金屬의 酸化됨으로써 壽命을 短縮하여 美國 제네럴 모터스(General Motors)의 技術者는 最近 「LO-OX」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스켈」을 開發했다. 이것이 바로 Gyro-scope의 諸機械의 酸化를 減少시켜 미사인 内部誘導의 信賴度를 높이는 方法인 것이다. 이 「시스켈」은 「페아링」의 潤滑劑中에 極微量의 酸素가 大陸間彈道彈의 生命이라고 할 수 있는 Gyro-scope의 正精度를 減少시킨다는 것이 發見된 後 開發된 것인데 一分間에 約 二二〇〇〇轉의 比率로 1回轉하는 Gyro-scope의 車輪과 「베어링」보다 極微量的의 潤滑劑가 들어 있다. 그런데 이 潤滑劑가 酸化하면 이 Gyro-scope는 效果의 作用을 할 수 없고 이 「시스켈」全體가 結果의 正精度가 喪失한다. 이 LO-OX 方法은 Gyro 機械에서 酸素는 除去하기 爲한 三段階의 方法이 使用되는데 第

一段階는 眞空으로 만들고 다음에는 眞空속에 「헤리움」을 充慎시키고 끝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 酸素는 特殊한 裝置로 燃焼시키는 것이다. 慣性誘導는 正確하고 精度가 얼마나 重要な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을 立證하여 주는 데 이것으로서 軍事武器의 命中率을 높였지만 앞으로는 宇宙圈을 旅行하는 人間의 搭乘을 必要로 하나 操縱하지 않고 長距離를 飛行할 수 있음으로 마치 無人機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無人機는 繼續的인 發展으로 有人機가 出現하게 되었고 有人機는 次의 無人機로 轉換하는 一方보다 高次の인 推力에 依하여 地球中心의 航空界가 宇宙圈까지로 擴大됨에 人間이 搭乘한 宇宙機는 慣性誘導에 依하여 操縱하지 않고 無人機와 같이 長距離를 旅行하게 되었으니 結局 有人機와 無人機의 概念은 慣性誘導裝置를 設置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렸었다 하더라도 過言이 아닌 것이다. 最初에는 人間이 搭乘한 要件을 가지고 有人機 無人機로 區別하였으나 機械가 發展되고 速度가 高速化됨에 따라 人間의 操縱으로서 旅行할 수 없게 되어 慣性의 作用으로 飛行하게 되었으니 人間은 有人機 無人機의 概念의 要件이 되는 것이 아니고 慣性裝置의 노예가 되어 한낱 運搬物의 지니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고 보면 人類의 念慮이 없던 하늘을 征服하여 보다 빨리 그리 고 보다 멀리 飛行하였던 옛날의 夢想은 現實으로써 實現되었으나 人間의 製作한 機械로 人間이 無人化됨으로써 有人機와 無人機가 아니고 人間이 搭乘한 無人機가 된 것이다.

空軍 10 大 紀 實

백찬 國家再建에의 보람 찬 課題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받아왔던 「1962년」은 그 찬란한 업적들 淸史에 새기며 歷史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하늘의 방패」로서, 또 「혁명과업수행의 선봉」으로서 지난 일브동안 우리가 수행한 일들은 많고도 많았다.

이제 우리의 활주로, 푸른 유니폼 주변에서 일어나 일들을 더듬어 1962년을 회상하며 내일을 기약코저 한다.

張盛煥將軍 七代參謀總長에 취임

(八月一日)

임기만료로 퇴임전역하여 駐中大使로 임명된 진 참모총장 金信장군의 뒤를 이어 張盛煥장군이 第七代空軍參謀總長으로 취임하였다.

8월1일 본부광장에서 대외귀빈 및 각급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된 동 이취임식상에서 퇴임하는 김장군은 二十년간의 절친 군부에서의 조종사생활을 회고하면서 비록 많은 정든 군우를 떠날지언정 마음은 언제나 배극표지를 달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젊은 보라매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이임사조써 우리 공군의 무한한 발전을 축원하였으며, 신임 장성참모총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재건과업과 국방의 임무를 행으로 부과되어 노벨보다 우리의 원심적 충성이 요구되는 책임을 지게 되고 첫째 열등단결 둘째 지부의 애국적헌신 셋째 기술 및 행정의 과학적 발전 리운용 등 三大용술방침을 하달하면서 지금까지 찬란히 계승되어온 공군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신성한 국방사명과 국가재건과업수행에 일층 분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모차장에는 공군소장 박원석장군이 임명되고 작전참모부장에는 공군소장 장지량장군, 행정참모부장에는 공군준장 오철석장군이 각각 임명되었다.

東洋第一의 航空廠竣工

(五月二九日)

명실공히 東洋第一의 규모와 시설을 파시하는 항공창이 준공되었다. 국고약 一억八천만원 二樓七〇만을 도합 五억三천만원의 막대한 금액과 三년의 건설기간 그리고 국내외의 기술진이 총동원된 동창의 준공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리하여 오던 각종 제트전투기, 수송기, 빛유관 항공기를 국내에서 우리힘으로 창정비할 수 있게한 것이다. 가장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정비 시설을 가진 항공창을 각종 미군용기를 포함한 국내의 각종 항공기를 수리 정비하고 있는 바이의 준공은 우리 기술진의 커다란 개입은 물론 공군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光州基地 起工

(十月三〇日)

신예기 도입을 앞두고 공군력 증강에 커다란 초석을 놓을 광주 공군기지가 十月三十일 하오 二시반 기공되었다. 단로 증강되어가는 북과 공군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방력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이때 현대적이고 대규모적인 공군기지를 증설한다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 기지가 준공되면 공군력 발전은 물론 민간항공 발달에도 기여하는 바를 것이다.

續出하는 萬時間 無事故飛行記錄樹立

이 해는 풍성한 비행안전의 열매를 수확한 해였다. 속출하는 무사고 비행 시간들과 기록은 그동안 끊임없는 전기연마로 쌓아올린 고도의 조종술과 정비기술을 내의에 파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즉 지난 七月 五일에는 十전투비행단, 七月 二十五일에는 十一전투비행단, 八月 一日에는 제 一훈련비행단—이렇듯 각 비행부대는 연이어 무사고 비행 안전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영예의 참모총장 비행안전상을 받은 것이다.

C-46, T-28 아이랜 성공

항공창의 준공과 함께 우리공군 정비진은 금년에 C-46, T-28 A형 등 두 항공기의 아이랜에 개가를 올림으로써 그 정비술의 우수성을 내외에 더 유 파시하였다. 항공은 창에 하 八—수리창 장비들의 피탄어린 노고에 의해 수행된 등 아이랜 성공은 중태의 극에의 존재오던 아이랜을 국내에서 하게 됨으로써

C-46만 하드라도 대당 三, 八〇〇발라의 외화절약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建國機(T-6) 退役

(十二月 一일)

우리 공군의 요람기에 전국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구입되어 지금까지 국토방위에 빛나는 공훈을 세운 전투기가 신기에 대치되어 퇴역하였다.

一九五〇년 五月 十四일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공군에 헌납된 자도의 이름인 정남, 경동, 전남, 전북, 충남호의 다섯대와 자기관 이름인 체신, 교통, 농회(農會), 학생, 애국부인회의 다섯대를 합친 도합 열대의 전투기는 이후 六·二五 동안 당시의 진박한 우리나라의 공중세력의 공백 기간을 위기일발로 보충해 주었고, L-4, L-5에서 F-51 무스타프 전투기를 도입하기까지 초기에는 직접 전투에 그리고 전란중에는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의 도감전투임무 수행등에 혁혁한 공훈을 세운 것이다.

十二月 一일 상오 十시 여의도 기지에서 진행던 동 퇴역식전에서 역대 참모총장들은 서별의 애기인 전투기에 화환을 걸어 주었고, 지난날 전투기가 걸었던 초창기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 마지막 탑승과 간담회를 가졌다.

空軍力을 誇示·에어쇼 一 (十月 二일)

전군 제 十四주년 국군의 날을 정축하기 위한 공중전시가 지난 十月 二일 한강박사상 상공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우리공군의 정예 F-86 제트전투기 편대를 위시한 각종 항공기 및 우방 미공군의 지원기 등 二〇〇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한 이날 공중전사에서 우리 공군은 그간 쌓아온 전기를 남김없이 구사하여 공중우월 대지공격실연등 각종 모기를 연출하여 박의장을 비롯하여 내외관 및 인사인해들이 물론 수십만 관람시민에게 박수갈채를 받았고 약진하는 공군전력을 과시하여 국민의 신뢰감을 한층 더 깊게 하였다.

一〇七基地團 創設

(四月 二四일)

四月 二十四일 공군 一〇七기지단이 창설됨으로써 우리 공군은 또한

나의 단골 부대를 가지게 되었다.

K-2 기지에 있는 각 부대의 후방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창설된 一〇七기지단은 종래 분산되었던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일층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 것이다.

中央滑空訓練所 創設

(十一月 一六일)

十一月 十六日 하늘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의 푸른 꿈을 띄울 중앙활공훈련소가 창설되었다. 활공기훈련이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진정한 항공 「스포츠」로서 항공사상제발에 기대되는 바 크다. 창설에 앞서 一기생 三八명 二기생 三四명이 훈련을 끝마친바 있는데 二기생 중에는 十五명의 여대생도 끼어 이채를 띄었다.

農村復興을 위한 指導部落 활동

혁명이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향토제전 과업을 적극 추진하고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군민간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작년말부터 우리공군 각 단대와 진육 자지의 벼촌사이에 맺어진 자매부락 운동은 금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활기를 띄어 그간 十八개부락, 四개학교, 一개도서관과 인연을 맺고 불심양면의 걸진 지원과 지도를 하고 있다.

얼마후 지도부락으로 개칭된 이 자매부락에는 그간 장물들의 정성으로 모은 가축(소, 돼지, 토끼등) 七백여두를 위시하여 농기구 四〇〇점, 라디오 및 엠프롬스피카 三〇〇, 문고 七천권, 학용품 二천점들이 선물로 전달되었다.

또한 농번기에는 틀을 내어 모심기, 추수등을 도와 주었고, 한여름에는 가물때 무더는 농민들을 위해 각종 기계를 동원하여 수로(水路) 작업, 물대기 작업등을 해주는 한편, 부락민 위안공모등도 힘차라는 데까지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순천홍수 때에는 수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품을 공급해주고 있어 따뜻한 동포의 따뜻한 손길에 수민들을 감유(感泣)케 한 바 있다.

北
韓
實
態

깨어진樂園의 꿈



清津港의 北送者 待合室(中央의 一女性은 北送前 筆者가 經營하는 廣島의 工場에서 일하고 있었다).

—在日朝鮮幹部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軍事革命이 勃發하기 直 前의 南韓情勢는 完全히 南韓의 北朝鮮의 謀略과 侵攻에 依하여 共 産暴動化의 一步 直前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만일 軍人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南韓은 지금 北의 地圖로 바뀌어 北에 從屬에 變心이 없다는 事實을. (原著 書—P 1131)

北韓을 訪問한 目的

一九六〇년 八月十三일 하오, 우리들 「八·一五朝鮮解放十五周年 慶祝訪朝 日朝協會使節團」一行 二十四名을 태운 푸르페라機 二機는 平壤上空을 선 회한 다음 郊外의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北傀의 解放十五周年을 祝賀하기 위하여 香港—北京을 경유하여 前日, 北京 비행장에 까지 北傀가 보내준 專用機에 의하여 平壤으로 영접을 받은 것이다.

一行은 즉시 「對文協」에서 보내준 소련제로 보이는 투박한 乘用車에 分乘, 一路 平壤호텔로 진행하였다. 平壤호텔에서 長途의 피로를 풀고 이튿날은 十五日, 牡丹峰下의 이른바 金日成廣場에서 펼쳐지는 北韓解放十五

周年의 祝典에 參列하여 日本人民을 代表해서 觀覽室에서 祝辭를 演하는 日程이다.

그런데 이 訪北團의 面은 卷末에 소개한 名單으로서도 알 수 있듯이 團長에 安部君子女史(前參院議員, 社黨·日朝協會副會長)을 비롯해서 모두가 日朝協會의 中堅幹部級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그 身分도 衆參議員, 地方議員, 勞組幹部, 實業家, 言論人, 醫師, 寫眞家 등 日本의 各界를 망라한 全國의 規模의 構成이었다.

또 注意깊은 讀者라면 곧 알 수 있는 것으로 團員의 大多數는 日本에서 는 이른바, 左翼人으로서 불리우는 人士들이다. 원래, 日朝協會란 在日교포人, 日本人의 宗教, 教育, 文化藝術 등의 관계人士가 發起人이 되었으며 政治문제에는 관계없이 兩國의 友好 關係를 깊게 하자는 취지에서 발족

한 손전한 문화단체로 창립 당시의會長에는 淺草萬隆寺의 住持, 來馬珠磨師가 會長이었고 神田寺의 友松丹論師가 副會長이었고 東鮮寺住持 李英表師 등이 顧問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소련, 中共에서 歸還한 文化人이多數 入會하여 어느 세 會의 指導權을 그들이 장악하게 되었고 「民戰時代」의 在日朝鮮人子弟의 民族教育復活투쟁을 제기로 정해져 左翼의 이 되어 갔음으로 役員의 殆半이 脫會, 數年間은 유명무실한 존재였던 것이다.

一九五五年, 畑中政春氏가 北傀首腦와 會談하고 歸國한 후, 協會理事長에 취임하면서 同年十一月의 제一次大會에서 「日朝兩國民族의 理解와 友好를 깊게 하며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도모함과 동시에 國交正常화를 촉진

譯者註

이 手記를 소개함에 있어서는筆者에 대하여 좀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筆者 吳貴星氏는 一九一四年 全南順天市 胎生이며, 一九五一年에 日本人 關氏에게 入籍함으로써 日本으로 歸化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關貴星인 것이다.

그는 一九四六年二月, 「在日本朝鮮人連盟 岡山支部 經理部長」을 시발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十五年間을 「朝總連」에 獻身하여 一九五九年에 「朝總連 中央本部 財政委員」이란 要職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두 번이나 中共을 訪問한 일이 있으며, 手記는 그가 一九六〇年八月, 八·一五解放十五周年을 맞아 이른바 「日朝協會使節團員」으로 北韓을 訪問하고 돌아와서 쓴 生年誌 記錄이다.

本手記는 지난 三月에 日本樂國의 功은 케이지로 刊行된 것으로 日本語로 日本에서 發刊되었다. 本冊子가 發刊되자 朝總連內部는 물론 日本社會黨內에까지 커

진, 朝鮮의 平和統一을 支持하며 相互의 반영과 세계 平和에 貢獻한다」는 것을 기는 活動方針으로 再發足하여 一九五八年, 第四回大會에서 「在日朝鮮人集團 歸國을 強力히 추진하고 岸內閣의 朝鮮政策을 改善케 하며 李承晚과 對決하는 方向으로 운동을 指向하며 따라서 北朝鮮共和國를 建국케 하라」는 日韓會談을 反對한다」는 北傀一邊의 政策을 세우 北傀政權과 氣脈을 通하는 團體로 化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僑胞의 集團北送을 強力히 추진하여 그 實現에 功이 크다는 이유로 畑中理事長은 同年七月, 北傀政權으로부터 第二級國旗勳章을 授與받았다. 이런 狀況의 日朝協會의 訪烟團이었으니 그 團員構成, 性格에 관해서는 以上 더 설명 할 필요는 없을

다. 關波救을 먼저 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었다. 朝總連 中央委員이 在日僑胞 北韓送還協力會幹事였던 그가 北韓의 眞相을 보고 돌아오자 으레 동안 그가 꿈꾸었던 「共產主義 樂園」에의 功은 완전히 깨뜨려졌으며 事件 共產主義者들의 非人道的인 虐害에 人類의 良心의 憤激을 참지 못하게 되었으니가.



그가 朝總連 幹部였던 만큼이 北韓見聞記는 조금도 感情에 치우치지 않는 正統性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나 만큼 北韓의 眞相을 把握하는 데 本手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기에 三回에 걸쳐 重要한 대목만을 추려서 譯出하기로 한다.

(本文을 翻譯함에 있어서 地名, 團體名(이름)을 北韓을 「北朝鮮人民共和國」, 「朝鮮事變」(六·二五變亂) 등 北傀系가 使用하는 用語는 原文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譯文에서는 그런類의 用語는 表現上 부득이한 경우를 除外하여는 우리의 常用語로 고치기로 했다.)

△사건은筆者▽

그런데 이 使節團名簿에 나, 關貴星이 끼어 있었다. 日本人만으로서 編成된 使節團에 나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데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讀者가 있을 것이다. 이 답으로는 卷末에 나의 履歷書를 參照하면 알 수 있겠지만 나의 本名은 吳貴星이며 一九五一年에 日本人 關貫一郎(同籍)으로 入籍하여 日本人(關)이 되어 있었다. 一九五八年二月 이후 日朝協會 岡山縣支部 副支部長, 一九五九年七月에 朝總連 中央財政委員, 日中友好協會, 日土協力會, 岡山縣支部理事의 要職에 있게 되었다.

우리 一行의 使命은 日本에서 北韓으로 보낸 이른바 歸國者의 生活狀態를 調査하고 將來의 參考資料를 蒐集하는 것이었다.

朝總連은 北韓을 「地上의 樂園」이라고 在日同胞에게 선전하고 歸還者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알음으로 가도 그날부터 衣食住에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은 것은 나라에서 無償으로 배움의 터를 줄 것이며, 전정한 者에게는 일터가 기다리고 있다고 떠들어 대었다. 내가 北韓에서 먼저 와 있는 同胞를 만나 보고 한 것은 이같은 朝總連의 宣傳을 확인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 續續 歸還하게 될 者들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해 주기 위한 資料를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편 먼저 서로 환담하며 社會主義 社會건설에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고 격려의 말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왜?

펜을 잡는가

우리一行은 약 三週間 平壤을 中心으로 黃海、開城、元山、清津、金剛山等、對文協이 판스케줄에 따라 各地를 巡回하여 내가 직접이 눈으로 보고 기록으로 들으며 마음에 비친眞實을 通해서 나는 얼마나 混亂하였으리 업나나 懊惱하고, 自己嫌惡에 빠지고..... 그리고 드디어는 완전히 別個의 立場에서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을 人間의 良心과 正義의 이름 아래서 告發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나는 本書에 의해서 추호의 粉飾도 없이 表白하려 하고 있다——지금 나의 마음은 펜을 잡으려서도 거절한 自責感으로 떨리고 있다.

왜? 그것을 거짓없이 吐露하는 것이 지금 펜을 잡는 유일한 目的인 것이다.

우리는 손님이냐?

罪囚냐?

우리를 訪韓使節團一行 二十四名은 모두가 호텔에서 마음의 安定을 잠을 수 없이 들떠 있었다. 왜냐하면 八월 十五일 해방기념식이 끝났는데도 우리들에게 自由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들을 平壤호텔에 정중히 잠금되어, 一步도 바깥에 나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惡感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우리一行은 초대를 받아서

은 손님의 身分이요, 記念式典 뒷처 리 등 바빠서 손이 모자라며 事故방지 등 여러가지 의미에서 호텔에 모셔두는 것이겠지. 二, 三일 지나면 工作員(勞動黨員)의 감시도 풀고 自由로 市街見學이며 知人訪問도 되겠지. 一行은 모여 앉아 이렇게 주머니 받거나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벌써 며칠이 지나도 그러한 기색조차 보지 않는다. 드디어 참다 못한 어느 團員은 市街구경이나 해볼 일이 아니냐 하고 호텔을 걸어나 갔다. 그러나 그것은 이 쪽의 警員이 오, 해석이 저쪽에서 볼 때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호텔에서 몇 발자국도 못가서 工作員에게 끌려 다시 호텔에 들어오고 말았다.

그러자 우리는 우리의 知인들이 호텔로 우리를 방문해 왔으나 工作員에게 쫓겨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團員들은 모두가 知名人士요, 日朝 友好사업에 관계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平壤市內에는 知人이나 友人이 적지 않았다. 우리들은 제각기 工作員에게名單을 내놓고 만나고 싶으나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가 요령부득한 答들만 하고 있었다. 우리는 수차례 걸쳐서 요구했다. 결국은 「그 사람은 職務이 바빠졌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으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우리들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를란 것은 우리들의 편지는 우리가 부릴 수 없고 모두 工作員에게 주어야 하며 담배값이 필요해서 北韓돈과 바꾸어 달라고 해도 없단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이냐.』

모두들 不平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某團員은 怒氣를 띠어 『北韓當局은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 하고 이따위 대우를 하느냐? 언제까지 우리를 잠금하겠다는 거냐? 우리를 招請한 대우가 이거란 말인가!』

하고 正色을 해서 떠들기까지 했다. 團員 某氏는 『그렇다면 우리를 大同江邊에까지 만나게 해주시오,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해야겠소.』 하고 요구했으나 『호텔의 배관다가 있지 않습니까.』 하며 工作員은 보기 좋게 거절했다.

우리는 공식으로 特定한 곳에 見學을 갈때에도 그것이 不過五十米의 거리라 할지라도 자동차를 탔으며 市街를 걷게 하지는 않았고 우연히 거리에서 知人을 만났어도 工作員이 옆에 붙어서 말을 전낼 시간을 주지 않았다.

一行이 金剛山에 갔을 때에도 一步의 自由를 주지 않았다. 목욕도 식사도 全員集團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招請에 의한 「손님」이 아니라 감시를 받는 罪囚였다.

「歸心如矢」

그런데 우리는 어찌서 이러한 罪囚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나? 團員은 누구랄 것 없이 이疑問을 품어 고 했으나 아무도 그럴만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 때문에 團員들의 不滿은 더해 갔다. 『적어도 우리는 해방기념식전에 초대를 받았고 또 받을만한 功勞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監視하더니 피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團員이 있기도 했다. 드디어 團員 某氏는 阿部團長에게 待遇를 改善해 달라는 強硬한 要求를 제기하였다. 阿部團長은 여러번 當局에 대해서 善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徒勞였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答이었다. 歸路에 올랐을 때 阿部團長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의 不平不滿과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工作員 사이에 끼어 나는 정말 두번이나 울었어.』라고 이러한 사정으로 團員中에서는 見學日程에 參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만일 이대로 가다가는 落伍者가 속출하여 무엇보다도 使節團 자체의 體面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빠졌다. 그래서 團員全體會議을 열고 日程을 줄이기로 罪囚와 같은 北韓空氣에서 벗어나 歸國하기로 合意를 보게 되었다.

우리의 歸路도 역시 北京—香港의 코오스로 되어 있었는데 日程을 줄여서 平壤을 떠나 北京에 도착한 우리들은 마치 해방된 기분으로 北京의 거리나 산책하려 했는데도 또한 어찌된 셈일까? 北京에 있는 北傀大使館하고 있는 新橋飯店(호텔)에서 外出을 禁止한다는 通牒이 示達되어 왔으니 말이다. 『北京에까지 우리를 잠금할 작정

인가?

하고 團員들은 드디어 폭발하였다. 一行中共産黨員 三名을 代表로 선출해서 黃鳳九(北傀民族統一戰線副議長, 朝總連中央副議長)에게 보내어 抗議하였다.

이 事件은 黃鳳九의 주선으로 해결을 보았지만 남의 나라에까지 간섭을 하는 北傀當局에 대해서 아무리 日朝協會의 멤버라 하지만 드디어는 北傀當局에 辱說을 하기에서 은 사립이다. 團員의 한사람이 친구들에게 記念葉書를 보내었는데 數十枚의 葉書에는 한결같이 이렇게 쓰고 있었다.

「歸心如矢」。이 團員은 日本社會黨의 國會議員이며 日本에서는 德望이 높은 社會의 人物이었다.

地上最大の監獄

北韓으로 돌아간 사람들 中에는 나의 선배, 友人이 많았다. 내가 北韓을 訪問했을 때의 가장 즐거운 스케줄의 하나는 이들 선배, 友人을 만나서 흥금을 털어놓고 어제, 오늘 내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否」字로만 나타났다. 다른 團員들도 물론 아무도 회담하는 知人이나 友人을 만날 수는 없다.

北韓은 내가 半世紀동안 生命을 걸고 싸워온 理想의 나라였다. 나의 生命의 燈臺이었던 것이다. 나의 社會主義者로서, 青年時代부터 우리 民族의 自由와 獨立을 위해서 스스로 가지밭 길을 걸어서 바라던

悲願의 理想의 땅이 있던 것이다. 이 땅에서 나는 나의 戰友를 만나 보려고 했다. 이것이 왜 나쁘단 말인가? 왜 나는 이러한 戰友와 만나서 는 안 된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여기가 다시 反省하고 反省해서 善意로 해석하려고 再三誠意를 가지고 선배나 友人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나는 日本姓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便宜上 부득이 가진 것이고 실은 「朝鮮人」吳貴生이며, 朝總連中央幹部요, 그 밖에 社會主義 社會連中央幹事, 그 밖

처음 사람이 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平壤호텔에까지 여러번 나를 찾아온 友人들도 工員에 의해서 쫓겨갔다. 그 友人이 안타까운 視線으로 호텔의 창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떠나갔을 때 나는 정말 나

자신이 무서워질 만큼 混亂과 不安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動搖—波級처럼 번져가고 커져가는 動搖…….

이러한 가운데에서 나는 두 사람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만나고 보니 도리가 만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다는 後悔을 얻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面會時間은 工員立會下에 二十分間, 피차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하는 以外에는 立會한 工員의 눈치만 볼뿐임을 얻지 못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面會가 허락된 두 사람이란 한 사람은 岡山朝連學校 校長을 했었고 또한 사람은 岡山朝連支部委員長을 지낸 사람인데 모두가 극히 최근에 歸國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다고 해

도 아직 생소하여 내가 알고자 하는 北送者들의 生活實態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거기에 工員이 감시를 하거나 마치 收監된 罪囚를 面會하는 식이다. 그들은 말았다. 그 안다카워 하는 視線,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視線——

여기가 「地上의樂園인가!」 헤여질 때 나는 양만 두결레를 선물로 내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는 조석도 한끼 대접 못했는데!」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工員은 시간이 되자 헤어져라고 명령했다.

해방직후 岡山縣에서 「朝盟委員長을 지낸 知人이 있었다. 그는 十數年前 歸國하여 지금은 陸軍中佐로서 平壤市內에 살고 있다고 들었다. 그가 數回에 걸쳐 호필에 나를 만나려 왔으나 工員에 의해서 쫓겨갔다는 것이다. 陸軍中佐가 一介 工員에 쫓겨가다니 日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大將이나 司令官이라도 그가 勞動黨員이 아니라면 一介黨員의 命令에 복종해야만 한다. 大將이나 司令官은 單純히 軍人으로서의 階級이며 實戰에서는 一兵卒이 그가 黨員으로서 秘密作戰에 參席하지만 非黨員으로서 上官이라 하더라도 參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社會에는 矛盾이 있다. 그것은 이만저만 矛盾이 아니다. 우리의 理想을 超越하는 矛盾——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니,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도나는 그러한 생각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입밖에 내어 크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共産黨員 團員을 제외하고는 일말에 그것이 언뜻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역역히 나타나는 九州代表 某氏가 있었다. 그런데 九州에서 歸國한 青年이 이 團員을 찾아왔다. 그는 七十里를 걸어서 平壤으로 그를 만나 보고자 나왔던 것이다. 그는 여러가지 부랄한 말이 있었을 것이요 九州에 남아 있는 親知에게 傳言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주일 동안은 호텔 근처에서 지냈으나 끝내는 만나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면 그가 우리 一行이 地方視察에 出發하는 車에 타아 들어 「한 마디라도 좋으니 九州代表와 만나게 해주시오」라고 웨치며 團員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다. 工員은 안색하나 가파하지 않고 냉후하게도 青年을 후들겨 보내고 말았다. 이같은 青年의 애절한 호소가 있게 되자 使節團一行은 크게 動搖하게 되었다. 뒤에 알았지만 青年은 「朝鮮民主青年同盟員」으로 活躍했으며, 「日朝協會」에서 일을 보아 온 사람으로서 兩親의 反對를 물리치고 勇躍新 溟港을 出發하였다는 것이다.

또 某團員은 호텔에서 두 세질 멀어진 아파아 트에 살고 있는 知人과 매기는 한번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平壤엔 왔는가!」 하고 大憤慨하였다. 눈으로 보는 그대로 「地上의樂園」은 커녕 地上最大の監獄이다.

北送者가 남기고 간 財産의 行方은?

歸路 北京에 모인 우리는 團員會議를 열고 우리가 北韓에서 받은 處遇를 檢討하기로 했다.

團員은 모두가 水準에 到達한 理論家이며 共產主義, 社會主義體制下에 있어서의 社會生活의 어떠한 形體라는 것을 白紙에 塗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것은 反對로 어떤 傾向, 어떤 色彩이 있기 때문에 團員이 될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檢討는 慎重하고 慎重하였다. 이리하여 最終의 것으로 도달한 結論은 다음과 같았다.

日本으로 부터 歸國한 者의 不平, 不滿을 訪北團의 눈으로 부터 隱蔽, 掩目的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北僑當局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다른 道理가 없었다.

이 結論에 대해서 반대하는 團員은 없었다. 元來 日朝友好를 政治目的으로 하는 사람, 日北貿易을 꿈꾸는 사람, 또는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信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結論에 到達하였다는 事實은 意義가 큰 것이다. 그들은 보다 큰 矛盾, 非人道的, 非文明的의 光景을 到處에서 목격 하였지만 「團」의 性質上, 이 이상의 結論도 이以外的의 結論도 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우리一行은 北韓에서는 最高級乘用車를 타고 가는 곳마다 大歡迎을 받았으며 거의 매일 밤 美酒와 山海의 珍味로 배운 宴會로 절대 받았다. 그

러나 내가 北韓을 訪問한 것은 한 사람의 「손님」으로서 山海의 珍味를 맛보려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理想하던 「北朝鮮人民共和國」의 眞實의 모습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던 내게 이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던가?

北韓은 極度의 人的 資源이 枯竭되어 있었다. 특히 靑壯年 男子가 그러했다. 男子의 고장은 韓國戰爭때문인 것만이 아니라 事實을 나눈다 갈 수 있게 되었다. 生命을 절고라도 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사람은 男子이며 그 중에서도 靑壯年 層이다. 이들은 모두가 戰爭中 南韓으로 脫出해 버린 것이다.

만 할 것도 없이 人的 資源의 確保는 勞動力의 確保다. 同時에 이것은 戰爭이 일어나면 軍隊로 化할 수 있다. 日本에 있는 六〇萬을 끌어들이자, 이것이 北僑가 꾸민 在日僑胞 北送案의 正體였다.

사람은 누구라도 살기 힘든 것은 무엇이든 원치 않는다. 여기에 陰謀를 꾸민 것이 朝鮮이다. 그들은 떠돌이 대었다. 北韓은 資本家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社會가 아니다. 北韓은 戰前의 日本의 帝國主義時代와 같은 그러한 社會가 아니다. 北韓은 李承晚이 武斷政治하는 南韓의 그러한 社會가 아니다. 北韓社會主義 社會는 社會福利制度가 發達하여 모두가 平等하게 살 수 있는 地上의 樂園이다. 半世紀동안 祖國을 가지지 못한 우리는 이제야 祖國에서 祖國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機會가 왔다. 日本에서 가난하게 사는 僑胞들은 이터 무니 없는 宣傳에 넘어갔던 것이다.

戰後, 日本社會에서 人類的 差別로 處待 받아온 在日僑胞들에게 이나팔 소리는 無批判의 으로 귀를 울리게 했던 것이다. 이 나팔소리에 흠뻑하여 北韓으로 간 사람들의 大多數는 共產主義의 「共字」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리하여 淸津港에 도착한 歸國者는 거창한 환영을 받으며 영전委員의 주선으로 아와트 에 案内되어 十日間 滯留하면서 하나하나 이른바 成分의 分析을 받는다. 大部分은 炭鐵勞動者나 農場勞動者로 配置되어 勞動力不足에 牛馬처럼 補充되었다. 그들은 朝鮮의 新진을 그대로 받아들여 알몸으로 바다를 건넜다. 그리하여 零下二十度の 酷寒에 防寒服 한벌 없이 生地獄에서 떨고 있다.

無味乾燥한 懇談會

그런데 여기에 더욱 奇怪하고도 참지 못한 朝鮮의 處事가 있다. 「祖國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알몸으로 가도 조금도 不便은 없다」고 떠들어 놓고 그들이 남기고 간 金品을 모조리 寄付의 美名아래 朝鮮이 차지한 것이다.

우리들은 元山에서 歸還者와의 公式懇談會를 열었다. 내가 여기서 公式의 公式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한 번도 工作員이 立會하지 않는 自由로운 懇談會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들과 배이불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지만 아무리 깨고 물어도 나오는 말은 「不便 없다」 「만족하다」 「잘 살고 있다」 하는 말만 들을 수가 없었다. 차라리 錄音機를 들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工作員들이 귀를 쫑긋해서 앉아 있으니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마침, 이 차례에 日本에서 잘 알려진 日本夫人이 끼어 있었다. 나는 허겁지겁 말로 걸었더니 소리를 내어 인사하는 병담한 표정이 아닌가. 그는 工作員을 경계했는데 그렇게 하면 당신들에게 속아서 나는 지금 이처럼 고생을 하고 있다고 원망을 해서 이거나 두가지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리하여 나는 그들과 피가 통하는 얘기란 한마디도 못했다. 이 때는 우리가 日本에 들어가서 다음 歸國者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진언할 수가 없었다.

團員 中에서는 이 無味乾燥한 분위기를 무시하고 열제없이 깨고 묻는 자도 있었으나 그것은 東岡西答이 아니면 空轉을 거듭할 뿐이었다.

「만족하다」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팔간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생소한 땅, 그것도 社會制度가 전혀 다른 共產世界가 들어와서 어떻게 만족하란 말인가? 그 중에서 日本에 오래 살아서 한국말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그럼 그것은 그렇다고 하자. 당신은 만족하지만 다음에 을 사람을 위해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입을 열어 조개처럼 다물고 있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在日中廣島縣에서 委員長을 지낸 한 사람이 부더기적적으로 한가지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현재 某 製材工場의 支配人을 하고 있는데 이 재래 때 꼬치 꼬치 물은 결과 「몸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꼬집어 내는 데 성공했다.

(次號 계속)

결혼해두상관 없다구 생각해요.

앞으론 형제간에서 두 형편 많은 사람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부모나 동기(同氣)간의 부담을 다는 면에서 도둑 종을 짓 같아요...」

이쯤 되면 鄭병장의 입은 점점 더 오무라들게 마련이었다.

「.....나심 마세요. 전 시작했어요... 원물 마야요. 고통하고 졸업만 때 강습소에서 배웠든 원물을 시작하기 무했어요. 날씨가 차차 추워지니까 불림 없이 된 거야요. 우리 부모들 무진수씨와의 결혼을 그리 반기지 않는 눈치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앞길은 우리가 개척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손으로 불만 쥐어뜯고 앉았은 鄭병장의 품에 바싹 안기면서 美

媛은 애원하듯 말했다.

「진수씨! 막연해진 안돼요. 적당히도 안돼요. 군에서 제대되는 순간까지 열심히 군무에 복무하세요. 그때야 나와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뛰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전 고생같은 건 문제가 아냐요. 진수씨의 사랑과 성실한 인생태도만 있음 그만 마세요.」

품에 담겨서 鄭병장을 치켜보는 美媛의 두 눈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鄭병장은 무슨 인력에라도 끌리듯 美媛의 몸을 으스러져 안았다. 그리고 불과 불을 비웠다.

또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돌을 시원스레 스쳤다. 어디에선가 까르르 산새 소리가 들렸다.

“인 어”

대 위 정 순 열
(본 부 사 명 실)

미칠듯 덩굴며 펄박질 치는
물결
푸디고 싱싱한 피동피동한 어족들
둥게구름 나래 들쳐 해중에 걸려
수영선 저넘어로 일글내어 빌배
모래알 뒤집어 쓰고 바다와
대결하는 투우사
불뿔은 7월의 태양아래
번뇌와 고뇌를 송두리채 벗어던지고
정녕 내일에 살려는 바다는
인어의 고장이 되다

〈수필〉

車 노 이 로 제 중 사 서 현 통

(정비교육대)

科學文明的의 경이적 발달때문에 세계가 좁아졌다고 남들은 좋아하겠지만 世上이 좁아해도 요즘 서울거리처럼 좁아져야 아늑하게 아니라 「노이 로제」란 말이 流行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노이 로제」이 이상 기계문명의 노예가 된人權을 유린당한 사람을 말하는 데 적당한 말이 어디 있겠는가? 타면은 이 이상 편리한 것은 없되 길어가는 사람에게 또 이 상 없을 만치 귀찮은 것이 자동차이다. 서울거리리는 자동차만이라도 다니기 힘들만치 복잡하다. 누가 타고 다니는 자는 알수 없되 最新을 뽑내고 「드라손」소리도 가볍게 달리는 六二년형으로부터 어찌면 아직도 저렇게 달릴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품게할만치 남아 빠진 前世紀의 遺物같은 자동차에 이르러까지 서로 미친듯 앞을 다투어 다니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지 않아도 좋은 서울거리처럼 한시라도 마음을 놓고 다닐 수가 없다. 美國의 와싱턴 市街처럼 예로부터 자동차 왕래를 제한해 놓고 있다. 계획적으로 進都市가 아니고 본시 자동차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만들어진 都市의 기에 큰 人道라는 것도 비고적 나중의 생긴 큰 거티브에는 없고 그것이나마 보완전하기 작이 없다. 「목숨을 걸고 운전하라」하는 말은 간혹 美國사람들 사회에서 들던 말이지만 요즘의 서울시를 말할 것 같은 「목숨을 걸고 걸이라」하는 것이 적당할 듯 싶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한 탓인지 당국에서도 여러가지 防止策으로 거리에 흰줄을 그어 「진너가는 길」을 명시하기까지 하고 있다. 나는 美國教育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샌프란시스코」市에 며칠 묵은 일이 있었다. 美國의 大都市의 交叉路엔 大部分 自動式信號機가 있어 그렇게 많은 차도 그信號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데 이 샌프란시스코市的 거리에서는 몇몇 主要 交叉路를 제외하고는信號가 없었고 요즘 서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회계 그어진 진너가는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길을 전낼때마다 오랜 습성으로 좌우로 살펴서 차가 오면 되돌아 기다리려 했는때 내가 뒤로 물러서기 전에 自動車が 먼저 온 것을 고운전수가 어서 진너가라고 손짓을 한다. 그런 일을 여러번 겪었는데 처음엔 아마 대개 외국사람이니까 그런저저 하고 생각했다. 하루는 美國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가 사람 말이 샌프란시스코에선 「번·이즈·슈피얼티어」(사람이 최고이다) 해서 만일 자동차가 진너가는 길에 타야 했을 때에 그어린 진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서서는 경우엔 자동차가 멈추고 기

故 鄉

上 兵 金 鍾 仁

(空軍大學 中央圖書館)

서울에서 南方
四百五十里

童心の樂園

하늘 밑 전지산 아래
내 고향이 산다.

제營門을 나서기도 前에
故鄉아——

내 鄉愁가 짙은 곳

벗질나래
낮고진城

싱그럽도록 탐진
주렁진박.

제까짓게 철이 좀났노라고
걸은질 울음

順이는 모른척 길을 지난다

어머니의 細亭 길쌈
주름 풀풀마다

내 뼈가 굵어진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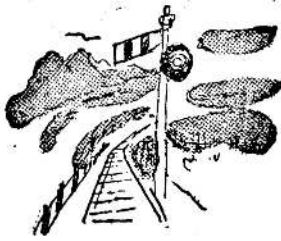
서울에서 南方
四百五十里

童心の樂園

하늘 밑 전지산 아래
내 고향이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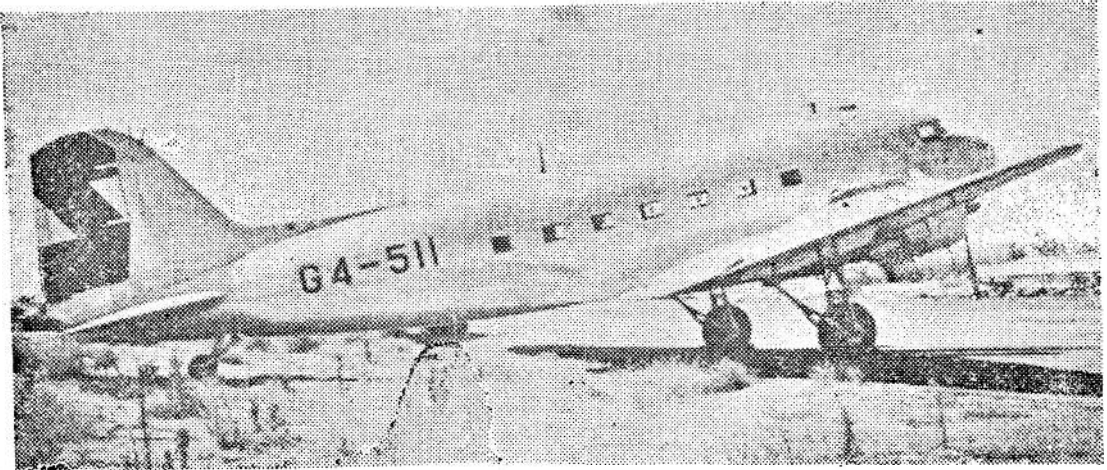
童心の樂園

하늘 밑 전지산 아래
내 고향이 산다.



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보니 아년게 아니라 내가 전니가는 길을 들어설 때마다 자동차가 멀리 정지하고 내가 완전히 지나가도록 기다린다. 하물며 전니가는 길위에다가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태연한 자동차라고는 한번도 보지 못했거니와 그런것을 보고도 잠자고 있는 交通巡警도 보지 못했었다.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도 내겐 아주 신통해 보였다. 그만 치나는 이상한 환경에 사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전니가는 길이라 해서 그지 전니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전니가는 길이라해도 전니가는 길인 아년 길을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하니 일부러「뺨기」로 회개 그어서 명사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자동차가 번잡해서 일부러 골목길을 간다. 여기에 미친놈 같은 자동차의 狂舞는 없으리라는 심사에 서이다. 그런데 자동차운전시험장이라 아는지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도 무슨 급한 일이나 있는 듯 불이나게 달려드는「짚車」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들어 왔는지 알 수 없을 만치 좁은 골목길에「짚車」가 들어서서 길을 막고 있다. 게다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무엇이 臭穢을 쪼른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야 눈물까지 나올까, 골목길에도 다닐 때가 못하고 그렇다고 택시 탈 신세도 못된다. 그래서 배스를 탄다. 요즘엔 배스도 발달해서 아주 깨끗이 꾸민 배스도 많아 그 접이선 차라리 낡은 택시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여기에도 내 신경

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 우선「차내에 서는 禁煙」이라고 쓴 글이 마땅치 않고 다음엔 그 글 바로 아래서 담배를 피는 손님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차장이 패설하고 다음엔 같은 五圓을 지불하고도 限下無人格으로 담배를 휘둘러 물고 있는 신사가 아니꼬와서 배스를 탈 때마다 불쾌하다. 차내에서 또 채도 제법 지켜졌던 것이 요새와서 또 차내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 것 같다. 담배냄새가 향수처럼 좋다면 모르되 먼저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용변하고 간변소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냄새가 나니 불결하기 짝이 없다.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알수 없는 當事者에겐 좋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생각도 해주어야 할 일이다. 어느 배스칸에서 어떤 신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신사가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이 피우던 담배를 빼앗아서 창밖으로 내던진 다음에 자기 가지치고 있던 새담배를 하나 그 사람의 가슴포켓에다 끼어주었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아년게 아니라 나도 그런 충동을 느낀다. 車노로 제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나도 훌륭한 환자의 하나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런 환경속에서 車노이로 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이상하다. 결국 이런 非正常을 正常으로 생각하는 思考方式 때문에 오늘날 이를 拂拭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第二次大戦과 航空機 (完)

위의 사진은 제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미공군의 C-47 수송기

<航空發達史>

K·나이트

一九四二年四月十八日 미국의 항공기가 대낮에 동경을 공습하였다는 소보(速報)를 받고 연합군의 사기(士氣)는 충천하였다. 그것은 일본에 대한 최초의 중요한 공격이었다. 이들 비행기가 어디서 출격하였는지는 한 동안 일본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후의 전모(全貌)가 발표되었다. 완전무결한 계획과 항공모함으로부터의 이함훈련(離艦訓練)을 쌓은 다 음지미·드릿틀(전장의 진전과 미를)은 일본연안(沿岸) 六五〇마일 저점까지 근접한 항공모함 호넷으로 부터 B-25 밧칠 폭격기 十五대를 출발시켰던 것이다. 이 十五대는 아무런 반격도 받지 않고 공격목표지인 동경에 다달아 공장시설, 물자집적소(物資集積所)와 항만(港灣)안의 항공모함 한 척을 폭격하였다. 그 후에 있었던 대규모적 공습에 비하면 실질적 손해는 얼마 안되었지만 일본인들 사기에 큰 충동(衝動)만으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하겠다.

B-25는 공격이 끝난 다음 폭풍우와 짙은 구름, 거기다 어둠의 장막을 뚫고 의정대로 중국본토에 있는 비행장으로 향하였는데 무선유도(無線誘導)를 받을 예정은 완전히 틀어졌다. 이들 비행기 十五대는 전부 불시착(不時着)을 감행하여 기체(機體)가 파괴되고 혹은 나화산으로 튀어나내리기도 하였는데 재중에는 중국본토를 횡단(橫斷)하거나 방랑(放浪)의 길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드릿틀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침수(浸水)된 언덕바지에 좌륙한 채 장거리 비행용 저휘한 노독(勞毒)으로 동

승(同乘)한 부하까지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는 감각한 밤에 머슴머슴기에서 토막집을 찾아가 그 속에서 죽은 듯이 늘어져 있던 것이다. 그는 아침 햇빛에 눈을 떴을 때 조그맣고 더러운 우릿탄 속에서 한마리의 살찐 돼지와 동침(同寢)한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十四명의 탑승원(搭乘員)은 모두 무사하였으나 비행기는 전부 없어졌다. 형편없이 꾸겨진 비행복을 입고 중국본토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던 비행사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미공과 일본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의 결정적인 전투의 하나는 일본 본토 상부대가 어저지로 뉴기니아 일대에 있는 포트 모레스비 점령을 결의(決意)한 一九四二年 五월 초 산호해

당시 미국 해군은 태평양에 항공모함 4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두척은 대서양에서 급파(急派)된 것이었다. 이러한 일파 안되는 항공모함과 함재기(艦載機)는 길바트열도(列島)와 마살군도(群島)의 일본군 기지공습을 감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수척(數的)으로 열세(劣勢)한 미국해군은 선(艦船)과 비행기는 비할 바 없는 끈기와 용기로 오스트라리아에 이르른 때에 이 보급선(補給線)을 친공(戰局)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해 왔던 것이

드릿틀은 워싱턴 귀환(歸還) 도중 본토의 공군으로 해서 무즈펠트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의 수여되었다. 후일 지휘관이었던 윌리엄·할레이 제 두는 드릿틀을 동경공습에 관해서 「모든 군사사상(軍事史上) 가장 용감한 행동의 하나」라고 회상하였다.

할 수 없었던 문제와 뛰어난 조종사 수련, 장교들의 기량(技術)과 영웅적 행위는 참으로 정의(敬意)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용기와 용모는 그 당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었던 여러 곤난한 문제를 극복하였다.

아무튼 열도에 대한 일본군의 전체 작전(牽制作戰)은 열도의 중앙부 및 저하부의 미군 해군기지의 대한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어 그 끝에 있는 무인도(無人島)인 앓쓰도와 기스카도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일본군은 적당할 시기의 미국 본토 침공의 발판으로서 이곳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암석(岩石)뿐인 구릉지대(丘陵地帶)에 빈약한 토목기제로 할 주로(滑走路)를 건설하려고 할 일본 계획은 실패하였다. 그런 가운데 캐리보니아에서 미국 정예부대가 북진(北進)해서 얼마다 비행장을 건설하여 초계기(哨戒機)나 전투기들이 행동가능한 기지를 만들었다.

아무튼 특유의 농무(濃霧)로 일본군은 비참하게도 유지 불가능한 이 지점의 확보를 잠수함의 초파한 수송에의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생산은 군인의 아스피린과 만큼 제한 전선화력(戰機擴大)을 쫓지 못하여 아무래도 전선에서 너무 많이 죽어 있고 해서 병력이나 기재가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두 개의 섬을 부원정점(無血占領)하여 전쟁 중절까지 유지하였는데 케사나 후르이다. 출신 병사들은 심한 폭풍설(暴風雪)의 전진지대로 변안 되었었고 아무런 위안시설도 없

이 지루한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거기다 그들을 일본인 피로한 것은 승적해오는 소수의 일본기와 호파는 별로 없는 풍선폭탄(風船爆彈)이었다. 지상설비(地上設備)가 갖추어진 비행장을 이용해서 미군 조종사들은 열도(列島)의 최전선 사부야 섬에 도달하였다. 거기서 B-24로 아홉시간 가량 남하(南下)한 지점에 있는 천도열도(千島列島)의 인본군사시설의 복적이 가능하였다.

일본군은 구한(舊案)의 북방에서부터 쫓는듯이 무더운 밀림전(密林戰)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싸웠다. 일본군의 활주로 건설 기구는 남태평양의 산호초(珊瑚礁)나 심의 산호초(珊瑚土) 화산토(火山土)를 잘 처리하였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국군의 정지기계(整地機械)가 우수하였던 것이다. 비행장 건설용 부드러진 정지기(整地機), 압연기(壓延機), 같은 것은 일본 것보다 대형(大型)이고 훨씬 성능이 높은 것이었다. 생겨난지 얼마 안되는 시설부대의 손으로 채굴(採掘) 정지(整地)가 이루어져 세계 도처에 눈부신 속도론 비행장이 정비되어 갔다.

일본군의 오스트라리아에 이르는 배 아더 보급선을 위협하기 위해서 가달 카날섬에 활주로 공사를 개시하고 있는 것이 一九四二년八月 초순에 발표되었다. 본격적인 공작준비반(準備)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미국 해군은 이 지점으로 이동한 결심을 하고 항공모함 제복과 항공기 임존(隱存)해방(海防)가 상륙하였다.

가달카날의 싸움은 동경에 이르는 제일보였는데 그것은 곤난하고도 장

기(長期)의 결전 것이어서 一九四三年 九月에 이르러 겨우 일본군을 섬에서 구축(驅逐)할 수 있었다. 해안이나 해상이나 공중에서 유해군은 총력을 기울여 싸웠던 것이다.

전투가 한창 진행중이던 장비(裝備)가 양쪽(揚陸)되었던 것인데 일본군이 착공한 활주로에 대하여 해병대의 버드클레어 전투기가 거의 배시간마다 공격을 가하였고 또한 승적해 오는 일본 비행기를 추격하기 위해서 싸웠다.

미국 육군도 에스피리소·샌드에서 B-17을 일본 함대 색채용(染色用)으로 파견하여 인본함대의 함포사격을 쫓 수 있는대로 저지(阻止)하려고 하였다.

미해군은 병력을 상륙시키자마자 공모(空母)내 공도의 결전, 동쪽 소로몬(所羅門)해전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것은 八月二十三일부터二十五일까지 계속된 끝에 무승부로 끝났다.

그러나 미국 항공모함 와스부는 잠수함의 어뢰공격을 받고 일본함대와 교전하기 전에 침몰되고 있어서 八月二十六일 산타·쿠르스 해전에서 호넷 트로도 격침되었다.

대평양의 광대한 전진역(全戰域)에서 이와같이 치열한 항공공전(航空公戰)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미국의 일반 시민은 三주간 동안이나 긴장속에 있었다. 애디릿텐바카 대위와 六명의 동행자는 그때까지 소식이 끊어져 질상상태였는데 十一月十三일 금요일에 태평양의 버지(嶺地) 에리스군도(群島)의 후나후치 부근 해상에서 구조(救助)되었음이 알려졌다.

제1차대전(第一次世界大戰)의 미국의 하늘의 용사 아놀드 대령의 조대르 시찰 여행을 출발한 한스·아담슨 대령은 「하늘의 要塞」에 올라타고 호노루루를 출발하여 오스트라리아에 있는 백야머사령부를 향해서 칸톤섬까지의 一,八〇〇마일 무작위 비행을 출발하였다.

이 B-17은 칸톤섬을 지나서 연로가 멀어져 태평양의 무인해역(無人海城)에 불시착(不時着)하였는데 격랑(激浪) 때문에 비행기는 버파되었다. 탑승원들은 살아난 것은 아담슨 등애 등상을 일으켰고 전원(全員)이 비행기가 가라앉기 전에 3척의 고무 구명정(救命艇)에 옮겨 탔다. 지나가는 배도 구명정(救命艇)의 수색(搜索)하지 못한 채 24일간의 나포유(漂流)하여 낮은 대로 도드레운 배안(岸)에서 받은 밥대로 배속까지 스티드는 추위를 견디지 않았던 안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미해군의 찰·릿사 수상기(水上機) 조기(救助機)의 조종사 윌리엄·이디(Edy) 소령은 위주(危難)한 아담슨을 뒷좌석에 태우고 릿텐바카의 작은 구명정의 다도 있었던 존·바넷트를 함께

위에 태워 현장에 막 도착한 초제어 퇴정(哨戒魚雷艇)까지 날라갔다. 거기서 날개위의 두사람은 인도(引渡)되고 아담은 미국이 점령한 이때의 중간 밖에 되지 않는 후나치 병선의 공수(空輸)되었다. 뒷켄카 일행과 떨어져 표류(漂流)하고 있던 11척의 구명정 승무원들도 비행기로 구조되었다.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중분속에서 생각된 것은 1937년의 아메리야·이아라트와 항공사 후렛드·노만이 체제일주 비행도중 거의 같은 지점에서 행방불명이 된 것이었다.

유기니아에서 간통심을 삼거(相距)하는 300마일의 한점인 하우란트섬의 방향을 돌린 그리는 연료가 많이 지행남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1943년이 되어도 전국(全)의 면적으로는 불전하였지만 계획의 시대가 지나 미국의 생산은 활기를 띄었으며 백아리상관도 오스트리아를 배후로 한 태세를 취하였고 미해군은 소디산 포탄을 배워 새로운 공격용 군함이나 새로운 비행기 그리고 새로운 탐승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구라파와 북아프리카에서도 미국의 비행기를 비롯하여 근대나 전차(戰車)가 추추군(驅軸軍)과 싸우고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아프리카 작전선상후 1월 14일의 카사블랑카에서 회담하고 영을 해협 횡단의 의한 구라파 작전 계획을 완성하였다.

아프리카 대장은 영국의 대항의 구라파 연합공군 사령관 칼·스파르대장을 통해 중간목적의 실행가능함을 진득(認得)하고 영국의 항공기 제조

공장이 장거리 전투기를 생산하여 폭격기의 작전을 완전히 엄호할 수 있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북아프리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본토 기지의 중부지역과 전투기대를 분할(分割)하여 양으로 인양되게 되어 드릴을 중장 지휘하에 제12공군이 지중해에 파견되었다. 작전계획은 스미즈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되었다. 태평양 지역의 위치하고 있던 영국본토의 지휘하는 제9공군은 영국군의 사막에서 로벨장군이 통솔하는 독일 장갑부대(裝甲部隊)와 대치(對峙)하고 있는 것을 원호하며 독일군의 보급선을 파괴하여 훌륭한 공적을 세웠다.

전국(戰局)이 격화되자 공군력 증강의 요청이 아랍대장안으로 체다(發到)하였다. 백아리상관은 구라파 전선 우선주의(優先主義) 때문에 태평양 방면이 무시되고 있다고 느꼈다 아라스카에서는 더욱 비행기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소련도 요구하여 왔다. 일본은 토를 직접 공격하기 위하여 설계된 새로운 장거리 폭격기 B-29「超空의 要塞」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항공기장치(自動發射裝置)의 난점(難點)이 있어 실패의 눈이 쫓는 대지의 완성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1943년의 되자 연합군에게 있어서 밝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태평양에서는 퍼스팔프섬 해전에서 일본군은 군함 10척과 만재(滿載)한 수송선 12척을 잃어버린 결과 가가오인 소이와 원수의 복전 작전 계획의 가장 큰 장애가 제거되었다.

미영군(美英軍)은 아프리카에서 시리심에 상륙하여 이태리 반도 북부 일공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부상하였다.

전투가 너무나 가열(激烈)하여 이태리군은 스스로 전열(戰列)을 이탈하고 독일군만으로 전쟁을 계속하려는 증조(徵兆)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힘이 가해짐으로써 연합군은 작전에서 우위(優位)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유군과 조중사의 훈련 그리고 전차나 총포(銃砲)의 생산이라는 종래와 같은 일무(一務)의 미군은 1943년에는 85, 89, 89대의 군용기와 27, 7, 00대의 항공기용 발동기를 생산하였던 것이다.

바야흐로 헛물러가 점령하고 있었던 구라파에는 대륙 반공(反攻)을 위해서 많은 병선(兵員)과 자재가 급속히 투입되게 되었다.

전장(戰場)에서 상당히 퍼져 있던 테베르주의 삼림지대의 일각(一角)이 만학탄 계획이라는 최고 비밀시현을 위해서 입산금지(入山禁止)가 되었다. 이 계획은 과학자들이 생각해 낸 것으로서 앞으로 오래동안 무서운 전쟁의 정점(頂點)이 될 것의類(類)이었다.

1944년은 사상 유례(類例)없는 동향을 보여준 1년이었다. 거의 전세계의 하늘은 미국 군용기로 뒤덮였다. 7대의 양의 미국 함선이 띄었고 각국 수상관 가운데는 미국의 무장관이 끼어 있었다.

五, 〇〇〇개의 이상의 미국제 항공기가 아라스카를 경유(經由)하여 소련으로 떠났다. 웨이바르스 소련 포바 상공공중전을 막 끝낸 소련 조종사들은 P-39 에이타코부타와 B-25, C-47 파워플을 인수하였는데,

이것들은 우선 노-무 미공군 기지로 퍼트려서 미국 정비사들의 마지막 점검(点檢)을 끝낸 다음 시베리아 항역(航路)을 날라 소련전선에 운반되어 갔던 것이다. 그밖에 아프리카나 페루사(灣)의 마스라를 경유해서 소련에 넘겨진 비행기도 있었다.

그해 봄 B17과 B-24가 독일본토에 연일 중간폭격을 개시하여 아놀드, 스파츠, 아이라·이커 등 여러 장군들의 꿈을 실현시켰다. 이 무렵부터 P-47 산다볼트, P-38 타이턴, P-15 부스탕 같은 전투기는 「진단」 리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부스탕은 독일공격을 위해서 825마일이나 날라 폭격기대를 엄호하였다. 공중공격과 방위는 마지막 대전전이 있기 전부터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우대 폭탄이 걸렸을 담당하고 있던 중지부들에는 부구라파 상륙이 상당한 근심과 희망을 잔적한 채 대망(待望)되고 있었다.

정밀하게 계획되어 있던대로 6월 6일 장대한 연합군 landing 작전의 막은 열렸다. 우군기(友軍機)의 시범을 위하여 천야(徹夜)로 배내 상륙장도 침해진 폭격기, 전투기, 라학생발도 수송기가 폭음을 울리면서 요운(湧雲)을 품고 영불해협을 살 처럼 날라갔다. 상륙용 주정(舟艇)이나 해안에서 포두보(橋頭堡)를 구축중인 부대를 엄호하며 내복(內陸) 요충(要衝)에 라하산 부대를 강하시켰던 것인데 그동안 독일 공군에게 조급도 반격의 의지를 주지 않았다.

그 시기까지의 전전부대는 최초로 준공본 본 포두보(橋頭堡)에서 출격하였으므로 조지·파트장관 지휘하의 전

일본의 전력(戰力)은 이렇게 해서 확실히 과밀되어 동인도 제도(諸島)에서 오는 식량이나 석유를 수송하고 있던 일본의 함대와 수송선단은 거의 침몰되고 공창시설은 분해되었기 때문에 많은 잔존(殘存) 비행기는 연료도 없이 폭격도 못한 채 땅위에 무더지고 있었다.

일본 항공기의 성능은 처음에 파소 맥가되어 초기에 교전한 미국 조종사들은 중일전쟁(中日戰爭) 시대의 항공기는 중일전쟁(中日戰爭) 시대의 항공기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장과 조종사의 보호장치는 초기의 독일항공기와 같이 불충분하였으나 일본기는 고속(高速)에 다 기동성이 풍부하였다. 두리원들 하고 있던 영전(靈戰)은 독일군의 폭격·올프—一九〇형을 모방한 것이었다.

일본군의 형식명(型式名)과 아무런 제없이 미국은 일본 비행기를 벤티, 케이프, 토니, 지루, 작크, 후랑크 등으로 식별(識別)해서 불렀다. 독일군과 같이 전쟁 초기의 조종사나 탑승원은 완전히 훈련되어 있었으나 미국사람이나 영국 조종사들에 비해서 적극성의 결여(缺如)되어 있었다.

있었던 것이다. 대형폭격기로 부르는 「바브」라고 불리우는 어뢰형(魚雷型) 동체(胴體)에 미익(尾翼)을 달고 몇 초 동안만 날을 수 있는 로켓추진장치(推進裝置)를 갖춘 폭격기가 발사되었다. 이 기종나쁜 인간폭탄은 독일군의 V-1호와 비슷하였는데 독일군은 자동조종장치가 달려 있었는데 일본군은 사람이 조종하였다는 것이 틀리는 점이다. 미국 비행기들은 이 기종까지 폭격대의 출격지지를 철저히 공격하여 드디어 이 사람폭탄을 전 효과적인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 기종공격이 행해지기까지 二六척의 미국함선이 격침되었고 一六四척이 큰 손해를 입었다.

一九四五年 늦은 여름에는 베니안 섬을 기지로 하는 B-29의 한 부대는 정밀한 폭격연습을 물레처럼 행하고 있었다. 이 부대는 一六시간 동안의 고투(苦鬪)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B-29 탑승원들로부터 농땡이들이라는 욕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八月六일 그들은 이 이상한 활공배후에 있었던 어떤 폭격을 탐색서 충동(衝動)을 주었던 것이다. 미공군의 폴·시벳트대령은 공역도시인 히로시마에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九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이렇게 하여 十日 일본은 종전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세개월전 베림(伯林)은 할라되고 히틀러는 비행기로 도망치는 대신에 자살해 버렸다. 그리고 구라파의 전란(戰亂)은 종결되었던 것이다.

독일 항공기는 얼마 안되는 차(差)로 승리를 놓친 것이다. 독일 항공기들의 눈부신 전진보상(進歩)을 생가하면 결국 패전의 원인은 전쟁기술의 빈곤과 정책일안자들의 머리에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케링은 전국이 독일에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을 무렵 미군 비행장의 폭격을 수행(續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히틀러는 「미국 비행기를 폭격한다 하더라도 끝없는 처럼 후속부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허수고일 것이다.」라고 진실에 가까운 언명을 하였던 것이다. 一九四五年 九월 二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끝으로 제 二차대전은 종결되었다. 오래동안 분명한 승부도 없이 끝난 이 전쟁에서 항공기는 다른 어떠한 병기보다도 이 체를 띄워 항복조인식(降服調印式)이 전함 미즈리호에서 있었을 때 미국 항공기는 그 상공을 때면 때로 비행하였던 것이다.

蔣總統의 「報怨以德」



日本은 대만의 國民政府와 正式로 國交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蔣介石 總統에 대한 恩義를 잊어서는 안 된다. 蔣總統은 終戰當時 「報怨以德」(원수를德으로 갚으라) 하라는 聲明을 發表하여 日本人의 送還을 人道的으로 취급하였다. 그 때문에 數百萬의 日本人이 무사히 母國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蔣總統의 恩義를 잊어 버리고 현재 難關 立場에 있는 國民政府에의 同情을 버리고 中共和의 관계를 깊이 한다면 日本은 恩義를 모르는 야만民族이 될 것이다. 때문에 日本이 만일 中共和 貿易을 한다면 대만의 국민정부와의 充分한 양해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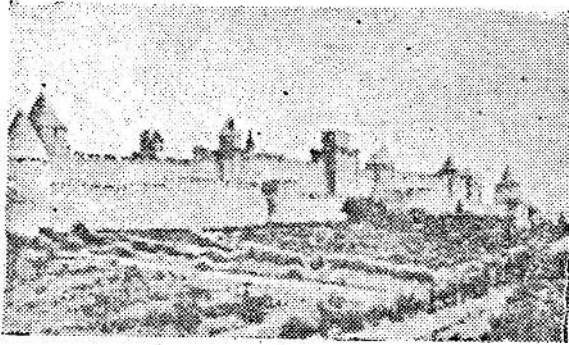
一九六二年 第十七次 UN 總會에서 中共의 國聯加入案은 또다시 埋葬되었다. 當然한 일이다.

中共이 眞情으로 平和的인 隣國으로 安心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國聯에 加入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티베트를 強取하고 印 中共國境에 不當한 軍事行動을 敢行하는 사실들은 中共이 아직 平和國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음을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은 中共은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日本은 누구보다도 中國을 잘 안다고 自負하지만 中國과 中共은 그 性質이 判異함을 알아야 한다. 中共은 共產主義 國家로서 「報怨以德」과는 거리가 먼 나라이다. (日紙에서)

까르까손느

리차드·하리바를



나는 흠이 별써 없음을 알았다. 희망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소원을 이루려고 나는 일생을 덧없이 일하였다.

이 티없는 기쁨 앞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잘 알 고 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은 아직 한번도 본일 없는 까르까손느를 보는 것 이다.

피륙이 틀만이라도 좋다. 가을 때 양이 아름답게 빛나는 동안에 갈수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까르까손느를 볼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 으리!

흠이 허리가 꼬부라진 농부가 어느 날 리모—근처에서 이렇게 중얼거렸 다.

“일어서라 벗이여 우리 같이 순회 의 여행을 떠나세”라고. 다음날 아침 우리들은 그의 집을 나섰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를 용서해 주시오) 반쯤 말했을 때 노인은 길바닥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는 끝내 까르까손느를 보지 못 하고 죽어간 것이다.

— 구스타브·나도우 시에서 —

이 불란서의 밤은 농부와 같이 까르까손느를 가려고 꿈꾸고 꿈꾸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나도 또한 그러한 사람이 다. 그러나 나는 저 노인보다는 행복 하였다. 나는 이 로렌스의 도시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바란다면 그곳에 페 리고 가서 저 흠은 농부가 왜 죽기 전 에 지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 까

르까손느를 보고 싶어 하였는가 를 르쳐 주고자 한다.

여러분과 무같이 그 농부도 젊은 시절에, 여러가지 매력에 넘치는 중세 (中世)의 이야기, 가령 갑옷과 투구를 걸친 기사(騎士), 비탄(悲嘆)에 잠겨 처녀, 잔인(殘忍)한 왕이나 식인귀(食人鬼) 용(龍)과 같은 이야기 를 들었다. 그는 언덕 위의 성(城)이야 기도 들었다. 그것을 공경하는 사람은 가교(架橋)를 건너 진(鎧)으로 길을 트고 지키는 자는 성벽에서 함성 을 지르면서 오는 기쁨이나 빛날 듯 하다는 화살을 퍼부으면서 이를 맞아 싸 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리고 편 경에는 자신도 높은 성벽에 둘러쌓인 이곳을 수비하는 일원(一員)인 것 같 은 좌각(錯覺)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젊었을 때 시절 이 지나 이를 벗어 놓은 오늘날에는 이야기에 나오는 그러한 성무(城樓)는 몇개의 예외(例外)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애져서 어느 것은 무너지고 또는 폐허(廢墟)가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폐허도 가장 규모가 큰 것 하나가지 금아적도 남아있어 돌 하나하나가 옛모습 그대로 자랑스럽게 서있는 것 이다. 그것이 까르까손느이다.

만약 그곳에 갈 수가 있다면 역사책 속에 나오는 것 같이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 강력(強力)無類(無類)한 사관(侍官)군을 물리치고 또한 가장 용감하였던 왕이나 대장(殿將)의 도전(挑戰)한 가교(架橋)라던가, 탑(塔) 성벽(城壁)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병사들의 함성이나 총진(銃鎗)소리가 울려 퍼졌던 성벽 위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열광적인 과거의 모든 것이

까르까손느에는 남아있고 보존되어 있 는 것을 알고 처음 기사(騎士)들의 이야기 를 책에서 읽은 이래의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하여 이 도시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질 것이다.

그러나 시(詩)가 어떤 실현을 보지 못 한채로 시(詩)가 어떤 실현을 보지 못 슬뿐 사실이야 알 수 없다.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불행은 찾아 올수 없다. 우리들은 지방(地方)에서 스페인을 횡단(橫斷)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어 저의 까르까손느를 볼 수 있을만한 지점까지 이르렀다. 이 마을은 불란서의 남서부(南西部) 에 있어 프랑스의 산성(山城)인 리방의 중요한 중심지였다.

페페로적이 우편을 받았지만 몇번 이고 재건축(再建修築)되어 고대 로마 제국의 성채(盛衰)를 손수 보 고 걸어 왔다. 그리고 그후 八세기 동안 구라파의 이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호전적(好戰的)인 서(西) 고—트족 (族)들— 서기五〇七년까지 남불 (南佛)에, 그리고七一一年까지 스페 인에 왕국을 건설하였다—은 三〇〇년 동안의 도시를 그들의 수도(首都)로 삼았으며 사관(侍官)들은 五〇년 간 이곳을 점거(占據)한 마도 있었고 중세기(中世紀)에는 오랫동안 무서운 포위(包圍)가 계속되어 여기를 확보 하려고 불란서 국왕에 대하여 수없는 도전(挑戰)이 있었던 것도 유명한 사실이다.

이 지점(據點)을 확보한 사람은 누구던지 이 성벽과 군사력을 더한층

강화하기에 노력하였고 카르카손느를 손에 넣은 귀족(貴族)은 처음 막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였다.

一一八五년의 것이 불란서 국왕수 중에 있었을 때 성에는 二종의 성벽이 둘러쳐지고 성벽에는 五四개의 성탑(城塔)이 배치되어 거기에 군정하는 자를 모두 제지(制止)할 수가 있었다.

실사 직군이 성벽을 깨뜨리고 물이 오더라도 성안의 전부를 탈취(奪取)하기란 대단히 곤란하였다. 카르카손느는 전투적이어서 전함(戰艦)과 폭탄은 방위력을 가지고 있다. 一三五六年 후배자(黑太子)——譯者註, 영주 황태자 에드워드(에드워드三世)의 아들들을 말한. 항상 전은 웃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지 못하였다——가공략(攻略)에 실패한 이래 그후에도 몇번이나 탈취가 시도(試圖)되었으나 카르카손느 성은 응전도 하지 않아야 성을 공략하려는 것은 후사히 암산(岩山)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를 하였다.

그러나 몇세가 지나는 가운데 이 마을의 방위력은 점점 약해지고 중요성은 희박(稀薄)해 갔다. 대포가 발명되면서부터는 넓고 큰 성벽이나 성탑(城塔)은 옛날과 같은 위력(威力)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었다. 시민들은 언덕을 내려와 들을 건너 불발의 해이점으로서 그 옛날에는 천구라파의 서가 장교한 성벽에 둘러쌓여 있던 도시의 하나를 거의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성은 굉장하게 교묘하고도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몇번의 지 난 오늘날까지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우선 오드강 상류 한쪽 끝에 세워진 카르카손

느성의 원경(遠景)을 바라다 본다. 우리들과 언덕과의 사이에는 七〇〇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이다. 그것은 총사히 七〇〇년전의 원정(遠征)이라 할 수 있다. 원정(遠征)이라 하면 시대의 대로의 광경(光景)은 보이며 눈앞의 눈물 가지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만약 우리들이 다른 상념(想念) 없이 그곳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공략군(攻略軍)의 나팔소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감투(冠帽)를 번쩍이며 폭풍우 같은 위세(威勢)로 언덕을 달려 올라가는 모습과 또한 성안에서는 이것을 맞이하여 창이나 활로 응전(應戰)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공략군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이 언덕을 올라가 보기로 한다. 성벽 밖에 있는 도랑의 절벽에는 다리를 건너 응전하게 무장된 문병들이 서서 대하게 두점으로 된 성벽을 지나 별세제로 들어간다. 옛날 길들이 좁고도 무불루한 가로(街路)의 출대서 기울어진 채 서 있다. 눈에 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물 지키고 있던 무사(武士)나 석구(石弓)을 쏘던 병사들은 대체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성벽에 의지 마다의 무사(武士)를 맡고 있던 잡종(雜種)은 무사(武士)나 이 화랑(花郎)한 성에 생명의 타(依託)하고 있던 귀부인들이나 기수(旗手) 시종(侍從)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성벽에서 다시 성탑 안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잖아 있다. 이 탑의는 공략군의 대하의 물이나 화살을 띄우던 구멍들이 있다. 우리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五〇개의 탑층의 하나에 불과하며 여기서 남의지 四九

개의 탑을 바라다 볼 수 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탑에서 장을 건너 근접(近接)해 오면 많은 처군을 들먹였어 보았을 것이다. 카르카손느 백작(伯爵)은 모를 지키기에서 불란서 국왕의 군대를 대거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공략군이 첫째 성벽에 달려들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화살이나 기름같은 연소물(燃物)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다.

공략군은 일단 후퇴하였다가 다시 더 많은 사다리와 군세(軍勢)를 정비하고 더한층 굳은 결의로 전진하여 이번에는 첫째 성벽에 달려들어 그것을 넘어서 해도(殺到)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또 다시 견고한 둘째 성벽 쪽으로 있는 좁은 길의 덩벼들고 있음 을 깨닫게 된다.

그 때 성을 지키던 사람들은 성안으로 후퇴하여 성벽과 성벽 사이로 던지는 것을 가져들이 처리한다. 국왕의 군대는 둘째 성문의 해도(殺到)할려고 기도(企圖)하나 여기서 파부의 자는 화살의 위력은 一〇배나 되어 병사들은 차례 차례로 밧아 넘어져서 체단(體斷) 문에 손을 대는 자 조차 없다.

여기에 힘을 얻은 카르카손느 사람들은 안에서 성문을 열고 성벽과 성벽 사이의 좁은 길로 몰려든 국왕군을 다치는 데로 해치워 버린다. 벌써 승패는 결정되었다. 국왕군은 형편없이 분쇄되어 살아남은 병사들은 암울 다투어 도망친다.

이와같이 카르카손느의 싸움은 초연(哨煙) 속에서 시체와 죽어가는 사람에 둘러싸인 채 지금 다시 한번 그 군사적 위력을 과시(誇示)한다. 이상 말한 것은 모두가 지난 날에서 얻은 막대한 기록의 지나지 않는다. 이미 카르카손느 군대 공적(功績)을 받지 않게 된지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성에는 사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나 십자군, 사라센족, 서고트족, 후방크족(譯者註)——켈트 민족의 하나로 中古 라틴어 부분(部分)에 있었다. 불란서 사람물의 망령(亡靈)이 지금껏 이곳에 머물러 있어 캄캄한 밤에는 언제나 텅 빈 성벽 길을 행진 하면서 서로 말없는 가운데 성벽 탈취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무렵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보물안으로 들어가 그 안의 묻혀있는 보물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카르카손느 사람들은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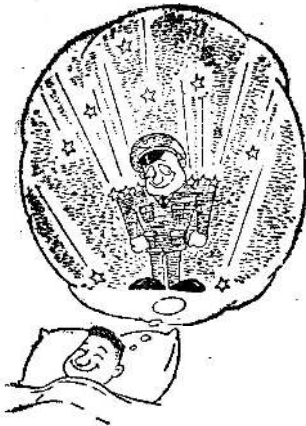
우리들은 이 로멘스의 도시에 차별을 하기 위해서 아작도 하늘 높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성탑을 활달 불아 다룬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시(詩) 속에 있던 혹은 농부의 소원을 회상해 본다. 오직 하나의 그의 소원! 더구나 이루어 못 한 그 소원들! 우리들은 그를 위해 슬퍼하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보다 친절하였던 문명의 신(神)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謝)한다. 우리들은 기사도(騎士道) 시대 부녀의 경의(敬意)의 도시 카르카손느를 이 눈으로 본 것이다.

▲譯者註 카르카손느城은 古代로 마서 사람들이 처음으로築城하였고 一三世紀에 이르러 크게修築하였으며 一九世紀後半期에 다시復舊되어 各時代의 기술을保存하고 있다.築城者인 귀오이에 루·듀크의 이름이有名하다. (사건은 카르카손느城의 外壁)

<만화>

除夜의 鍾이 울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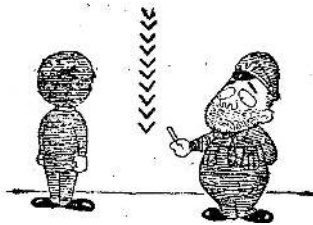
고 두 현



새해의 꿈을 '새해는- 별이 어찌나 많고 밝아지네'



'새해는 별이 어찌나 많고 밝아지네'... 새해는 별이 어찌나 많고 밝아지네'



'이제 무슨 방법을 입니까?'
'이름이 가면 내게 사탕을 10개씩 주는 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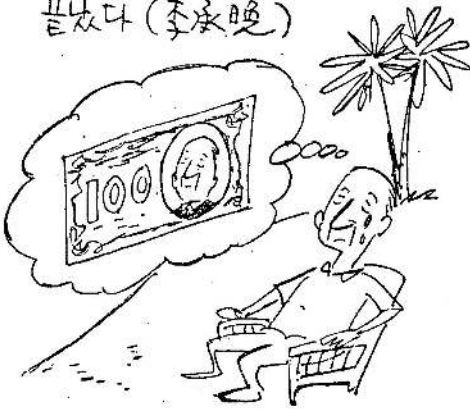
'고여! 새해는 반야월'

1962

1962 年 金 庚 彦 除夜의 鐘이 울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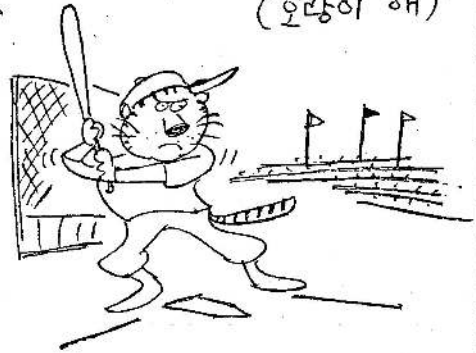
◆ 貨幣改革 ◆

이제 나의 4命은 冥壽히
끝났다 (李承晩)



◆ "디트로이트·타이거스" 팀來韓 ◆

보람있는 이해의 마지막을
裝飾해주었다
(호랑이 해)



◆ 귀~바過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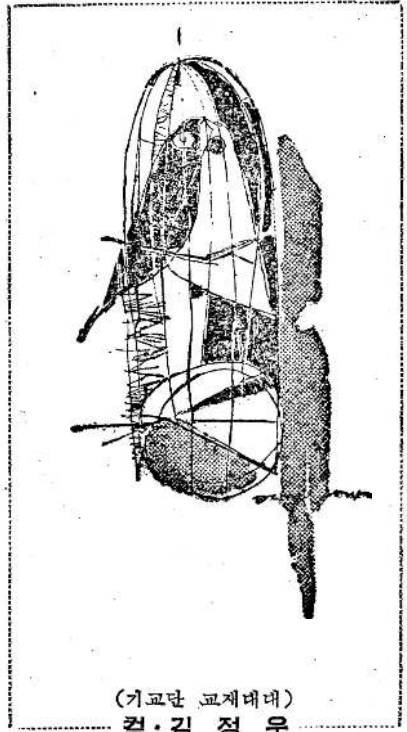
외~로운 ~와 나배
하바나를 떠날때 ~스
(후루)



◆ 印 中 共 交戰 ◆

앗! 韓國軍이다... 도망
가자아 (6.25 慘敗)





(기교단 교체대)
컬·김점우

원先生見聞記

(完)

桂文樹

第四話 名指揮官論

나는 좋은 애기진 곳은 애기진 사람
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
문의 애기에서도 이름을 알 수
없다. 나는 어느 공단 문관 포렌
수인 등이 있었는데 이날 밤, 그 문
관은 야간을 마치고 공군대령관 직차
의 관승하의 처음 보았사피고 그곳
에서 한참으로 잔야하고 집으로 갔다.
그런데 나의 소개하는 한토라의 지
휘관은 전차안에서 그 문관포렌의
한 말이다.

『훌륭한 지도자, 명 지휘관이란 내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나는 훌륭한
지도자다, 나는 명 지휘관이다. 이
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명 지휘관이다. 나는 명 부대
장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는
이미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돼
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하고 대령은 뒤에 앉아 있는 문관을 볼
아보았다. 그리고는 곧 말을 계속했
다.

『나는 명 지휘관이다. 나는 훌륭한
부대장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
의 생각은 결국, 나는 이 부대에 서
가장 좋은 사람이다. 나는 명명하
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앞서는 사
말일 것입니다. 이별 경우 그는 이
미 부하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부하들과 유
리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국민과 유리되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 결코 부
하로부터 유리된 세계에 살고 있지
는 않을 겁니다. 부대, 그것이 곧
자기이며 전 부하 장병이 곧 자기
일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
이 가려온 때가 자기가 가려온 때이
며, 국민의 담당할 것이 곧 자기의
담당할 것이어야 할 겁니다. 어떻
습니까?』
대령은 또 문관을 돌아보았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겠지요.』
하고 문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병이 육한속에 보조를 서 있다.
지휘관은 나는 부대장이니 더운 방
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
각한다면 그 부대가 장군의 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한(韓)도 장군
이 가는 부대는 부하 전 장병이 그
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생명을 바치
겠다고 할 해요. 그분은 내가 지휘
관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안 가진 문관이다.
우리가 있다면 그 분과 같은 지휘관의
百명만 있다면 애기가 달라질 것입
니다. 명 지휘관이란 쉬우면서 어
려운 일입니다. 부장의 장군이란 그
러한 지휘관의 통솔하고 있는 부대
를 말하는 것으로 나는 압니다.』
원차는 어느덧 서울역에 이르렀다.
나는 이 대령의 말을 좀더 듣고 싶
으나 문관이 내리는 바람에 저들을
수 없었던 것이 유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그 대령은 이런 말을
했었다.
『그런 지휘관은 대개가 가난하게
살아요. 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싫다면 돈벌이하는 상인이 되어야
지요.』
나는 지금도 이 대령의 말이 머리
속에 남아 있으며 그야말로 훌륭한 지
휘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S구민학교 5학년 어느 아동이 집
이 가난해서 점심은 물론 아침도 굶
은 채 학교에 나온지가 벌써 사흘째 된
다는 사실을 알게된 그들 전 5학년
같은 학급의 아이들은 스스로 의논해

역에서 합승으로 갈아탄 문관은 신
실동 어느 골목에 들어가자 약방에 들
러서 잠기약을 샀다. 그래서 나는 약
방 아주머니 손으로 옮겨졌다. 그러
나 나는 이 약방에서 10분도 머물지
 못했다. 서른두세살 되어 보이는 남
자가 5백원짜리를 가져와서 기침약
을 사는 바람에 나는 거스름돈에 끼
어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
이다. 남자의 집은 약방에서 가까웠
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자 거스
름돈으로 받은 나와 나의 동료를 책
상위에 놓고는 약을 마시고 그대로의
이들었다.

第五話 먹지않아도 배부 른 이야기

서성의 것쌀을 모았는데 그것이 두 발이나 되었다는 것이며 학급대표가 쌀을 결사의 집에 전해준 뒤에야 담임선생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갈아서 담임선생은 자기도 쌀 한말을 팔아서 학급대표에게 주고 그 사실을 교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에게 말했지만 모두들 각겨하여 담임선생끼리 쌀을 모으고 있는 중이며 아동들은 아동들대로 각 반장이 주동이 되어 학우들의 부모들을 방문하여 사실을 면하고 구호미를 모으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어린아들의 그러한 착한 마음씨의 감격한 부모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기사를 다 읽고 난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때 그의 부인이 미다지를 옆고 들며 다보며,
 『여보, 출근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의천소래 제쳐요?』어서 아침을 드세요.』
 하고 재촉을 했다.

『아—, 오늘 아침은 참가복종은 아침이야, 아들다운 아침이야.』
 이 기사를 어서 읽어보우.』
 하고 남자는 신문물을 속내를 읽었다.
 『그게 뭔데요.』어서 아침 드세요.』
 『안 읽어봤어, 안 읽어두 배가 불려,』
 그 기사를 읽고 나니,
 『무슨 기사예요?』
 하고 부인은 신문물을 들여다 보았다.

『착한 어린이들! 정말 훌륭한 어린이야.』
 『나, 뭐라구 이제 알았어요? 벌써 담임선생의 입이 봐요. 우리집 꼬마 두 딸을 가져왔어요.』
 『응, 그래 좋아— 좋아.』

『어서 드세요, 국이 식어요.』
 『아니, 안 먹구 그냥 가겠어. 나는 어찌나 기쁘지 정말 밤이 두 배가 불려.』
 『자네 제법 늙었는데.』
 하고 남자는 제발라 웃을 입기 시작했다.

『어마나, 정말 안자지 않아요?』
 『여보, 꼬마를 사랑해줘.』
 남자는 웃을 입고 모자를 썼다. 나는 지금까지 그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몰랐지만 웃음 다 입고 보니 그는 늙은 학교도 믿음직한 공군대위였다.

정말 아침을 들지 않고 집으로 갔다. 부인은 침이 등그렸다.
 『그러나 그다음 부인의 얼굴의 눈미소가 떠올랐다.』
 『그리도 그는 방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상견의 학교갈 시간 됐어.』
 『아니, 그리구 오늘은 아버지 전지를 내가 먹어요.』

第六話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 는 이야기

어느 상견의 금고 추에서 오렷한의



『오백원짜리 락을 만났다.』
 『당년 안녕하세요? 저 보다 전장이 매우 좋습니다.』
 『자네 얼굴은 아직 훌륭할 하나 잡히지 않은 팔라 팔라한 피부였다.』
 『자네 제법 늙었는데.』 나는 세상에 나온지 자네보다 일천(日淺)하니 까. 그러나 요는 정신이 전강해지지.

우리는 인간들과는 생각이 달라서 꼭 『전강한 유제에 전강한 정신이』
 이 누구 몸은 비록 노쇠해도 정신은 시종 일정한 것이 우리의 두 것이 아닌가.』
 『좋은 말씀입니다.』
 『그간 재미 있는 일화도 있겠지요.』
 『말세, 하나 들려줄 얘기가 있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파칠전 의 일인 때 어떤 젊은 사람이 주머니에 끼어서 병동 밖으로 나왔는데. 이 친구 락을 하는 작자인자 포켓마다 백원짜리가 가득하게 들어있지만, 두 사람이 밖에서 두어 시간 잘 들어키는 데 여자 세사람이 붙어서는 아양을 면고 야단이겠지. 아마 이 젊은 친구, 그 막이가 단골인지 『달아』

『하고는 그냥 나가더군. 그러자 자라는 쪼고 애브장한 여자가,』
 『미스티긴, 온 백원만 줘요.』
 『백원?』
 『꼭 쓸대가 있어서요.』 백원만 줘요.』

『하고 민자는 아양을 부린다.』
 『미스티긴은 포켓에서 백원짜리 한장을 꺼내어 쪽 내밀다가 갑자기 도루 달고 다른 포켓에서 나를 꺼내주며,』
 『이걸 세.』
 『하고는 두말 않고 절어나갔다.』
 『미스티긴이라는 사내가 나가고 난 뒤 좋은 조용해 졌다.』
 『애민자, 내일 그치가 오거든 한五千원 달래다.』
 『내일 오지 않을 것이다.』
 『나쁜 의자가 농을 했다.』
 『아나 아니. 참 아니, 저네 안 먹었쥬?』
 『합승할 밖엔 없는 걸 뭐.』
 『나는 합승할 두 없었어.』
 『우들이 배두 먹어.』
 『그리구 할 얘기가 두 있어요.』

『민자와 여자는 밖으로 빠져 바로 옆에 있는 대웅사당으로 들어갔다.』
 『두 여자는 십원짜리 우동을 먹으면서 민자는 어떤 얘기를 했다.』
 『아니, 나, 내일부터 그만 두겠어.』
 『정말 결심했어.』
 『민자 형편을 나누어 있는데 그만 두면 어떨가니.』

『아니, 물어봐요.』
 『내일부터 도로 공부 사하는 데 자갈치며 가겠어요.』
 『하루에 백(二)십원 줘요.』
 『제가 들어있는 집 아주머니들 나가요 나두 말만 하면 언젠가 두 갈수 있게 되어 있어요.』

雪嶽斷章

楊明文

장엄한 골짜기에

호화로운 옷차림으로,

산봉우리들은

신기서린 하늘을 향해

위엄을 떨치고 솟았을 뿐.

인간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이 거창한

사상의 진주들.

신화속의 괴물들.

『개 뭐예요. 남자들 한테 놀림감이 되면서도 저 녀두 굶어야 하니 이거 뭐예요. 난 정말 결심했어요.』
『나야 든 여자는 약간 놀랐나.』

『애 정말 그러겠니?』
『정말이잖아. 벌써부터 생각이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나가겠어요.』
『민자는 힘을 주어 말했다.』
『애, 그럼 거기 한사람 더 질 수는 없니?』

『누가 잘려요?』
『나두 가겠어.』
『언니, 참 잘 생각했어요, 나하구 같이 자갈치러 가요.』

『바로 이때였다. 옆에서 식사를 하던 청년신사가 그들을 바라보며,』
『실례합니다.』

『하고 말을 걸어왔다. 이 신사는 아까 부터 식사를 하면서 두여자의 애기를 들으며 자꾸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날선한 여자들이 십원짜리 우동을 먹으면서 그리고 자갈치진 풀밭이 노동을 하겠다니, 매우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들은 난데없는 남자의 개입에 당황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고 받은 말을 이 남자가 다 듣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있음이 분명한 것 같았다.』

『실례되는 말을 묻겠소. 두분은 어디 이 근처의 백에 있나요?』
『하고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여자들은 고개를 갸웃둥 거리며 일론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왜 그러세요?』
『아니, 이제 두분의 애기를 들자니 사정도 딱한 것 같지만 그래두 그 용기가 가장스러워서 두분이 정말도』

『로동사의 날 풀밭에 나갈 생각이야.』
『면 그보다는 여자에게 알맞은 일이 있어 그것을 소개해 줄까 하는 생각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민자라는 여자가 물었다.』
『글쎄요, 보니 두분은 모두 애 쓰고 날선한 분들이네 정말 자갈치는 일에 나가겠는지...』

『신사는 여자들의 날선한 몸집을 훑어 보며 아무래도 거짓말만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네요. 정말이에요. 그게 마음편안하구 그러구— 여담도 정말 그만 뒤야겠어요. 무슨 일이던 할테예요, 소개해 주세요요 선생님.』

『민자는 애원하듯 말했다.』
『푸, 그러한 결심이 있다면—』
『하미 신사는 명함을 한장 내주면서,』

『내일 아침 열시, 가만있자 내일은 종일 회사에 있을테니까 언제라도 무방하니 한번 찾아오시오. 그런데 일이란 다름이 아니구 계약회사니까 약을 포장하는 일인데 침은 수입이 적지만 차츰 흥년이 되면 그만 들 수 있구. 늘어나죠. 맘에 있으면 내일 찾아오면 내가 일 자리를 마련해 주지요.』

『명함을 들여다보며 신사의 애기를 들고 있던 민자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푸 부탁드리겠어요. 이 언니하구 내일 꼭 찾아뵙겠어요.』

『그렇게 하시요. 당신들의 뜻이 기쁘게서— 뜻이 있으면 길이 있지요.』

『사장은 한마디 남기고 식탁을 나갔』
『다. 여자들은 공손히 전송을 하고는』

이 집요한 무덤속에

숨가피 울려오는

내부로의 절규.

깊은 불계곡을

설세없는 번조로

흠추며 울려내리는

주우같은 가을물, 물소리

호젓이

발을 잠그고

불이 불는 듯

다오른 단풍을

바라보노라면

얼이 빠진다.

앗차, 나의 인생이

어느풀에 처당울 잠렸는가.

환원하는 시간이어.

순화하는 나의.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다. 두 여자는 좋아서 어쩔줄을 몰랐다. 하나님의 볼보야 쓴 것이라고 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나는 이 두 여자의 후문은 모르네. 여자들이 우동잡으로 나를 식당에 두었으니깐. 그때나 나를 믿고있네. 그들이 밖에서 발을 일으켜서로 인생의 진을 걷게 되었으니라고. 『또 하나 자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네.』

하고형님은 얘기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 보석방지를 두개나 가진 숙한 여자의 손이 금고속의 들이와서 형님을 집어내가는 바람에 나는 인사도 할 겨를이 없이 형과 이별하고 말았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못들은 그 얘기를 꼭 들려야겠다.

第七話 木片化한젠

나를 형사상의 「구거침입」이라 부르는 랑에는 특권적 존재다. 누구의 방의 도둑이 갈 수가 있고 어떠한 방의 도둑이 갈 수가 있다. 신랑 신부의 첫날 밤 방에도.....

『미스 김, 오늘 결혼식에 사람들을 부르지 못하게 많이 왔어군.』

『미스 김의 피복이. 이젠 미스 김이 아닌 사람이야.』

『아, 참 그렇지. 이제부터 부인의 자.』

『오늘 그분 누구예요? 축하할 일이 구구하게 해 얘기를 떠날의 사람 볼 술 마구 웃진분.』
『우리 소장님야. 근데 참, 아까 등 장생들이 제을 함련 보피 왔는 피 보 보니까 바로 그거야.』

『그지라야.』
『그지라야.』
『그지라야.』
『그지라야.』

이것은 어느 신랑신부 첫날밤의 한 컷트이지만 동양생들의 보내왔다는 그 계속되는 그것의 실이 있었지. 누구의 방의 들이거되 할 두권의 책이 있다. 영어 읽이 Reading makes a full man 이라 했으니깐 방 안에 한두권의 책자나 있을 뿐이다. 또 부편이 하나가. No entertain ment is so cheap as reading. Nor any pleasure so lasting as reading. 그리고 한 가지가 없고 책보다 더 오래가는 줄거울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책을 가져면서 읽지 않느냐면 무엇이든 Books are no better than words without being read always. 한가 두편(나무)과 다름이 없겠지.

나를 많은 사람들의 방에서 무편이 되고있는 책들을 많이 보았다. 어떤 사람의 방에는 고급책장에 최단에 서 문광고판에 소개되는 신간책자들이 거의 빠질없이 꽂혀있었으나 그 모두가 한 페이지를 넘겨보지 않은 채 그대로나 랑이 꽂혀있기도 했다. 보기가 좋고 원피 장지로서는 그만이었다. 이 사람은 아마 책을 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실내 장식용으로 구입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보편을 현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이런 책과 그 책을 산 사람울 생각할 때 언제나 느끼는 점이 하나 있다. 『책을 아주 안 사는 사람보다는 그 책도 갖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完)

美·소 軍縮案의 對立點

◇ **美國案** 一九六二年 四月 十九日, 十八個 國 軍縮委會 提出된 「自由世界에 있어서의 全面 完全軍縮條約草案概要」에 그 후의 補正修正點을 加味한 것.

第一段階(三個月).....★ 모든 非核兵器 및 核兵器 運搬手段을 포함한 大部分의 兵器 30% 削減 (每年 10% 씩) 生産도 協定된 率로 制限. ★ 新型兵器 生産禁止. 軍用核分裂物質生産停止. 一定協定量을 非軍事用으로 한다(例 U235 五萬 키로). ★ 非核保有國에 核武器管理權移讓, 核兵器生産援助禁止. ★ 美·소兵力二百十萬으로 削減. 他諸國은 百萬으로. 또는 人口의 1%로. (但 現在를 넘지 않는다) ★ UN 平和監視部隊設置. UN 範圍의 內外 地域에 平和維持機構設置. 國際司法裁에 強制裁定權附與(拒否權不認定). UN 平和軍創設準備.

第二段階(三個月).....★ 모든 兵器의 殘餘 50% 削減. 모든 兵器生産停止. ★ 軍用核分裂物質의 貯藏制限. ★ 美·소의 兵力百五十萬으로 削減. 紛爭解決. 戰鬪阻止에 實力있는 UN 平和軍創設, 強化. ★ 國際行爲規則協定.

第三段階(可及의短期間).....全廢(UN 平和軍만이 남는다) ★ 核兵器全廢, 生産工場解體. ★ 兵力을 國內秩序 유지에 필요한 最少限으로 한다. ★ 어떠한 나라라도 挑戰할수 없는 強力한 UN 平和軍으로 完成한다.

條約發効와 同時에 設置. 軍縮過程檢證(各 段階에 따라서 查察, 殘存軍備, 秘密補充에 대한 查察을 포함한다.)

◇ **소聯案** 一九六二年 九月 二十八日 UN 總會에 提出된 「嚴格한 國際管理下에 世界的 軍備를 全廢하는 條約의 修正案」

第一段階(十五個月).....協定된 制限外의 核兵器 運搬手段全廢. 通常兵器는 第一段階의 軍縮諸措置에 따라 生産縮小. ★ 非核保有國에 대한 管理權委讓. 情報提供을 保留하고 非保有國은 他國의 核兵器의 自國領內 持入을 拒否. ★ 美·소兵力을 百七十萬으로 削減. ★ 海外軍事基地全廢. 外國駐屯軍撤退. ★ 安保理의 責任으로 憲章 四十三條, 各國은 安保理의 要求에 따라 兵力, 援助, 領空通行權을 포함하는 便宜供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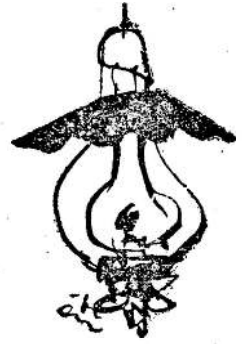
第二段階(十五個月).....核兵器運搬手段全廢. 通常兵器生産 계속 축소. ★ 核兵器와 더불어 모든 大量破壞兵器全廢. 生産停止. IDO 는 原子에너지 生産利用 企業을 管理. ★ 美·소兵力 百萬으로 削減. ★ 國內基地는 核兵器運搬手段廢棄에 수반되는 이들 方法을 위한 基地廢棄以外에는 干涉할 수 없다. ★ 安保理의 責任遂行 계속 實施.

第三段階(一箇年).....民警用以外的 軍事生産 完全停止. ★ 兵力에 있어서 軍隊軍事機關, 兵役, 軍事訓練廢止. IDO 管理下의 民警만이 남는다. ★ 安保理의 責任은 段階完了후, 安保理要求에 依하여 各國民警部隊을 提供. 安保理管理下部隊의 司令部는 拒否權을 가지는 토로이카制로 한다.

軍縮機構는 第一段階前 六個月 동안에 設置, 各段階의 軍縮措置 實行管理(殘存軍備查察을 포함한다. 第三段階完了후에도 無制限管理한다. 總會(全調印國)決定 23. 理事會(常任·安保理常任 五個國. 非常任·任期 三年) 決定 23. 機關要員은 東·西·中立 三國 크립을 代表하도록 選任.

【註】 ① 다음 段階에의 移行은 美·소 兩案을 모두 그 段階의 全措置遂行과 移行準備完了에 대한 IDO 의 確認決定후에 行하는 것이나 美案에서는 그것을 決定할때 常任理事國에 反對가 있을 경우는 該當段階의 期間의 三個月 以內의 延長을 認定하기로 되어 있다.

② 二國의 安全保障 措置로서는 美案에서는 偶發戰爭 및 奇襲防止措置를 軍縮協定成立 以前이라 할 지라도 곧 取할 것. 宇宙平和利用을 위하여 第一段階에서 大量 破壞兵器 發射禁止協定. 로케트生産, 貯藏, 實驗制限을 提案. 소련案에서는 核兵器 運搬手段廢止完了까지 그 移動을 制限하고 그 遵守를 IDO 가 管理할 것. 또 第一段階에서 平和目的의 宇宙 로케트發射場에 IDO 의 管理團을 設置할 것. 또 軍縮條約締結까지에 核實驗停止協定이 成立되지 않을 경우에는 第一段階에서 모든 核實驗停止를 規定할 것.



고향
김규동

한시 \sqrt

고향을 떠나온지 二〇년이나 되어 오는데 고향이야기를 쓰자니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다.

그런은 고향의 대화와 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눈이 나뻘서 쌓인 고향의 산하(山河)가 눈앞에 펼쳐놓았다.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는 겨울이었다. 「합복」이라 하면 우리 반도의 북쪽 끝이요. 저센 금류를 이루어 「백두산」 줄기에서부터 동해로 흘러내리는 「두만강」도 철관절이 얼어버린 엄한이 계속되는 곳이다. 그런 곳에 서나는 서울로 왔다. 서울에 낙엽이 지고 첫얼음이 일고 눈이라도 내리는 계절이 오면 어느새 나는 고향 생각을 하고 무슨 수실이라도 있는 사람같이 말이 없으진다.

생각을 하는 때는 말을 잘 하지 않

는 것이 나라는 인간의 성격의 일면이다. 그 생각이란 언제면 고향을 가보나 또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것이다.

「백아머」장군이 오솔아침 신문물을 보나 자기는 통한(統韓)이 되기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도 생기지만 두갈래로 나누어 푸른 푸른 산이 되어 우리가 깨가 깨어나서 자란 산천인 고향에 한번 가볼달이 과연 언제 올지 정말 알담해진다.

서울에도 눈은 많이 오지만 우리 고향에는 함박눈이 겨우내 내린다. 그런 눈속에서 소년시절을 보낸 나에게 는 부부의 실정(實情)이 언제나 정신의 큰 배경을 이루고 있다.

눈이 내리는 북쪽— 겨울이면 생각나는 것, 고향, 이야기나 써 보자.

☆

회갑을 지낸 홀어머니를 남겨 두고 내가 서울로 떠나는 아침에 우리 집에서는 모두 눈물이 글성거렸다.

『몸이 약한데 참매서 자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공부하라. 무리는 말아라. 집시정을 람하지 말아라. 네 말대로 삼년안에 삼팔선이 열리면 또 다른 내게는 되겠지만은 몸을 조심해야 한다...』

『경제선이 미소양곡의 함의로 해결이 됩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무 리고 생스러우시드라도 어머니 물아 가지지 말고 살아 계십시오. 남쪽에 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 괜찮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저정을 마세요!』

이런 모자(母子)간의 대화가 때론 밖을 나서서 하얗게 쌓인 눈길 위에서

오고 가고 하였다.

『내가 가는 길 물은 찬성은 찬성이 다. 현대 그 저이 체부터는 집이 텅 비는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가야 할 몸이고— 어서 떠나자라. 늦어지면 더 추워진다. 그리고 어디 가서나 그 애의 일을 깨닫고 있어라.』

어머니는 글성거리는 눈물을 물아서서 닦으셨다.

그애일이란 나의 여자친구 P의 이야기다. P는 만주에서 연극단체에 다니면서 배우 노릇을 하면서도 P는 마음씨 좋고 의연한 여성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의 한방을 내어서 그녀를 얼마동안 지내게 한 일이 있었다. 문학을 좋아하였던 나는 여자의 몸으로 연기자 노릇을 하는 그녀를 매우 중하게 여기었다. 의롭게 타향에 떨어진 연극하는 무명소녀—

그녀의 다정 다감한 마음씨에 나는 것이 이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마을에서 「출항전」 소인극을 하고 나서부터 더욱 그러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P에게 갔다 주었다.

P는 또한 훌륭한 목소리의 소유자였다. 씨찰 노래를 불렀다. 나보다 한두살은 아체인 P는 그러나 몸가짐이 언제나 어른 같았다.

어머니는 다 큰 처녀 총각이 같은 처마 밑에서 주아로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눈으로 보시었다— 친절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

겨울 밤이면 생각나는 일들

머가 작게 지내서는 안된다. 너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고 또 너는 돌아다니는 여자가 아니고 또 너는 돌아다니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항상 나에게 주의할 줄 아는 것이었다.

그러한수록 P에게 많은 동정이 있었다. P도 일다가 지 않아서 나를 때릴 때 귀한집 자식처럼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만으로 대해주는 것이었다.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란 것은 그러나 단순하였다. 취미가 비슷한 두 남녀의 사교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그녀는 너무나 어른 같았다. 너무나 좋은 체격을 가졌으며 아름다운 표정을 가진 P는 내게는 너무나 어른 같았다.

P는 우리집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았다. 그것보다도 자기로 말미암아 내가 할 말이상이나 「교도소」 신세를 지고나 왔다는 것도 함께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녀를 주연으로 연극을 한 날 밤에 짐일삼다도의 배라가 장내에서 발견되어 그 책임을 내가 지게 되었던 것이다.

연극을 한 그 자체도 P를 하루라도 피우지 않는 데를 크게 하여는 나의 유심에서였다.

『그애일은 깨끗이 있어라.』 물론 나는 그녀를 사도했던 것은 아니다. 의로운 처지에서 서로 가까이

친구가 되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나보다 먼저三八선을 넘어 서울로 나온 P를 잊으라는 부탁이다. P는 떠날때도 우리집 어머니 때문에 출발을 당겨서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주변을 정제하고 행여 다칠 세라주야 마음을 쓰시는 六〇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나와는 저의 눈물로 서로 이별하고 우리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P가 떠날지 오래되었어도 P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눈이 쌓여서 한길색은 되는 때 나는 五〇리 길을 도로로 Y읍에 닿아 그곳에서 「철원」행 기차의 손님이 되었다. 여행중 면서 하나 없는 나는 형사나 기관원의 눈길을 피하여 5박 사흘을 숨어져 「철원」까지 탈출해 나올 수가 있었다.

서울! 서울만 가면 마음을 피고 살 수 있다 자유가 그곳에는 투수리 날개처럼 너를 거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동구앞에 서서 돌아설 줄 모르는 어머니를 뒤에 남기고 먼 신작로 눈길을 떠들면 그날의 일들이 지금도 눈앞에 선다.

『살년안의 통일이 된다.』 언니의 어머니의 약속은 어찌 되었나. 二〇년 가까운 세월이 사정 없이 지나갔지만 아직껏 고향에 돌아갈 날은 멀기만 하다.

그러고 그대의 P는 지금 어찌 되었을까. 어머니의 말씀 하시지 않아도 나는 P의 일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 밖에 없었다.

남쪽으로 가면 P도 행여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였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P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 눈이 나리는 겨울이 올때면 고향과 어머니와 눈물과 P를 아울러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P는 내 젊은날의 추억속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P의 모습이 때로 그리워진다.

☆

오쪽한 코와 검은 머리카락 두환술도 한잔쯤 문체 없던 만주벌판에 자란 여자. 살류구단의 다니고 「트랩펜」호느끼는 천막안에서 붉게 타오른 젊은 가슴. 시인을 좋아하던 검은 눈동자. 담배도 피고 누구한테나 잘 웃던 그녀. 四〇, 五〇대 남성을 아우름 현 안들이고 물리치고 소녀같이 걸친 웃던 만주 아가씨. 러시아 소설같이 깊음과 탐스럼던 그 일련행복의 별친들은 일출——.

전방진 교도소 간수들을 한 마디의 채켜 버리고 사나이의 면회를 청하오 유쾌하게 웃어 보이면 그녀. 언제나 자유스런 몸이 좋다면 젊지만 이른같이 성숙한 그녀의 이름은 만주서는 연극하는 처녀였다.



젊은 날의 어느

겨울 이야기

이종환

△作 △家△

나는 그때, 지금은 國立圖書館인 總督府圖書館에 다니면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한 겨울 어느 날도 圖書館은 언제나 超滿員이었다. 醫師檢定 試驗 보는 사람, 辯護士 試驗 보는 사람들, 이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서 있는 것이었다. 나도 이듬겨전날부터 서둘러 달려 와서 줄에 끼어 門 열기를 기다리곤 했다. 이 추위에 아까운 열기 熱心들일까 싶었지만 나의 境遇를 다루어 본다면 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찍 달과 오게 되는 것이었다. 圖書館에는 인제나 스텝이 후끈 후끈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무렵 朴木月氏의 季氏인 泳鏞君과 같이 積善洞에 방을 빌려 自炊를 하고 있었다. 泳鏞君은 나보다 한 두살 아래였다. 伯氏의 影響을 받아 역시 詩를 공부하고 있었다. 그의

性格과 비슷한 가냘픈 詩를 쓰고 있었다. 그 후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療養生活을 하다가 結婚도 못한 채 아깝게도 六, 七年前에 不歸의 客이 되고 말았다. 나의 故鄉 친구로서는 같은 文學少年으로 가장 친한 사람이었다.

나는 滿洲 放浪의 遺物인 나타의 두 달담도 등숙을 전담포에 감혀 自炊費에 보태고 있었다. 결국은 하나도 못 찾고 다 울려 보내고 말았지만 近一年씩 도박 도박 利子를 물어 오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울 지경이다.

잠혀 먹을 것이 없어진 다음에는 가졌던 책을 한권 한권 파다가 팔만한 되씩 팔아 먹곤 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무척히 고생을 했다.

한번은 반찬이 부족해서 고 말았다. 할 수 없이 잔장을 五錢어치 사다가 밥이 차 먹었다. 그것도 열어치고 말았다. 나는 수단을 부렸다. 같은 집에 세 들어 있는 「의왕이」 임마라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저, 아주머니, 양후 소금 좀 주시겠어요. 치안이 그만 열이져서...」

시치미를 뚝 따고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이 소금을 애써 애써 두 끼를 밥에 쳐 먹었다. 다시는 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었다. 다행히 살은 남아 있어서 밥을 짓기는 했지만 아주 편 밥을 먹을 도리 밖에 없었다.

책상 위의 空燈, 열이 불이 있는 일크라도 누워서 치 먹고 싶을 지경이었다. 무어라고 좋은 이 무슨 빛깔을 줄 물려 먹고 싶은 것이었다. 맨 밥이란 정말이지 못 먹을 것이었다.

방의 불을 때 본지는 옛날 같았다. 불을 때지 않은 온돌방에 자고나면 요 밑이 아주 물이 뿌듯 벌어진 듯 축축히 젖어 있곤 하는 것을 발견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늦게 돌아와 방문을 여니가 훈기가 후 끼쳤다. 참이 상한 일이었다. 泳鏞君과 나는 이 신기한 일에 눈이 동그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의왕이」 어머니가 구공란을 잠깐 우리 방 안에 넣어 놓아 주었더라는 것이었다. 이때처럼 人情의 고마움을 느끼는 적이 그리 흔하지 않았다.

방세가 여러 달 밀렸다. 나는 이렇게 추운데 자꾸만 방세를 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참으로 앞이 캄캄했다. 어디서 돈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인데 督促은 성과 같았다. 두루한는 안 주인은 그야 당연했다. 가난상이 없어야 보이기 때문에 더 성화인 것 같았다.

그런 무렵, 어느 날 아침이다.

그 날은 늦잠을 자고 있었다. 女人네들이 잠잠하며 웃어제기는 소리가 요란스러워 잠을 깼다. 잠잠하며 저편에 대는 소리를 가만히 들이 보니 가까이 쓴 「화영이」라는 짧은 童話가 東亞日報에 發表된 모양이었다.

滿洲 있을 때 職場으로 가졌던 滿鮮日報 京城支社長의 紹介로 原稿가가 있었던 것이다. 「화영이」란 주인공이 어섯살짜리 딸 아이의 이름이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아이쿠, 신선님 보시는 대신 부부 삼도 못하겠어요. 호호호호호호...」 우리 한테 안주인이 웃어 보이는 것

겨울 밤이면 생각나는 일들

을 우리는 처음으로 구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얼마동안 방세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 짧은 동화가 이렇게 큰 구실을 해 주었다고는 참 뜻밖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限度가 있었다. 얼마쯤 時日이 지나자 다시 방세 두 주이 시작 되었다.

영웅을 지경에 빠졌다. 생각다 생각다 못해 한번은 가슴이 떨리는 勇氣를 썼다.

집 주인 마나님의 여 동생이 있었다. 동문답적한 얼굴이 배근 배근하게 생긴 處女였다.

어찌다가 골목길에서 마주치면 마저 못해 고개를 약간 숙이는 등 마는 동하는 정도의 처지였다. 물론 말한 번 건너 본일도 없었다. 그때만 해도 내우가 심할 편이었다. 인사할 필요도 이유도 서로 없었다. 누구 인사를 시켜 줄 사람도 물론 없었다.

放送局에 다닌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말만 들었다고 하자마는 이것도 누가 일러줘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데 언니나 형부, 혹은 '의용이' 일나' 말을 주고 받던 것을 들었고 그저 그렇게 짐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創氏한 이들이 무엇이든 것도 그저 그렇게 알 뿐이었다.

이 아가씨에게 돈을 꾸어 보자는勇氣를 낸 것이다. 어찌하니 없는 수작이라면 참어 처구니 없는 수작이다.

市廳에 公衆電話가 있었다. 電話通문을 열고 들어서는 가슴이 먼저 제법 冒險을 느끼게 鼓動을 일으켰다. 「저기 Y상 제살니까?」

아주 침착하게 말을 건넸다. 일은 이미 저지르고 말았다.

「의복세요, 저 Y인데요.」 드록도룩한 바로 Y양의 음성이 컹전을 울린다. 가슴이 한층 놀래 뛰었다.

「저, 배에 발 빌려 있는 R입니다.」

「네?」 「저, 벽에 발 빌려 있는 R입니다.」

「.....네.....」 그제사 짐작할 한 모양이기는 하지만는 당황 한듯한 숨소리가 된다. 하기는 인사조차 없는 사람이 똥똥자같이 갑자기 전화를 걸었으니 당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피 죄송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저, 벽의 방세 때문에 삼실원쯤 돌려 주실 수 없겠습니까?」 나는 대단하게 단숨에 지켜버리고 말았다. 어찌자고 이런 소리를 꺼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 일이다.

「네.....」 여자는 좀 난감한 표정을 짓는 듯했다. 나는 시치미를 딱 때고 가만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저... 삼실원 다 빌는지 몰라도, 하지만 어떻게 해 보겠어요.」 나는 승리감 같은 것을 느끼며,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요.」

「어디, 아실만한 예를 말씀해 보세요.」 「저, 종로, 경성다방 아세요?」

「네, 압니다.」

「이층으로 오시지요.」

「그려겠어요. 다섯시 받습니다.」

전화통을 나오면서 호모이 피어오는 微笑를 참을 수 없이었다.

그 때 든 삼실원이면 우리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렇게 다는 안 된다고 했지마는 아무튼 힘껏 주신해 보겠다는 約束을 받은 것이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欣然케 해주었다. 一言之下에 힘써 보겠다고 約束해 준 것은 벌써 그만큼이 쪽을 내는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重要な 것은 나에게 好感을 갖고 있다는 反證이기도한 事實이다. 무엇보다도 自信을 갖고 電話를 걸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 蠻勇의 苦笑 지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저를 해는 잠았다. 그런데도 다섯시 반이 어찌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려지는지 몰랐다. 돈을 꾸어 주인 마나님의 그 양친인 방세독후속 소리를 모던하는 것도 실로 多幸한 일이다. 마는 이런때에 예쁘장한 처녀와 단들이 茶房에서 만나는 것이 나를은 흥일 조조로운 즐거움으로 휩싸 주는 것이었다.

定期前에 勿論 나는 二층에 가서 待期하고 있었다. 階段이 한가운데로 울려 있었다. 階段에서 올라오는 일꾼을 바로 바라 볼 수 있는 자리를 잡고 앉았음은 勿論이다.

이 무렵의 내 행세를 말하면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언제 理髮에 갔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였다. 머리는 길 때로 길어 귀를 덮고 있었다. 이것은 그때도 그 무렵의 文青이나 혹은 美術青年들이 흔히 하고 다니는 물결이

라고 해볼 수 있지만 韓服 바지가 땀이 닳아 솜이 비추비죽 내 밀고 있었다. 두루마기 동정은 가루잡잡하게 때가 올라 있었다.

이윽고 치녀는 나타났다. 내가 먼저 발견하고 약간 緊張한 얼굴로 말을 했다.

Y상은 이것밖에 되지 못 했다면서 二十圓을 내 놓았다. 나는 확 上氣하면서 돈을 받아 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러고부터 Y와는 몇 차례 더 만났다. 한번은 나오미니,

「언니가 제가 선생님 만나 뵙는 걸 눈치 챘어요. 혼났어요.」

하고 서글픈 얼굴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시면 만나지 않도록 하지요.」

이것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돈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도무지 기억 나지 않는다.



洞窟속의 일곱

李敬南

〈新太陽社編輯長〉

그곳은 洞窟이다.

겨울이 아니라도 그렇다. 내가 걸어온 짧은날의 道程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어떤 일흔들을 문득 回想해 보노라면 영나없이 떠오르는 그 洞窟속의 그 일흔들.

그러나 겨울밤, 더우기 한바눈이 펄 내리거나 눈보라가 하늘을 생생 울리는 밤이면 더욱 사모라게 떠오르는 일흔들이 있다. 그 洞窟속의 그 일흔들이다. 「키리막자도」의 靈峰 위에는 神秘스러운 巨獸의 굶은 뼈가 있어서 검은 大陸을 찾는 旅行者들의 好奇心을 끈다고 하거니와 내가 잊지 못하는 그 洞窟은 好事家들의 冒險이나 觀光의 對象은 아니다.

그 洞窟의 이름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니 처음부터 이름이 없는 洞窟이었다.

벌써 十年이 되어 간다. 겨울을 앞둔 우리들은 工作基地를 整理하고 이른바 冬季作戰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九月山 一帶에 잘려있던 수많은 遊擊隊員과 工作員들은 한여름 가을 동안의 對共作戰成果에 自慰하면서 西海地區 後方島嶼基地로 撤收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온 겨울 동안 九月山 基地를 空白地帶로 남겨둘 수는 없었다. 누군가를 그곳에 남겨 두어야 한다. 上部의 作戰指示도 그렇거니와 새해의 春期作戰을 위해서도 그 九月山 基地에 단신한 橋頭堡를 남겨두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들이 九月山 땅굴속에 無電機를 設置하고 남아 있어야만 우리들 反共遊擊隊는 安心하고 겨울을 일 수가 있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越冬工作隊가 編成되었다. 四十을 바라보는 老隊員에서부터 열

일곱, 여덟 정도의 少年員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七名이었다.

나는 그들의 組織, 訓練教育, 潛入 護送까지의 責任을 맡았었다.

적지않은 志願者를 가운데서 選拔된 그들은 별로 투정이나 要求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任務가 워낙 막중한지라 되도록이면 그들의 士氣를 들구어주고 出陣以前의 며칠간의 休息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리저리 配慮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마음을 쓰면 쓸수록 鈍感한 사람처럼 泰然 表情으로 出陣 潛入의 난관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었다.

後方基地를 떠나 敵地海岸으로 潛入하는 밤은 바람이 거세었다. 이렇게 風浪이 심한 날이면 본시 船舶運행은 그만두는게 常例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사나운 날씨를 도리어 天幸으로 여기고 닳을 감았다. 海岸線의 敵의 警備가 그만큼 소홀할 터이므로.

激浪에 휘말리는 작은 木船위에서도 그들은 말이 없었다. 나는 내 옆에 앉은 제일 나 어린 少年兵의 손을 꼭 쥐었다. 그도 내 손을 두 손으로 사뭇이 잡는다. 따뜻한 體溫이 흘러나온다. 얼마쯤 지났을까. 海岸線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그 少年兵이 입을 열었다.

지금 몇時죠.

나는 내 손목에서 時計를 풀어 그 少年兵의 손목에 채워 주었다. 少年兵은 빙긋이 웃었다. 이 둘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무척 기뻐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들을 海岸에 내려놓고 돌아올 때, 나는 어쩌면 그들을 다

겨울밤이면 생각나는 일들

시만나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한豫
感에 마음이 어두어짐을 누를진 없었
다. 저울의 橋頭堡를 위하여 敵地인
숙히 찾아든 그들——나는 그들이야
말로 偉大한 戰爭의 叙事詩에 나올 英
雄이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헤어져 逆
의 코오스를 달리는 스스로의 處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七名の 隊員이 무사히 九月山 어느
골짜기에 安着하여 洞窟에 아지트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 無電을 만
기까지 사흘동안 나는 밤마다 꿈에 그
들을 보았다. 그 꿈은 吉夢만은 아니
었다. 뒤송송한 꿈이기도 했다. 그러
나 나는 그 꿈 이야기를 同僚들에게
말하지 않았었다. 방정 맞은 解夢이
라도 나올 것만 같아서였다.

그런데 無電이 온 것이었다. 모두
無事하다는——
그로부터 몇달 동안 그들의 電文은
規則的으로 우리 本部에 入電되었다.
바다를 격한 敵地山嶽에서 추위와 敵
軍의 討伐의 威脅을 무릅쓰고 每日每
日 보내오는 電文.
그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無電으
로는 서로의 安否를 傳하긴 해도 皮
膚로 느껴지지 못하는 絶對한 隔離感
에서 오는 그 孤獨.

慰勞의 電文을 보내면 그들은 한결
갑이 剛志와 自信에 넘치는 소리로
和答해 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불이 되었다. 불은 바다
보다도 산에 먼저 오는가 싶었다. 그
들의 報告文이 차츰 活氣를 띄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들의 作戰部隊는 五月에 入山

할計劃이었다. 그들이 마련해 놓은
橋頭堡는 五月과 더불어 이 作戰部隊
와 交替될 豫定이었다.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지……. 五月
이 채 오기도 前인 四月中旬頃, 아무
런 豫告도 없이 無電이 杜絶되어 버
렸다. 아침, 저녁, 밤, 새벽 할 것 없
이 나는 그들의 물자임을 불렀다. 그
러나 사흘이 가고 다섯과 가고 열흘
이 가고 또 보름이 지나고 和答하는
소리는 없었다. 무슨 不詳事가 난 것
에 틀림없었다. 우리들은 五月下旬을
기다릴 것도 없이 救援探索隊를 보내
야만 했다. 그러나 事務는 그럴 수도
없게 되었다. 一九五三年 봄, 休戰成
立을 앞두고 우리들은 一切의 敵陣工
作中 止命令을 上部로부터 받았던 것
이다. 말하자면 禁尼令이었다. 그로
부터 한달후 우리들은 作命에 따라서
그 島嶼基地마저 拋棄하고 休戰이라
는 歷史的潮流에 떠밀리어 南으로 移
動해야만 되었던 것이다.

그 추운 九月山의 겨울을 이름 모
를 洞窟속에서 5박 7세워야 했던 七
名の 無名勇士들, 그들의 運命이 어
떻게 되었는지 나는 여러가지로 推測
해 본다. 그러나 나의 부질없는 推測
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나는 이렇
게 眞정히 살아서 回想이라는 사치스
런 感傷에 젖거나, 한편이요 그들이
몰랐던 英雄들은 오늘날 원한의 敵地
에서 孤魂이 되어 彷徨하고 있을 테
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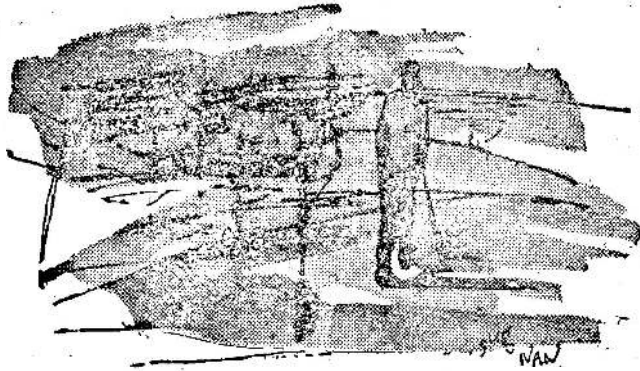
겨울밤이 아니라도 그렇다. 그러나
는 보라가 치는 겨울밤이면 더욱 사모
치게 생각되는 일—— 그것은 洞窟이
다. 그들 일곱명이 無電器를 불붙고
自由의 겨울을 지킨 그 洞窟.

소聯의 美術審査員



「이리야
그라스노
프는 소
聯의 畫家
이다. 그
의 西歐에
있어서의
畫評은 좋

은 편이다. 그런데 이베리아 프랑
스를訪問한 소聯文化人들은 西歐人
들이 「이리야. 그라스노프」를 좋게
評하는데 놀라고 있다. 그理由は
소聯에서는 그를 괴상한 그림을 그
리는 사람으로 보아 대스롭잡게評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소聯畫壇
의 老長들로부터 「異端兒」라는 지
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리야. 그라스노프」는 二年前
에 「레닌의 초상화를 展覽會에 出
品하였다. 그러자 審査員들은
『이것이 레닌이야! 진연 담지 않
았는데!』」
하고 「撤去」라는 結論을 내렸다.
그라스노프가 肖像畫를 끼안고 展
覽會場을 나오자 審査員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도대체 누구하고 맞서자
는 거야. 레닌의 肖像畫는 우리
나라에서는 專門職工이 그리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레닌의 肖像畫가 무엇일지 어느
정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
는 알 수가 없으나 심사위원은 그라
스노프의 레닌像을 보고 그라스노
프로부터서 그녀는 肖像畫家——그
職工을 聯想한 것이다.



鄉 愁

朴 淵 禧

본이안 안개가 언덕길로 흘렀다.
현이 막 언덕길을 추어 올라섰을 때 었었다. 아내가 거러 다래끼를 들고 내려오고 있었다.

『덕산 영감의 오셨어요?』

아내는 쉼쉴만한 표정으로 현을 바라보았다.

『응—』

『어쩌면 그렇게 남루해졌을까?』

『재지니까 그럴 수 있지.』

『내일 아침 첫 차로 강원을 가신대요.』

『그래요.』

『벌써 낮에 오셔서 당신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싱거운 웃음을 띄었다.
제가 살기에도 바쁜데, 노자 돈이라도 얻으려 온 것이 틀림없다고, 믿어.

『모든 일이 생각과는 다릅니다.』

『모든 일이 생각과는 다릅니다.』

『노자 돈 얻으실려고 오신거봐요.』

『정술한 소릴 말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해... 소주 한병 사 가지고 와요.』

현은 물이 잔 떠내려 갔다.

『아버지, 할아버지 오셨어요.』

국민학교 이학년의 다니는 큰놈이 마루방으로 뛰어들어, 덕산 영감의 손목을 잡았다.

『음, 할아버지가 오셨군.』

현이 구두끈을 끌트러, 웃음을 띄어 말할 때, 건너방 영감분이 비스듬히 었었다.

『현관 직유 오나.』

하고, 덕산 영감은 주름살진 검은 얼굴에다, 저의 비굴한 웃음을 띄었다.

『산생님 그도 저와도 구름 났을뿐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일의 좀 바빠서...』

『응, 그러나 고생은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덕산 영감의 내미가 손을 잡고 나서, 현은 마주 앉았다.』

『의외로... 고생이야 나 혼자 하는 건가 아닌게 아니라 고생은 좀 한복달복.』

『나를 위한 사담만 관례로.』

하고 덕산 영감은 천천히 권면할 줄 모르는 듯이 다녔다. 불꽃을 불꽃으로 보았다. 그제서야 덕산 영감의 비부채를 살피고 보았다. 아내의 팔과 보트의 의의

菩提樹 아래서

金 芝 郷

2

黑幕이 갈라설 무렵의
망과 하늘에 서려 있던

물기에서
비늘에서

太初의 빛깔을 反射하는 꽃
幻生하는 生命을 있게 하라.

點火하는 無垢한 菩提나무
빛을 뿜는 兩極의 틈서리에서
해가 뜨고
落下하는 오늘의 小憩

無限大의 높이로 치솟는

가지의 거드랑에서
聖潔한 樹液을 받던

洞口 밖에서나
國境 밖에서도

하나로 이어지는 가슴에
充滿한 무름을 쫓게 하라.

3

苦行의 날을 다 보내어도

아직은 無辜한 犯手
피를 흘리리라

젊음의 旗幟 아래서
歸依하여 아픔을 견디는
씨를 뿌리고

맺히는 씨의 열매.

以後에 우리들

하나로 묶여져 살아있는
뿌리 밑에 溫熱을 심으리라
블뚱을 튀기는 極의
경면속에서

맺히는 熱의 열매.

해가지고
深淵이 내리는 一瞬은
내리는 永遠으로 連接하는
夜光珠의 익은 精汁.

고 있는 양복 부더가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 사 입은 것인저, 하얀와
이사쓰에 인제나 매고 있던, 검은 바타이만은 단정해 보였다. 얼굴과 손은
피안에 걸어 한결 조라한 행색이 드러나 보였다. 덕산 안에서도 파수원을 으
뚱으로 하며, 서슬이 푸르던 자취는 잡아 볼 길이 없었다.

『사업이 라고 할 것까진: 일하면, 노동이 있거! 신통치 않아 이반에, 처분했
네.』

하고, 덕산 영감은 년웃이 현을 바라보았다.
『네—— 무슨 사업이 있었습니까?』

현도 웃음을 띄고 물었다.
『허허허…… 현관은 잠깐 놀랄 걸세. 윗나무 알지?』

『전라도에 가서 윗나무 삼천을 심었네. 아주 황무지였다—— 그것이 삼년지
나니—— 그렇지, 내가 현관을 만나고 떠난지 꼭 사년전이지. 그때부터 시
작 했으니까: 꽤 무성했어. 도무지 마음 속에 구름이 떠 있으니 한 자리

에 오래 배워 있을 수가 없더이.』
하고 덕산 영감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어 웃었다.

『그런 참 선생님다우신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런 참 선생님다우신 사업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별은듯 하면저 좋아. 할 일이 많은 것 같아도 밀천이 들고 사람의
힘으로만 할 일은 그런 정들꺼야.』
『그렇습니다.』

현이 대답을 하지도 덕산 영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 오래 말 없
이 앉아 있었다.

현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현은 다음 순간에야 알았다. 조각처럼 우두
커니 앉아 있는 덕산 영감의 검은색한 얼굴에는, 우수가 되어 흐르고 있는 것
이 었다. 현은 빙글이 눈앞으로 스쳐 보았다. 현이 덕산 영감을 알게 된 것
은 중학이던 때 부터 었었다. 덕산 영감은 파수원의 덕산의 있었을뿐, 늘 한
홍집에서 살고 있었다. 현의 집은 함흥에서 도 오십리 떨어진 두의 산골이
었었다. 덕산 영감의 집의 하수를 정하고 있었던 것이 었었다.

아니, 덕산 영감의 막내동이 석과 한크라스며서, 석과 함께 중학 오년을
마칠 때까지, 덕산 영감이 손 그늘 아래에서 자랐다 함이 더 정확한 말이 었
어아 풀었다.

이러한 경위를 가진 덕산 영감을 현이 다시 만난 것은 이십년이 흐른 「일사
후퇴」 때, 부산에서 었었다.

덕산 영감은 성미가 활발한 사람이 었다. 석자도 뻔뻔하었었다. 그의 아버지

「가」 불라지오스득트에서 개사를 하였을 때, 스프살이 갖 되어 시체를 안고 돌아온 것도 되산 영감이라 하였다. 그것뿐이라면,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 민중에게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이었다. 되산 영감은 아버지의 원수를 따라 이번만에 복수를 하고 돌아왔다고 쉬쉬 했었다는 이야기도 현은 어렴풋이 들었다.

현이 죽었을 다닌 때만 하더라도, 되산 영감은 파수원용 정영하의 일면의 도수 백색을 추수 하였다. 저들이면 도해사를 하여 많은 돈을 모은다는 소문을 듣기도 하였다.

「가만 있었어 배만 고프다는 놈들의야 사람의야!」

이런 뜻 처럼, 되산 영감이 혀를 차며 되풀이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이런 말 저런 말을 가진 되산 영감의 현의 집에 오래 묵어 있을 리는 없었다.」

「현군, 나 진라도 죽으로 보겠네!」

「어디나 현에게 말하마, 노자 두엄마를 마련해 달라 하였다.」

「갑자기 진라도의 가지면, 필 하 시킴이나? 더 무고 체십시오!」

「아니네. 부자 지간에도 허는 일 없이 않아 있을, 의가 상하는 세상애— 필 할 말인가? 내 수족의 아직 필정하니 명피하게!」

「하고, 되산 영감은 약간의 노자를 얻어 가지고, 훌쩍 떠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 후 사면을 두고, 되산 영감은 편지 한 장 없다가 이번의 또 불쑥 나타난 것이었다.」

「현군, 우리 술 잔 한 할까?」

「오래 말 없이 앉았던 되산 영감은 호주머니를 들 수었다.」

「네, 저리 차려드립니다!」

「나 있었어!」

「하고 아내가 걸상으로 저녁상을 차려 들고 들어왔다.」

「선생님 드십시오.」

「현은 보의와 소주를 취하고 있다.」

「오, 현은 부산이래 처음이구나 그래.」

「하고 되산 영감은 현의 다 부어 놓은 소주를 받아 나 죽 들며 마셨다.」

「선생님 안주가 변변치 못해 죄요!」

「유— 현군의 친구 차라 리면으로 살아 갈 테니 뭐... 어떻게 상찬을 차렸어!」

「유고, 되산 영감은 사양을 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들었다.」

「술이 모되 판수가 가고 하였다. 술의 약한 현은 변변치 않음으로 술이 없었다.」

「되산 영감도 피양의 원인을 현의 친척에게 물었어!」

「현군!」

「되산 영감은 눈을 빛내며 불쑥 현을 불렀다.」

「네 말쑥 하십시오!」

「나 강현도 진술한 피착된!」

「네—」

현은 영거주 죽 대답 하였다

「꽃나무 발이 이제 오년만 있으면 일 년 동안에도 약차한 수입이 있을 줄 알

지만— 그러나 내 가슴 속엔 구름만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어... 철

다구니 없는 것들이... 다 그놈들 한테 죽었음을 아비만—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걸까! 일년의 참배우십오일이면 우십오일도 제대로 못 찾게그려

이 노릇을 오찌 하나? 이런 못 할 일이 있나?」

「되산 영감은 목이 되 말을 잊지 못 하였다.」

「유복 저진 는 자위가 전동들의 이른 것이었다.」

「이제 사람이 될까. 내게 돈만 수십이 있었나. 남의 미운 밥 먹지 않으면니

수족을 총릴 뿐이지— 일수원심이: 자식놈들 얼굴을 보고 눈을 감는다면

죽음을 한이 없겠네. 그래서 한발이라도 가까운 곳에 가서: 기대리자는 그

생각으로 떠나 가려네!」

「허웃한 수염이 떨리도록 입을 울음 이복거리며 되산 영감은 울음을 참으려고

애썼다.」

「현도 이복의 남거주인 어머니의 생각이 치밀어, 눈 시물이 뜨기 시작했다.」

「선생님 심정은: 수난이건 어떤 합니까?」

「하고 현은 나직이 말하며 되산 영감에게 잔을 돌렸다.」

「허지 그렇게. 나 혼자 당하는 일이 아니고: 합으니 사람의 마음의 자연 조

급해지고: 저 말과 저 데그리 하하하!」

「되산 영감은 웃음으로 말문을 흐려 버렸다.」

「되산 영감은 현 술잔을 들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허 아배 소리를 흥

얼거리다가 그 자리의 술이 잔이 들었다.」

「이런 세상이었다.」

「시계가 세시도 못 되었는 때도 되산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스럭거리

고 있었다. 현은 모뎀하고 자리의 누운 채 되산 영감의 하는 모습을 몰래

보았다. 무사크를 뒤져서 배현차리 무척 하나를 내놓고 다시 비필이 매는 것

이었다. 그리고 담배의 다 불을 붙여 불었다. 멍하니 오래 벽을 바라보고 있

아 있었다.」

「이제 얼마 안되네. 이런 것들 웃가 지나 사립에게!」

「이런 조반이 끝나 현이 무사크를 들고 마루방에 나섰을 때, 되산

아니를 쳐다보며 돈 무치를 건주 위었다 놓았다.」

「현이 그랜수가 없다고 아무리 사양해도 되산 영감은 들지 않았다.」

「말이 안 되면 안 자네다 저 나를 못난이로 떠날까 하는 줄 알겠네!」

「하고, 되산 영감은 파동 전음으로 파문 밖으로 나쳤다.」

「전진 현은 부부와 되산 영감이 말없이 걸어 나 보게 갔다.」

「안타깝게도, 내 거저는 그 자리가 주겠네!」

「되산 영감은 현이 내고 있던 무사크를 들고 시피 하되 들며 배었다. 그리고 어서 돌아가라고 손짓을 하며 되산 영감은 인내가 보이 않게 호르

는 안면의 진술 스프스적 진이었다.」



* 短篇說 *

프랑스인인 제목

英 起 柳
熙 慶 禹 燮 華

1.
구도의 실망은 자살을 가져오기가 쉬운 모양이다. 나는 정민이가 왜 자살을 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허지만 그의 자살의 원인이 극도에 달한 절망에 있었는 것만은 거의 틀림이 없다고 믿고 있다. 그 절망이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보다는 민족적이고 사회적이었던 점도.....

내가 정민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는 않았다. 一九五七年, 내가 문화부장으로 근무하던 C 신문 신출현상은 문에 그가 당선되었을 때다. 그때 당선된 정민의 논문은 「유대니즘과 반항정신」이라는 다분히 정치색채를 띤 평론이었는데 말하자면 자유당 정치를 은근히 비판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더 정의감과 진리에 눈을 떠야겠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이 논문은 평론계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한때는 관헌(官憲)주변에서 문체에 오르기가까지 했다.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평론가가 되려는 생각보다 작가가 되고자하며 방금 중편 정도의 창작을 쓰고 있는 중인데 달고가 되어서야 발표할 뜻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당시 그는 때때로 신문사로 나를 찾아와서 다방에서 잠시간 정치나 문학이나 다방면에 걸친 얘기로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중이 목이었는데 서두부터가 한 젊은 대학생의 입을 통해서 현실을 까고 들어가는 판이었다. 나는 이 중편소설을 지금은 폐간되고 없지만 당시는 그래도 세상이 알아주는 종합잡지에 소개해 주었다. 그 잡지의 편집장이 나와는 통하는 동향인이었기 때문에 무명작가의 작품이었지만 무난히 발표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못하지 않겠도 이 「정치 늑은이」가 발표되자 문단에 대단한 물의를 일으켰다. 그 출처리를 여기에 장황하게 소개할 겨를은 없지만 정제의 한 늑은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부패한 한국 정치를 역사적 과학적으로 분석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제의 또 저술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작가를 때리는가 하면 「정치 늑은이」를 지지하는 젊은 작가들이 다른 신문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어느 대학 신문이 좌담회를 열어서 시비를 논하기도 하는 바람에 이 소설을 실린 잡지사에서는 「정치 늑은이」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의 약간의 돈을 벌기도 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물론 「유대니즘과 반항정신」도 아니요 「정치 늑은이」도 아니다. 그 후의 정민이가 견제된 길에 대해서이다.

一九六一年 五月 三일 아침이었다.

어느 신문사나 근처에 다방이 있다 싶어 C 신문사에도 하루 열집이 다방이다. 우리들 신문기자는 출근을 하면 출근후에 도장을 찍고는 그 길로 다방으로 모이는 것이 상례다. 문화면을 맡고 있는 나는 커피를 마시며 부원들과 내일의 문화면 계획의 논하고 있었다. 문화면만은 대개가 기사를 전달 준비해서 판을 짜 놓는 것이 보통이다.

현제 이 다방에 난데없는 정민이가 불쑥 나타났다. 그는 분명히 난데없는 정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약 일년 전, 그러니까 四·一九 이전부터 오불까지 일년 동안을 한반도 나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적전장(激戰場)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병사처럼 기진맥진해 보였다. 피린은 二, 三개월이나 이발소를 구경 못하듯 갈고 신발은 밟아서 뒷꿈치가 퍼티고 이상으로 문지러져 나갔고 정치고 있는 양복 소매에는 실밥이 튀어 올거리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누런색이다. 단치 두 눈동자만이 이 피로에 지친 사람의 살아있다는 그 이상의 무엇을 말해주는 듯이 얼얼하게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나와 오랫동안 마주 앉았으나 그의 저나간 일년 동안의 얘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려는 용기가 없는 듯 프임프임 몇마디 말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의 말의 의하면 그는 어느 출판사에서 교정을 봐주며 간신히 호우해오다가 四·一九 때는 총로서 숨겨서 탈출하여 일종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원편이가 두어 바를 꾸어낸 용타가 하루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후 난데없이 경찰에서 그가 발표한 「유페니즘과 반항정신」 「정치학은 어떻게 되었는가」 「공산론을 받았는데 그것이 三, 四개월이나 끌었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그는 출판사도 그만 두게 되고 이 집적집안도 친구, 친척을 찾아다니며 얻어먹고 때로는 아픈 사람들의 마루에서 며칠 밤 신세를 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세타소를 하던 어느 양면 있는 집의 신세를 지고 있는데 한끼 두끼 굶기는 보통이겠는 것이다.

그는 약간 부러운 듯이 나를 잡자기 찾아온 동기는—— 하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이제는 또 저저 서울에서는 전디야 별수가 없다. 시골에 나이가 많고 조(姑從)이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그 고생을 찾아가서 한 일년 동안 신세를 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남기고 싶은 작품을 써야 했다. 그런데 차비가 없다. 五천환이면 된다.

정민이 이 차비 五천환을 얻으려 왔다는 것이다.

나는 당장에 五천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유망한 정민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까움기도 했다. 그래서 신문사 회계원에게 五천환을 가불해서 주었더니 그는 몇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되풀이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그는 오늘날 아침을 먹지 않은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단골집 식당으로 데려가서 식사와 아주 한잔씩을 나누었다.

그는 한잔을 들이키고 입가의 흉터를 만지면서 약간 흥분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

『四·一九 일주년을 맞아 나는 정말 놀랐지요. 전 서울이 아니, 전국이 삼엄한 경제박제로 들이치고군요. 허기야 그나마도 형식적이면 방공비까지도 아무런 무의의 보되고 부피형상 오일. 이 땅에서 제정처럼 날뛰는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 열범 두 가지만 싶은 오일이나 간첩 등 공산주의자를 경계하는 의무적이 있는 것이 아니구 전체 국민을 경계했으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그들은 어찌서 국민을 그처럼 경계해야만 했는가? 알겠지요.』

라고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물론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같은 정치는 다름 아닌 정권을 물려받은 그들이 四·一九 정권을 완전히 짓밟았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헤어질 때 내러가면 때때로 편지를 하겠노라고 하면서 정이 것은 글은 약속을 하였다.

2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그로부터 약 일주일 지난 五월 十四일, 일요일과 정하고 시골에 내려갔다는 정민이가 다시 내 앞에 출현해 나타났다. 그때 나는 유감적으로 그가 시골에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을 구실삼아 나에게 돈을 얻으려 왔던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고공을 찾아 갔더니 일년은 고사하고 한 달도 신세질 형편이 못되었다고 말했다. 학교에는 전소자들의 수습학교 학교는 사립이라 부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선생들의 생활상태는 돈이 있으면 도루 보태고 주고픈 그러한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의 모양 정치란 영랑에서 정치라기 보다는 한말을 굶은 부패들의 우연히 말한 파라잡아 놓고 이르러서는 그러한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정민이가 시골을 다녀왔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다. 나는 어떤 신입장에서 그가 그러한 말을 꾸며서 아는 사람을 찾아들이나 믿으려 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때 정민의 아니라고 나를 찾아 와서 차값을 달라니 담배값을 달라니 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이번에는 무슨 구실을 붙여서 또 돈말을 꼬, 빌려고 하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니 나는 속으로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고 마음 먹으면서—— 그렇자니까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벌써 냉랭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 있었다. 나는 내가 말을 걸지 않고 모든 체내 일이 나와 하고 있으면 지켜봐서도 그는 일어서겠지 하고 공언히 바깥에 배를 열었다가 담배다가 자자를 불려서 바부지도 않은 일흔 시키곤 했다. 하지만 정민은 좀체 일의선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이제 내 일이 끝났다는 양 데스크를 정리하고 담배를 불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만일 돈말을 꼬내면 깨끗이 거절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한창 바빠서 내가 왔나 보요.』

하고 정민이 말을 걸었다. 나는 오히려 그가 부안한 만치, 투명스런 표정으로 아무런 매루도 하지 않고 담배만 피우며 피우고 있었다.

『부러워요.』

하고 그는 뭐고 있던 두루마리를 테이블위에 내놓았다.

『피마지박 원고를 하나 실려달라구. 시골에 가 있는 동안에 쓴 것인데 몇 장만 되긴 영프입니다.』

그때 두 그는 잠깐도 있었다. 필경, 이것을 구실로 돈을 꾸어달라는 말이 나올까 하고 짐작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정민이는 일어서면서

『될수 있으면 금명간에 실려주면 좋겠읍니다. 그럼 실려합니다.』

하고는 자리를 떴다.

그가 나가고 난 뒤, 나는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내가 짐작한 두가지 생각에서 그는 한가지가 틀렸다면 정말 미안한 일이었다. 그는 이 원고를 구실로 돈을 얻으러 왔다가 내가 너무 냉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말았느냐 하는 짐작과 또 하나는 전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사실 원고를 실리지 위해서 왔는가? 나는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의 위인을 생각할 때, 전자가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을 쳤다. 그렇다면 정말 미안한 일이다. 나는 하루빨리 이 원고를 게재해서 곤난한 그에게 원고료를 받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튿날, 즉 五월 十五일—— 나는 이날의 문화면의 예정을 변경시켜 가정관을 중지하고 문예란을 짜기로 했다. 정민이 두교간 공포를 실려서 원고료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 줄 생각에서였다.

나는 출근을 하자 곧 그가 두교간 두루마리 원고를 썼다. 원고를 검토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 이미 그는 문단의 알려진 작가였으니깐. 그보다는 말리화가에게 넘겨 상화를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약 二十대가량 되는 「할말없다」라는 제목의 있다. 나는 제목만 보고 글자에 대해 주저아랫층에 있는 화가에게 상화를 그려오라고 하고는 다른 일에 착수했다.

내 테이블과 사회부장 테이블은 한 사람이 지나다니만 한 사이를 두고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배분의 사회부장과는 거의 나란히 앉으거나 다름이 없었다. 이 때 사회부장은 취재나간 경찰출입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었다.

『도자살아! 카라라맨은 먼저 돌아보라네.』

하고 사회부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혼자자발로 응대하였다.

『유행병에 걸렸나, 죽기는 왜들 자주 죽어.』

이제 신문에서는 자살 좀 일단짜리로 타이틀도 붙이지 않고 五, 六건의 자살기사를 한데 묶어서 짧파하게 구성에 키워보려고 한다.

『요즘처럼 자살이 많아져야 어디 우디나나라의 사람이 남겠나.』

나도 아무런 생각없이 혼자 말처럼 응대하였다. 그런데 이때 화가인 「피가 땀을 흘린단 웃으며」 조금전에 내가 내터보낸 원고봉지를 내 앞의 책 내 밑면에

『이거 영프입니다.』

하고는 의미 있는 듯 내 일말을 바라보았다. 나는 무슨 뜻인지 도루지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래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죠?』

하고 화가는 또 녀웃이 웃었다.

나는 원고를 들었다. 보았다. 분방구첩에서 파는 원고지에 「풍드」 「할말없다.」 「박정민」이라고 써서 들어 있지 않는가.

『첫장을 넘겨보게요.』

하고 화가가 웃었다.

나는 첫장을 넘겼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 그 다음장을 넘겼다. 그리고 끝장인 二十대를 다 넘겼다. 한자도 쓰여 있지 않은 깨끗한 원고지. 그대로이다. 그러면서도 원고지에는 장장 아라비아 숫자로 NO가 기입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글」이라는 자가 큼직하게 쓰여 있지 않은가.

나는 필경 화가 지민이 올랐다. 이자식이 나를 몰려둘려구, 꾸민 것이구나 하는 의뢰한 분격보다도 그를 위해 계획을 변경까지 한 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반격이 되겠다.

나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가정란 틈기사를 공장에 내터보내고는 처단을 써서 내려갔다. 다방에 가는 길이다. 화집에 지나 한잔 마시자는 것이다. 그런데 계단을 막 내려섰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경찰출입기자를 만났다. 그는 바쁘게 배에서 뛰어 내려오는 지 수첩을 쥐고 있었다.

『세상엔 변놈의 자식두 있어요.』

그는 나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왜 그래요?』

『자식이 자살을 하면 잠깐구 죽을 일이지 피상한 유서를 써졌거던요.』

『뭐라구?』

『할말없다구.』

『왜 그래지 몰라선니까요.』

『이름을 알았어.』

기자는 수첩을 펴고는 의었다.

『본적은 김복××관××면, 주소는 부정, 이름은 박정민, 연령은 三十세 가람.....』

大韓民國憲法全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三. 一運動의 崇高한 獨立精神을 계승하고 四. 一
九義舉와 五. 一六革命의 理念에 입각하여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 人道와 同胞
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다파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확립하여 政
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
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서 안
으로는 國民生活의 均衡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
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마지 함으로써 우리들
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一九四八年 七月 十二日에
制定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一九六 年 月 日

第一章 總綱

第一條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二條 大韓民國의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 定한다.
第三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第四條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고 侵略의 戰爭을 否認한다.

第五條 ① 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의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効力を 가진다.
② 外國人에 대하여는 國際法과 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六條 ①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해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 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七條 ① 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 政黨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 政黨은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大法院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大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二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와 義務

第八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의 人權을 最大限으로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九條 ① 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 宗教 또는 社會의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의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 社會의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 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効력이 있으며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十條 ①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押收, 審問 또는 處罰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強制勞務를 당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逮捕, 拘禁, 搜索, 押收에는 檢察官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三年以上의 刑에 해당하는 罪을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滅의 嫌疑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私人으로부터 身體의 自由의 不法한 侵害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救濟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⑥ 被告人의 自由이 拷問, 暴行, 脅迫, 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瞞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被告人의 自由이 그에게 不利한 唯一한 證據한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지 아니를 理由로 處罰할 수 없다.

第十一條 ①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을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各을 處罰받지 아니한다.

屬政黨이 解散된 때에는 그 資格이 喪失된다. 다만 合黨 또는 除名으로 所屬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은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地方議會 議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兼할 수 없다.

第四十條 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 公共團體 또는 法律이 정하는 企業體와의 契約 또는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產上의 權利나 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第四十一條 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議員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第四十二條 國會議員이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限 國會議員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第四十三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四十四條 國會議員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一回 集會된다.

第四十五條 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 公共團體 또는 法律이 정하는 企業體와의 契約 또는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產上의 權利나 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第四十六條 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中 國會議員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第四十七條 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 公共團體 또는 法律이 정하는 企業體와의 契約 또는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產上의 權利나 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第四十八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四十九條 國會議員이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이 移送하여 一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第五十條 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前項의 期間안에 異議書를 呈하여 國會로 還行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國會議員의 閉會中에도 또한 같다.

第五十一條 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第五十二條 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會議員은 再議에 불이 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의 二 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이 第一項의 期間안에 公布하지 아니한 때에는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다. 公希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第五十四條 大統領은 第四項과 第五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前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후 第四項에 의한 確定 法律이 政府로 移送된 후 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員이 이를 公布한다.

第五十五條 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二〇日을 경과함으로써 効力을 발생한다.

第五十六條 國會議員은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 確定한다.

第五十七條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開始 一〇日前까지 國會議員에게 提出하고 國會議員은 會計年度開始 三十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第五十八條 前項의 期間안에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議員에게 豫算案이 議決된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歲入의 範圍안에서 前時度 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一、公務員의 報酬과 事務處理에 關한 基本經費
二、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維持約과 法律上 支出의 豫算가 있는 經費

第五十九條 豫算上 承認된 繼續費 三、이미 豫算가 있는 經費
第五十條 豫算上 承認된 繼續費 三、이미 豫算가 있는 經費

第五十一條 豫算 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에 變更를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追加更正 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議員에게 提出할 수 있다.

第五十二條 國會議員은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力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五十三條 國會議員은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力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五十四條 國會議員은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力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五十五條 國會議員은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力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五十六條 國會議員은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力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五十七條 國會議員은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力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五十八條 國會議員은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力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五十九條 國會議員은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力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六十條 國會議員은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力한 支出豫算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있는 한에 있어 응하여야 한다.

第六十條 ①國會는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範圍 안에서議事와內部規律에 관한規則을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議員의資格을審查하며議員을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除名하려면在籍議員三分의二以上の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二項과第三項의處分에 대하여는法院에提訴할 수 없다.

第六十一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長、法官、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監査委員 기타法律에 정한公務員이 그職務執行에 있어서憲法이나法律을違背한 때에는國會는彈劾의 訴追를議決할 수 있다.

②前項의彈劾訴追는國會議員三人以上の發議가 있어야 하며그議決은在籍議員過半數의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議決을 받은者는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權限行使가 정지된다.

第六十二條 ①彈劾事件을審判하기 위하여彈劾審判委員會를 둔다.

②彈劾審判委員會는大法院長을委員長으로하고大法院判事三人과國會議員五人의委員으로構成한다. 다만大法院長을審判한 경우에는國會議長이委員長이 된다.

③彈劾決定에는構成員六人以上의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彈劾決定은公職으로부터罷免함에그친다. 그러나이에의하여民事上이나刑事上의責任이免除되지 아니한다.

⑤彈劾審判에 관한事項은法律로

정한다.

第二節 政府

第一款 大統領

第六十三條 ①行政權은大統領을首班으로하는政府에속한다.

②大統領은外國에대하여國家를代表한다.

第六十四條 大統領은國民의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의하여選出한다. 다만、大統領이關位된 경우에는殘任期間中、二年에未滿한 때에는國會에서選舉한다.

②大統領으로選舉될 수 있는者는國會議員의被選舉權이 있고選舉日現在 계속하여五年以上國內에居住하고四〇歲에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公務로外國에派遣된期間은國內居住期間으로 본다.

③大統領候補가 되려하는者는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大總統選舉에 관한事項은法律로 정한다.

第六十五條 ①國民이大統領을選舉하는 경우에 最高得票者가二人以上인 때에는國會의在籍議員過半數가출석한公開會議에서多數票를 얻은者를當選者로 한다.

②大統領候補者가一人일 때에는그得票數가選舉權者總數의三分의一以上이 아니면大統領으로當選될 수 없다.

第六十六條 ①國會가大統領을選舉하는 경우에는在籍議員三分의二以上の出席과出席議員三分의二以上の贊成을 얻은者를大統領當選者로 한다.

②前項의得票者가 없는 때에는二

次投票을하고二次投票에도前項의得票者가 없는 때에는最高得票者가一人이면最高得票者와次點者에대하여最高得票者가二人以上이면最高得票者에대하여決選投票을함으로서多數得票者를大統領當選者로 한다.

第六十七條 ①大統領의任期가滿了되는 때에는任期滿了七十日乃至四十日전에後任者를選舉한다.

②大統領이關位된 때에는즉시後任者를選舉한다. 大統領當選者가死亡하거나判決기타의事由로그資格을喪失한 때에는또한같다.

第六十八條 大總統은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宣誓을한다. 「나는國憲을遵守하고國家를保衛하며國民의自由와福利의增進에노력하여大統領으로서職責을성실히수행할 것을國民앞에언숙히宣誓한다.」

②前項의宣誓에는國會議員과大法院의法官이참석한다.

第六十九條 ①大統領의任期는四年으로 한다.

②大統領이關位된 경우의後任者는前任者의殘任期間中在任한다.

③大統領은一次에限하여重任할 수 있다.

第七十條 大統領이關位되거나事故로인하여職務을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國務總理、法律에 정한國務委員의順位로 그權限을代行한다.

第七十一條 大統領은條約을締結批准하고外交使節을信任接受 또는派遣하며宣戰布告와講和를 한다.

第七十二條 ①大統領은憲法과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軍을統帥한다.

②國軍의組織과編成은法律로 정한다.

第七十三條 ①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財政經濟上の危機에 있어서公共의安寧秩序를維持하기 위하여緊急한措置가필요하고國會의集會를기달할 여유가 없을 때에限하여大統領은最少限으로필요한財政經濟上の處分을하거나이에관하여法律의効力を가지는命令을發할 수 있다.

②國家의安危에관계되는중대한交戰狀態에있어서國家를保衛하기 위하여緊急한措置가필요하고國會의集會가불가능한 때에限하여大統領은法律의効力を가지는命令을發할 수 있다.

③第一項과第二項의命令 또는處分은지체없이國會에보고하여그承認을얻어야 한다.

④前項의承認을얻지 못한 때에는그命令 또는處分은그때부터効力を喪失한다. 다만그命令에의하여改正 또는廢止되었던法律은그命令이承認을얻지 못한 때부터당연히効力を회복한다.

⑤大統領은第三項과第四項의事由를지체없이公布하여야 한다.

第七十四條 ①大統領은法律에서具體的으로範圍를정하여委任받은事項과法律을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事項에관하여大統領令을發할 수 있다.

第七十五條 ①大統領은戰時事變 또는 이에準하는國家非常事態에있어서兵力으로써軍事上の 필요 또는公共의安寧秩序를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 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 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 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 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戒嚴이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⑤ 國會가 戒嚴의 解除를 要求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七十六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七十七條 ①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 減刑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 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赦免 減刑 復權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七十八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七十九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八十條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

第八十一條 大統領은 國務總理 國務委員 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務員의 職을 겸하거나 營業에 종사할 수 없다.

第八十二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

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二款 國務會議

第八十三條 ① 國務會議은 政府의 模範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 國務會議은 大統領 國務總理와 十人以上二十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한다.

第八十四條 ①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軍人は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라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③ 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第八十五條 ①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 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國務會議의 副議長이 된다.

第八十六條 다음 事項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一、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二、宣戰 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三、條約案 法律案과 大統領令案
四、豫算案 決算案 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關한 重要事項
五、戒嚴과 解嚴
六、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七、國會의 臨時會集會의 要求
八、榮典 授與
九、赦免 減刑과 復權
十、行政各部의 權限의 判定
十一、政府안의 委任 또는 配定에 關한 基本計劃

十二、國政處理狀況의 分析
十三、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十四、政黨解散의 提訴
十五、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政府의 政策에 關하여는 請願의 審査
十六、檢察總長 海兵隊司令官 公使 各軍參謀總長 海兵隊司令官 公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중요한 國營企業體 管理者의 任命
十七、기타 大統領 國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八十七條 ① 國家安全保障에 關한 對外政策 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을 둔다.
② 國家安全保障會議은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 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 職務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三款 行政各部
第八十八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中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八十九條 國務總理는 行政에 關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第九十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關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發할 수 있다.
第九十一條 行政各部의 設置 組織과 職務範圍은 法律로 정한다.

第四款 監査院
第九十二條 國家의 歲入 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에 正한 團體의 會計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監査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九十三條 ① 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五人以上 十一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一次에 限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③ 院長이 關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 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第九十四條 監査院은 歲入 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結果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九十五條 監査院의 組織 職務 範圍 監査委員의 資格 監査對象 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三節 法院
第九十六條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九十七條 ① 大法院에 都廳을 두는 수 있다.
② 大法院의 法官의 數는 十六人以下로 한다.
③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九十八條 法官은 이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監査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九十三條 ① 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五人以上 十一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一次에 限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③ 院長이 關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 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第九十四條 監査院은 歲入 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結果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九十五條 監査院의 組織 職務 範圍 監査委員의 資格 監査對象 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三節 法院
第九十六條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九十七條 ① 大法院에 都廳을 두는 수 있다.
② 大法院의 法官의 數는 十六人以下로 한다.
③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九十八條 法官은 이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監査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九十三條 ① 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五人以上 十一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一次에 限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③ 院長이 關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 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第九十四條 監査院은 歲入 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結果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九十五條 監査院의 組織 職務 範圍 監査委員의 資格 監査對象 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三節 法院
第九十六條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九十七條 ① 大法院에 都廳을 두는 수 있다.
② 大法院의 法官의 數는 十六人以下로 한다.
③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九十八條 法官은 이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監査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九十三條 ① 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五人以上 十一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一次에 限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③ 院長이 關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 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第九十四條 監査院은 歲入 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結果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九十五條 監査院의 組織 職務 範圍 監査委員의 資格 監査對象 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三節 法院
第九十六條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九十七條 ① 大法院에 都廳을 두는 수 있다.
② 大法院의 法官의 數는 十六人以下로 한다.
③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九十八條 法官은 이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監査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九十三條 ① 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五人以上 十一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一次에 限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③ 院長이 關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 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第九十四條 監査院은 歲入 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結果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九十五條 監査院의 組織 職務 範圍 監査委員의 資格 監査對象 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三節 法院
第九十六條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九十七條 ① 大法院에 都廳을 두는 수 있다.
② 大法院의 法官의 數는 十六人以下로 한다.
③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九十八條 法官은 이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監査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九十三條 ① 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五人以上 十一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一次에 限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③ 院長이 關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④ 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四年으로 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第九十四條 監査院은 歲入 歲出의 決算을 每年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結果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九十五條 監査院의 組織 職務 範圍 監査委員의 資格 監査對象 公務員의 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九十九條

① 大法院長인 法官은 法官推薦會議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國會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② 大法院長은 法官推薦會議의 提請이 國會議員의 同意를 要請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으면 任命하여야 한다.

③ 大法院判事인 法官은 大法院長이 法官推薦會議의 同意를 얻어 提請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에 提請이 있으면 大統領은 이를 任命하여야 한다.

④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大法院判事會議의 議決을 거쳐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⑤ 法官推薦會議는 法官四人 辯護士二人 大統領이 指名하는 法律學教授一人 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으로 構成한다.

⑥ 法官 推薦會議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⑦ 大法院長인 法官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며 連任될 수 없다. ⑧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하며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될 수 있다.

⑨ 法官의 停年은 六十五歲로 한다.

⑩ 法官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 減俸 또는 불리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⑪ 法官이 重大한 心身上的 障害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⑫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⑬ 命令 規則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⑭ 政黨解散을 命하는 判決은 大法院法官 定數의 五分의 三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⑮ 大法院은 法律에 抵觸되거나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訴訟에 關한 節次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⑯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安寧秩序를 妨礙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한 念慮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⑰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을 들 수 있다.

⑱ 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⑲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 軍屬의 犯罪나 軍事에 關한 間謀罪의 경우와 哨兵哨所 有害飲食物供給 捕虜에 關한 罪나 法律에 定한 경우에 限하여 軍審으로 할 수 있다.

⑳ 選舉管理의 公正을 期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

㉑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二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二人과 大法院判事會議에서 選出하는 五人委員으로 構成한다. 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㉒ 委員의 任期는 五年으로 하며 連任될 수 있다.

㉓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여 할 수 없다.

㉔ 委員은 彈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㉕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 안에서 選舉의 管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㉖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㉗ 選舉運動은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에 定한 範圍 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㉘ 選舉에 關한 經費는 法律이 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㉙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產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 안에서 自治에 關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㉚ 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定한다.

㉛ 地方自治團體에는 議會를 둔다.

㉜ 地方議會의 組織 權限 議員選舉外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営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的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한다.

㉞ 國家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의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正義의 실현과 均衡이 있는 國民經濟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範圍 안에서 經濟에 關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㉟ 鑛物 기타 重要한 地下資源 水產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㊱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㊲ 國家는 農地와 山地의 效率의 利用을 위하여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關한 필요한 制限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㊳ 農民 漁民과 中小企業者의 自助을 基盤으로 하는 協同組合을 육성하고 그 政治的 中立性을 보장한다.

㊴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㊵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에 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㊶ 國民經濟의 발전과 이를 위한 科學振興에 關련되는 重要한 政策樹立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經濟科學 審議會를 둔다.

㊷ 經濟科學 審議會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㊸ 經濟科學 審議會의 組織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㊹ 憲法改正의 提案은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의 一以上 또는

憲法改正의 提案은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의 一以上 또는

憲法改正의 提案은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의 一以上 또는

國會議員選舉權者 五十萬人以上の贊成으로 한다.

②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三十日以上の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百二十條 ① 國會는 憲法改正案 이 公告된 날로부터 六十日以内에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② 憲法改正案에 대한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三分의 二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百二十一條 ①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六十日以内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 選舉權者 過半數의 投票과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民主主義의 새傳統 確立

國民投票 結果에 朴議長 U P I 에 特別 寄稿 全文

한나라에서 진정한 諸民主理念은 對外的으로는 共產主義와 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武器이며, 對內的으로는 政治의 부패 및 社會惡의 防止와 福祉社會의 건설을 위한 最善의 手段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高貴한 理念은 獨裁, 腐敗 및 政治의 無能의 強壓을 받아 이 땅에 싹트려 할 때 蹂躪, 犠牲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지난 十五年間의 韓國「民主政治」史였다. 이토록 不健全한 政治의 風潮 가운데서도 韓國民들은 確固不動한 基

礎를 이루었다. ② 憲法改正案이 前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案은 修正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

第一條 ① 이 憲法은 이 憲法에 의한 國會가 처음으로 集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國會議員의 選舉기 타 準備는 이 憲法 施行前에 할 수 있다. ②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이 憲法

의 施行과 동시에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二條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選舉 및 最初의 國會의 集會는 이 憲法의 公布日로부터 一年以内에 한다. 이에 의하여 選舉된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任期는 最初의 國會의 集會日로부터 開始되고 一九六七年 六月 三十日에 終了된다.

第三條 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의한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持續한다.

第四條 ① 特殊犯罪處罰에 관한 特

의 支持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投票가 가장 民主的이며 自由로운 券圍氣 가운데 實施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국민들은 당연히 이點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로써 민주주의의 새傳統을 확립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민주국민으로서의 진정한 자負心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와같은 전통과 자부심이 오랫동안 우리들 後孫 사이에 살아 남을 것이라고 믿는다.

第三共和國의 기틀이 될 새 憲法의 確定은 革命政府의 公約에 따른 民政移讓의 課業이 順할히 進行中임을 立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傳統과 憲法秩序下에서 한국의 民主政治가 꾸준한 발전을 이룩할 것임을 확신할만한 모든 理由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別法, 不正選舉關係者處罰法, 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審財處理法과 이에 관련된 法律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에 대하여 異議를 할 수 없다.

③ 政治活動淨化法 및 不正審財處理法과 이에 관련된 法律은 이를 改廢할 수 없다.

第五條 國家再建非常措置法 또는 이에 의한 法令에 의하여 행하여진 裁判, 豫算 또는 處分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 憲法을 理由로 提訴할 수 없다.

第六條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 變更된 公務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第七條 ① 이 憲法 施行 當時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된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②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되는 機關은 이 憲法 施行 後 一年以内에 構成되어야 한다.

③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地方議會의 構成時期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八條 國土收復後의 國會議員의 數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九條 이 憲法 施行 當時의 大統領令, 國務院令과 閣令은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令으로 본다.

미사일 既刊分重要目次抄

「미사일」1~20호까지 中에서 「精神革命」 「生活實踐」 「民主主義의 成長」 「反共」에 關한 重要한 題目을 후터 讀者의 參考에 供하러 한다. (미사일 既刊分他分野의 重要內容分 析은 「編輯後記」에 紹介되어 있음)

△精神革命△에 關한 것

題目	創刊號	筆者
道德重整運動	1	金基錫
來日을 위하여	1	劉鳳榮
「無」와 「有」의 交叉路에서	1	金亨錫
나를 찾는 길	2	林東善
五·一六革命과 우리의 覺悟	2	金成植
遵法精神과 社會連帶意識	3	洪承勉
五·二六革命과 民主國力培養의 道	3	全海宗
精神革命의 建設的課題	4	金亨錫
八·二五感激과 民族의 團結	4	최현배
끝에서 시작한다	4	金宗文
겨리는 마음	5	李貞子
愛國이란 것	5	李殷相
協助精神과 社會生活	5	尹永春
信仰과 生活	6	林東善
바른생각은 곧 힘이다	6	成仁基
軍人の 敎養과 人品	6	洪鍾仁

題目	頁數	筆者
먼저 알아야 할 것	6	趙豐衍
軍인과 信仰	6	林東善
革命의 主體性을 確立하자	8	洪承勉
自己喪失의 終着點	8	申一激
軍인과 行動	8	金宗文
生産的 思考와 創意的 行動	9	張秉琳
行動이란 무엇인가?	9	金成植
民族性改造와 國家再建	9	權純永
公衆道義와 個人의 自覺	9	趙豐衍
강부論	9	鄭飛石
공과論	9	鄭飛石
장과論	9	鄭飛石
책論	10	李寧熙
日記	10	崔要安
國家再建에의 道	10	鄭世雄
革命第三段階와 軍人の 姿勢	10	金八峰
個人主義와 共同體精神	10	洪鍾仁
韓國社會構造的 特質과 民主主義	10	李萬甲
韓國革命과 歷史의 轉機	11	金基錫
三一精神과 民族의 進路	11	俞鎮午
民族中興을 위한 大改革	11	金子煥

△生活實踐△에 關한 것

題目	頁數	筆者
停滯에서 다시 建設	12	徐用燦
韓國의 意志를 宣揚	12	趙庸中
社會의 正義를 具現	12	吳蘇白
本來의 姿勢를 찾아	12	申禹植
科學的 思考와 因習	13	宋基澈
軍人家族과 特權意識	13	韓鶴洙
軍인과 信賴感	14	朴元錫
人和라는 것	14	李熙昇
團結이라는 것	16	金允經
建國理念과 國家再建	18	金東河
人格과 名譽	18	金桂淑
名譽心은 價值的인 慾求다	18	李殷相
韓國人の 수치심	18	金貞玉
軍인과 功名心	18	韓鶴洙
名譽와 評判	18	成仁基
軍人에의 意見	2	金宗文
나의 職業과 生活	2	知名人士
生活樣式的 轉換을 말한다	3	座談會
再建家計簿	3	金聖泰
가까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4	洪承勉
이렇게 하자	4	知名人士
손발이 맞아야 한다	4	李熙昇
日課後의 生活을 말한다	5	座談會
再建座右銘七章	6	朱允鎬
나는 이렇게 實踐했다	6	앙케이트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의 自己管理	7	李鍾雨
生活의 改革과 創造	7	韓太壽
軍人이 지녀야 할 일곱가지 生活型	7	金宗文

아는 것 힘이다



指揮官 特別政訓教育 실시
각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확고한 승공 민주재건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고자 군내 각급 지휘관 특별 정훈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건은 육군 정훈학교에서의 일교
시 광경▽

中央淸空訓練所 창설

학생 특수체육관 등 계획에 의거한 활공훈련을 담당키 위해 중앙 활공훈련소가 창설되어 하늘을 등경하는 젊은 꿈들을 마음껏 쫓아주게 되었다.

△사건은 동창실식 광경▽



十月二日行事 有功장병 表彰

十月二日 행사 유공장병과 문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표창장 참모총장 표창장 및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사건은 표창자 일동과 장갑모총장, 박참모차장의 기념촬영▽



駐日美空軍서 順天災民에 衣
지난 여름 불의의 홍수로 큰 격을 받고 그 복구 재건에 충을 기울이고 있는 순천지구 수민에게 주일 미공군과 그 가족이 약 2천 파운드의 의류 등 호품으로 보내 왔다.

△사건은 동구호품▽





미사일

제 20 호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